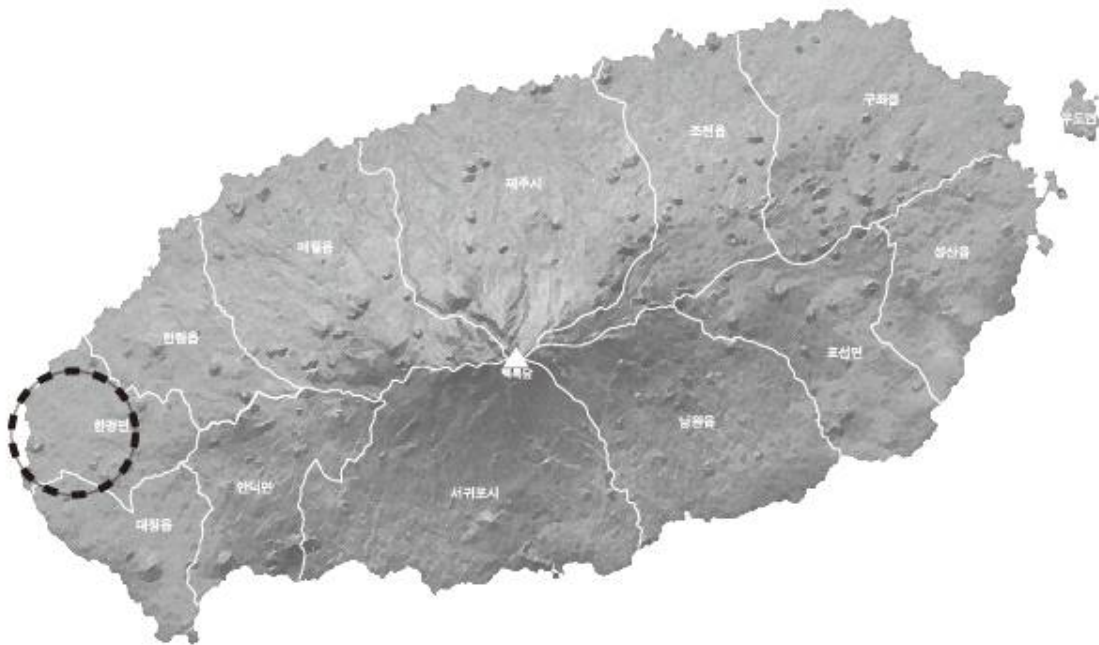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294-01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신우봉
조사지점 한경면 고산리

10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10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환경면 고산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1
2.5. 장비	12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3	2. 제보자 일생	20
3. 발일	24	4. 들일	33
5. 바다일	37	6. 의생활	42
7. 식생활	48	8. 주생활	57
9. 신앙	61	10. 세시풍속	62
11. 놀이	66	12. 통과의례	72
13. 민간요법	79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80

제2절 어휘

1. 인체	82	2. 육아	88
3. 친족	95	4. 의복	99
5. 음식	104	6. 가옥	113
7. 생업	118	8. 수와 단위	130
9. 민속	133	10. 신앙	136
11. 자연	137	12. 동물	144
13. 식물	153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한경면 고산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김인세 (남, 1933년생)

이영형 (남, 1930년생)

2.2. 조사 기간: 2014. 10. 28.~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 의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김인세	00:39:13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김인세	00:40:11	○
	구술 2. 제보자 일생	이영형	00:25:15	○
3. 밭일	구술 3. 밭일	김인세	00:58:12	○
4. 들일	구술 4. 들일	김인세	00:18:21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김인세	00:48:23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김인세	01:18:11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	김인세	00:47:03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김인세	00:40:29	○
9. 신앙	구술 9. 신앙	김인세	00:31:18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김인세	00:16:42	○
11. 놀이	구술 11. 놀이	김인세	00:30:14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김인세	00:12:59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김인세	00:05:02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김인세	00:08:30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김인세	00:32:06	○
2. 육아	어휘 2. 육아	김인세	00:21:42	○
3. 친족	어휘 3. 친족	김인세	00:20:54	○
4. 의복	어휘 4. 의복	김인세	00:31:59	○
5. 음식	어휘 5. 음식	김인세	00:24:52	○
6. 가옥	어휘 6. 가옥	김인세	00:55:36	○
7. 생업	어휘 7. 생업	김인세	01:16:11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김인세	00:21:41	○
9. 민속	어휘 9. 민속	김인세	00:18:32	○
10. 신앙	어휘 10. 신앙	김인세	00:22:31	○
11. 자연	어휘 11. 자연	김인세	00:14:32	○
12. 동물	어휘 12. 동물1	김인세	00:15:11	○
	어휘 12. 동물2	김인세	01:05:32	○
13. 식물	어휘 13. 식물	김인세	01:18:37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1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

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신우봉, #1: 김인세, #2: 이영형)

1. 조사 마을

101001 #1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나서.

101001 @ 여기서 몇 살때까지 사셨마씨?

101001 #1 내내 이때까지주.

101001 @ 그럼 태어났을 때 고산 모습 약간 설명해주실 수 있어마씨?

101001 #1 기억나는 거 마을 별로 없어. 집은 초집이 많았주게. 많았당 박정희 때 당시부터 뭔가 짓기 시작했주게. 그후로 한장 내려왔주. 여기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여기있어으니깐. 내가 본토 본토가 여기다보니깐. 여기와가지고 농사 짓기 시작했주게.

101001 @ 마을 처음에 생겼을 때 그 마을에 대해 골아줍서게.

101001 #1 마을 초담 여기 살 때는 여기가 아니주게. 저 밑에 고새미라는 곳이 주게. 바닷가에.

101001 @ 그럼 거기서 여긴 언제 올라완마씨?

101001 #1 거기서 차츰 차츰 올라오는 게 저 밑에 집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이 까지 올라왔주게 동네가. 동네 모습이야 뭐 여기저거 조금씩 흩어정 살았주게.

101001 @ 그럼 고산이 마을이 어떻 형성되신지 말해줍서.

101001 #2 고산은 만든 거는 뭐 마을 만든 다는 말은 아니고, 왜 고산이냐 이름 이 됐는가 글썽 왜 거 높을 고 떡 산을 썼느냐 이겨주게. 그게 게니깐 제주도의 이 머리가 게니깐 제주도를 거북이 형국으로 보는데 머리가 수월봉에서 바로 옆마을에 있는 신창리에 있는 두모리까지 머리 두자 털 모자.

101001 @ 예.

101101 #2 지금 제주도 지도를 딱 놓고 자를 딱 그었다면 수월봉에서 종달리에 있는 지미봉 그니깐에 딱 반이라, 그까지가.

101001 @ 예.

101001 #2 반이란 말은 여기에는 또 깊은 뜻이 또 있어.

101001 @무슨 뜻 잇어마씨?

101001 #2 영등할망까지 나오는데, 게 우선 예 마을 역사부터 이야기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을을 고산이라고 한 거는 거북이 마을, 머리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높을 고 떡 산을 쓴거야. 그거 여, 여기 두 번째 이 당, 이제 당, 당산이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 하는데 당상이에요. 우리가 이 거북이 눈과 눈 사이를 이가 여기를 우

리가 인당이라고 해, 사람이니까 인 자를 붙여 당 잔데, 있어야 할 당 자라. 인당 위에 봉이다 게서 따지고 보면 한라산보다도 높을 산이 된다 이겨주게.

101001 @ 예.

101001 #2 당상봉이.

101001 @ 예.

게고 기질 역사상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한다.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산이라고. 저 용머리하고, 이 모수포에 있는 용머리하고 이제 이, 이게 당상봉이. 그래서 이제 고산, 고산 이제 하게 된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당상봉에는 이 할망당이 있어.

101001 @ 할망당마씨?

101001 #2 게서 그 할망당을 저걸 이제 자꾸 마을에다가 이야길 해도 안 듣는 게 문화가 발전 할수록 신경화가 돼, 사람이. 내 집에 속상한 일 있으면 돌맹이 올려놓으면서 소원도 풀고.

101001 @ 예.

101001 #1 그게 사람의 심리라. 그러면 저 할망당은 병신 된 애를 고치고, 애를 못 낳은 사람을 고쳤던 그런 거 기록이 있는 할망당, 제주도에서 제일 할망당이라. 그러면 그 소원을 빌어서 이루어진다는 것 보다 내 마음을 푼다는거주게. 것이 또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한 크루저 물이 들어오는데, 크루저 물이 일월달부터 들어와게. 겨울. 그 일월달부터 평균 들어와. 그래서 이월달 말까지 이제 그 크루저 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영등 할망이 온다고 하주게, 영등 할망. 그 말은 북쪽에서 아주 냉기류가 들어와서 봄월, 시, 미역, 소라, 부쟁기, 전복 이런 씨앗을 뿌렸던 거야. 그것이 고산으로 들어와서 딱 물이 한 바쿠 돌아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종달리에 있는 지미봉에서 만나. 그것이 딱 십 오일이라.

101001 @ 예.

101001 #2 그래서 물때를 맞춘 것이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종달, 지미봉에서 만나서 그 미 자가 꼬리 미자거든? 풀랭이라는 거야. 거북이 꾸리야. 그 지미봉에서 만나서 종달리에서 헤진거야. 그 종달, 그리로 일본으로 들어가. 그것이 바로 종 자가 마칠 종자거든, 그래서 종달로 갔다는 뜻이야. 근데 거기는 이 여긴 또 깊은 역사가 있어. 깊은 역사가 있는데, 무슨 역사가 있느냐면, 그 크루저 물을 타고 온 사람이 제 일은 서복이 들어왔어. 서복이라는 사람 몰라? 서귀포에 가면 서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서복에 대해서 좀 알아보켜.

101001 @ 예.

101001 #2 서복, 이 김대건 신부가 서복이 들어왔는데, 서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니까. 진시황의 오른손이라, 서복이라는 사람이. 근데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제일 무서운 놈이 또 서복이라. 그래서 세계 역사상 일개 나라에서 장군 오 백명과 마누라 오 백명, 군선 또 장인 백명 그러면 약 천이백명을 데리고 이제 불로초 캐러 온다고 했지만은 나라를 설게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보낸

거라. 것이 세계 역사상 없는 그 역사라. 그래서 일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로 들어 온 거야. 이 장안. 용수리에 가면 장안리라고 있어. 이 장안이라는 데가 바로 서북 고향이어신디. 그때 그 당시 말을 타고 말을 배에 싣고 오다보니까, 말이라는 것을 배에 둘을 써꺼야 돼. 삼분의 일 가라앉혀 놓고 말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타는데, 그 돌들이 지금 있어. 중국에서 온 돌들이. 하얀 돌들이. 근데 그 중국, 용수 사람들이 저걸 원칙을 하면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 될 거야. 원, 원래는. 근데 용수 놈들이 아주 무식해가지고 몰라. 그건 마을에서 그건. 저 못하는 거. 지금도 그 돌들이 거기 있고. 얼마든지 증빙자료가 있다 이거야.

101001 @ 예.

101001 #2 그리고 또 두 번째 김대건 신부인데. 김대건 신부도 역사가 많아. 아주 그,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도 죽었고. 이게 종교적인 뭐, 문제는 얘기해선 안 될 거지만은. 김대건 신부도 크루저 물길이 흐르는데 까지 누가 배를 끄슬러 준거야. 노를 안 젓고 그냥 뒤집어쓰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제 뭐 왔다는, 십육일 만에 용수로 들어온 거야. 서북은 십삼일 만에 들어왔어. 근데 거 십육일 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서울을 갔는데. 이거는 그 저 이조실록에 나온 건데, 우리 그 풍수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식이냐면 똥물 두 바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이 만명이 죽었어. 계란 김대건 신부가 서울을 갈 때 대원군이 무슨 일을 할 때나면 안동 김씨가 우리나라를 싹 장악해 잇었주게. 무조건 안동 김씨는 다 직장을 시켜 준거야. 근디, 대원군으로선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이해했어. 그래서 정권을 잡자마자 안동 김씨를 척살시켜 버렸어. 죽이진 아니고 관직에서 다 내려오게 맨든 거라. 그래서 여기 사람, 서로 골고루 채용을 한 거야. 그 당시 김대건 신부가 그때 올라 간거라. 그래서 그 안동 김씨들이 김대건 밑에 전부가 들어갔주. 그 천주교. 그 들어가 가지고 잇었는데, 그 옛날 좋았던 생각이 나거든. 그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안동 김 씨들이. 그래서 그 안동 김씨에서 누군가가 대원군 아버지 묘를 이제 똥물을 부어버리면 발복을 안한다 해가지고 똥물 두 바가지 사건이라 그게. 그게 대원군은 그 자기 아버지 묘를 모시기 위해서 충청도 어디 저 뭐 속리산인가 그 어디 가서 묻었는데 최고의 그 풍수사, 대원군도 풍수사였어. 어. 풍수사. 그래서 대원군은 아주 모든 면에 아주 박식한 분이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 뼈다귀를 일주일 동안 지고 가서 그 묻었던 자리야. 거기를 허, 똥물을 두 바가지 부워버려부난, 대원군이 국수를 좋아했어. 국수를 먹은 채 기질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이조실록에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더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은 누가 했는가를 찾다보니까 잡진 못하고 핫김에 이제 죽이기 시작한 게 똥물 두 바가지 때문에 이 만명이 죽어버려. 마지막에 김대건 신부도 마지막에 거기서 죽었어.

101002 @ 그럼 고산은 주로 무슨 성씨가 많아마씨?

101002 #1 고산 성씨는 이가가 많을꺼라.

101002 @ 또 다른 성씨는 엇언마씨?

101002 #1 그 다음에는 김씨가 많을거라.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지 뭐.

101002 @ 그럼 고산리는 주로 무슨 성씨가 많아마씨? 예전에는?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마씨?

101002 #2 아니, 예, 이젠 거의 다 비슷비슷해.

101002 @ 그런데 예전에는 뭐 어느 성씨가 많거나 그런 건 없었마씨?

101002 #2 그런. 근데 여기도 이제 그 마을 역사를 보면 여기가 비전비답이라. 비전비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흙이 없고 수로가 없을 때는 비가 왔을 땐 백둠이 다 이제 물바다였던 말이야. 그래서 그.제일 마을이 생긴 데는 두모나 한원이 쪽이 아주 높지. 연대가. 음 두머, 두모. 두모 쪽이 높아. 어, 바, 반포. 이래가 높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소 먹이러 왔어. 소를 먹이다가 어떤 사람이 밭이 없으니까 흙을 파고 밭을 경작하기 시작하니깐 밭이 좋거든. 여기는 수성 화산 지대가 돼가지고, 그. 판 데 보다 농토가, 병비가 아주 좋아.

101002 @ 여기가 마씨?

101002 #2 아니, 이쪽 말고, 저쪽에. 예. 병지 쪽이. 수성 화산 지대라서 굉장히 좋아. 그래서, 그. 누가 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흙 파고, 밭을 갈아먹다가, 이제는 농지정리를, 이. 칠십년, 칠십. 이년도인가 삼년도에 농지정리가 들어갔지, 이게. 그래, 들어가서 노, 그때 통일부에 이 논을 제, 로 제배해서 굉장히 그 통일 벼가 잘 되어갔어. 벼가.

101003 @ 고산에서 사람들은 뭐하면서 먹고 살아마씨?

101003 #1 그 때야 다 농사 지 뭐.

101003 @ 어떤 농사 주로 지었마씨?

101003 #1 보리, 조, 콩 또 뭐가 나락 이런거.

101003 @ 어업은 안했마씨?

101003 #1 어업은 없어. 배 델대가 없어.

101003 @ 삼촌 옛날에 뱃일도 하셨잖아마씨?

101003 #1 오. 뱃일도 했지. 허기는. 쪼끄만한 거. 테우 알아져? 테우 타가지고 고기 낚으래 다녔주. 테우 하나 사다가 그거는 벨로 이 배 들어갈 때 없어도 들어가거든. 들어가니까 그걸로 뭐 허고.

101003 @ 배에서 잡히는 거는 뭐 잇었마씨?

101003 #1 뭐 바당서 가이니까 잡이는 거 해봤자 불락, 우럭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지. 그전에는 돔 같은 거 많았주께.

101003 @ 벼가 마씨? 그럼 여기 고산리 사람들은 주로 그 벼농사 해마씨? 아님 보리농사 해마씨?

101003 #2 아니 옛날에 해냈지, 여기에.

101003 @ 옛날에 해냈. 뭐 어떤 거, 두 개 다 마씨?

101003 #2 제일 처음 여기서 했던 건 벼농사 전에는 절간 고구마.

101003 @ 절간 고구마?

101003 #2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소주 주당 원료라. 그래서 그, 그 절간 고구마를, 만약에 또 감자. 감자는 고산 감자하면 지금도 최고로 쳐. 왜냐면 수성화산 지대이기 때문에 감자가 맛이 있어.

101003 @ 그럼 어르신, 그, 어르신도 어리셨었을 때는, 젊으셨을 때는 밭농사 했수광?

101003 #2 어?

101003 @ 어르신 젊으셨을 때 보리농사나 뭐 밭농사.

101003 #2 어 보리, 고구마, 감자. 어.

101004 @ 고산에서 좀 유명한 오름이나 산, 굴 등 그런거 소개해줍서.

101004 #1 외정시대 절로 들어온데 굴 좀 파논거 이신디 그건 그렇게 깊으시잖아.

101004 @ 오름은 수월봉이 제일 유명해마씨?

101004 #1 아니 저 그거 저거는 고산선 당오름이라하주. 당오름에 대해서는 별 다르게 해논거 없어. 거기로 내려가면 자구네라고 있주게. 자구네. 바닷가. 거기 근처에 굴 몇 개 더 있주게.

101004 @ 그럼 당오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마씨?

101004 #1 당오름에 대해 저쪽 저쪽 오름 이거는 수월봉이고. 당오름에 대해 가지고 아는 거는 별로 없어. 그 산이름이나 당오름하고 그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거 밖에.

101004 @ 옛날에도 거기장 많이 놀아수광?

101004 #1 응. 풀 나는 거야 많지. 아는 게. 풀 나는 게 딴 디서 안 나는 것이 분채순이라는 게 있어. 분채순이라는 게 그 오름에 있고. 이디에 나는 방풍이영 혼거는 이디에 나는 거니깐 환경 그 저 수월봉으로 저 당오름으로 이쪽들에는 방풍이 나니깐 하고. 또 그 아까 얘기한 분채순이는 저 오름에 밖에 없어.

101004 @ 자구네 근처에 굴 있다고 하지 않안마씨?

101004 #1 굴 저쪽에 굴 있었주. 전북도 길러다가 팔고 고기도 거기 들여와서. 물 들면은 돌담 쌓아가지고 그 물만 드나들이 하계끔 해가지고 거기다가 구제기니 전북 같은 거 또 고기 같은 거. 자연굴이니까 자연굴이니까 거기서 키우다가 팔거든. 파는디 그 초담 그 굴 입자 이름이 저 뭐다. 용찬이. 그게 용찬이 고냥 용찬이 고냥 했거든? 굴이 그 고냥 같이 도에는 널러도 안에 들어갔을 좁거든. 안에 들어 고냥이라고 허주.

101004 @ 그 여기 그 고산 주변에 어르신, 오름이나 바위나 굴 그런 거 좀 유명한 거 있던마씨? 수월봉이 제일 유명, 유명 하지마씨?

101004 #2 뭐?

101004 @ 제일 유명한 오름이나 뭐. 산이나 뭐.

101004 #2 오, 오름은 수월봉이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했듯이 수월봉으로 두부까지 머리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다가 저. 영삼제나 기우제를 지내는 산이

제주도에 딱 두 군데 밖에는 없어. 성판악인가 어디서 하고 저기 밖에 없어, 기우제를 지내는 데가. 그래서 왜 기우제를 지내느냐. 머리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낸다. 게고 당상봉은 제주도의 아버지 산이야. 아버지. 비록 산은 뭐 구십 몇 메다 밖에 안 되지만은. 저, 한라산 보다 높은 산이라는 뜻이지. 또, 또 뭐 물을 거 뭐.

101004 @ 굴 같은 건 없수광?

101004 #2 뭐, 일본 시대에 많이 봤지. 저, 저싱굴이라고 있어.

101004 @ 무슨 굴 마씨?

101004 #2 저승굴. 거.거. 당상봉 바로 밑에 가면 그 자연 굴인데 지금들도 가보지를 못해 봤어.

101005 @ 고산 1리랑 2리랑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전 어르신 어렸을 때는 어떤 마씨?

101005 #1 나가 있을 적에? 3리까지 있었주게.

101005 @ 고산 3리까지 있던마씨?

101005 #1 3리까지 있었는데 2리로 지와버렸주게.

101005 @ 리사무소 말고 다른 게 뭐 있던마씨?

101005 #1 그 땐 리사무소 외에는 딱 관공 같은 건 없었어.

101005 @ 요즘 관공서는 뭐 잇어마씨?

101005 #1 뭔가 환경면에서 복지회관 거기 놔 있고 또 리사무실 있고 또 그 외에는 학교. 그것 백엔 없어.

101005 @ 그럼, 그 고산에는 그 기관은 뭐뭐가 있나마씨? 뭐, 리사무소 리사무소는 몇 개 있수광? 두 개 있수광?

101005 #2 거, 두 개. 일 리, 이 리.

101005 @ 거 언제부터 일 리, 이 리 나뉘어진 거 마씨? 원래는 고산 하나 아니 마씨?

101005 #2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 행정적으로 이제 보통 이 리가 췌어. 이 리 사람들이 푹푹해, 등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일 리, 이 리 이제 갈라지는 건. 반으로 갈라졌주. 그거는 좀 오래됐어. 그래서, 오래. 가만있어보자. 몇 년쯤 됐을까. 그 전에는 고산리로 다 해냈어. 구장으로.

101006 @ 어르신 젊으셨을 때 계 같은 거 잇어마씨?

101006 #1 그 땐 어려와부난 그런 계 없었어. 요즘 간에 삶이 편안했지 박해 봤어. 그거는 중간에서 나왔주게. 계는 다느무시라는게 있었주. 그 동네서 모여가지고 돈 얼마씩 얼마씩 내가지고 계를 해가지고 돈을 키우는 거. 그것이 다느무씨라고 해냈주게. 난 안해서. 여자나 하지 남자는 잘 안 해서 그런 거.

101006 @ 그럼 고산에 여기 어르신, 그 어르신 젊으셨을 때 뭐 계 같은 것들도 있나마씨? 계. 모여가지고 . 모여가지고 계라고 하잖아요, 계나 접.

101006 #2 아, 그거 굉장히 많았지

101006 @ 옛날엔 뭐라고 했나마씨?

101006 #2 톨방제.

101006 @ 톨방제마씨?

101006 #2 톨방제가 제 일이었고, 톨방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연좌방아를 있는데 이걸 제로. 그러면 동네 사람이, 그 구역 사람이 이제 제를 해야만 그 돌을 다듬고 굴러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던지 그러면 쥐불도 짓고 서로 이제 해먹는 거라. 날짜도 표시하고 뭐 어느 날은 누구네가 어느 날은 누구.

101006 @ 그런 게 잇언마씨?

101006 #2 예. 톨방제가 있었고, 뭐, 이제. 두 번째 제가 염장제. 사람이 죽으면 그 염하던 모든 도구를 그 동네에서 딱 모아놔어. 게, 딱 동네사람들이 빌어가면 돈을 받아.

101007 @ 고산이나 한장동만의 풍습이 잇언마씨?

101007 #1 풍습 별로 없어났어. 한장에서는 큰 동네 따라 나가기 때문에 벨 풍습이라는 게 다른 건 없어.

101007 @ 고산 따라하는 건 뭐 뭐 잇어마씨?

101007 #1 고산 따라하는 건 고산서 지시나 내려오면은 동네 발전을 위해가지고 얘기 하고. 뭐 만드는 거나 나무나 심으는 거 그런거나 밖에. 농촌에 뭐 잇어야지.

101008 @ 특산물 같은 거 뭐 잇어마씨?

101008 #1 특산물이야 뭐 여기 마농하고 조, 놈들 하는 거 다하주게.

101008 @ 예전부터 그게 특산물이언마씨?

101008 #1 옛날부터 마늘도 특산물이라는게 요즘 나왔주게. 옛날 우리 그 때는 어렵게 살아노니깐 보리나 뭐가 콩이나 전부 소 소로 갈아가지고 했거든 그 때는. 소로 갈아가지고 농사를 지었주게.

101008 @ 그러면 고산 특산물은 아까 고구마마씨? 고산 감자?

101008 #2 감자 고구마였고, 근데 이제 그거 해서는 누가 안 사먹으니까 돈이 안 되잖아.

101008 @ 그러면 예전에는 감자, 고구마. 그럼 요즘에는 특산물 뭐뭐 잇어마씨?

101008 #2 이제 마늘, 양파. 브로콜리. 콜라던 뭐 전부 다 이제 들어가.

101009 @ 어르신, 이 마을 자랑거리 이시믄 얘기해줍서.

101009 #1 이 마을에? 이 마을에 자랑거리 없어. 굴은 한 몇 군데 잇어.

101009 @ 그래도 뭐 살기 좋다? 농사하기 편하다 뭐 그런건 없언마씨?

101009 #1 농사하기 편하지. 돌맹이가 어시니깐. 밭에 돌맹이가 없어. 농사는 하기 좋아.

101009 @ 그럼 어르신 고산 자랑거리 하나 있으면 좀, 고산 자랑을 해주시면 안될까마씨? 우리 고산은 이걸로 좋다.

101009 #2 글썸, 뭐. 자랑이란 것은 다 이제 자기 지역이 좋다. 자기 지역이 좋

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산은 특히 자랑거리라면 농사짓기 좋다. 농사를 대농으로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면이 좋고. 이제 앞으로 이제 비행장이 나와 버리면 끝이여. 이번에 결정되면, 거, 요번에 방송에 나왔어. 이 시, 신공항처럼.

101010 @ 수월봉이랑 당오름 얘기 좀 해줍서.

101010 #1 수월봉이랜도 허고 수월산이라고도 허고. 수월산이라고 한 거는 뭔가 수월이가 떨어져서 수월산이랜 하주게. 왜 수월산이라 했냐면 옛날에 아주 그 여자가 수월이라하는 여자가 있었다 말이여. 그 여자가 어머니가 아파서 죽게 되니 약초를 캐서 이제 수월산으로왕 켜는디 아흔아홉 개를 켜는디 백 개를 수월산에 와가지고 채우니깐 녹보라는 배가 있어. 배탕 내려가니깐 녹보를 내버려두고 수월이라고 하는 여자가 떨어져버렸어. 떨어져 죽어불고 녹보라는 것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수월이가 떨어지니까 물 알로 물이나주게. 쟁 수월이가 떨어져 죽으니깐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했주게.

2. 제보자 일생

102001 @ 태어나고 자란 이야기 해줍서.

102001 #1 태어나서 자란거? 자란 얘기야 무신 머 군에 갔다왕 농사 지은거 밖에 없어. 군에 가기 전에야.

102001 @ 어르신 그럼 몇 년도에 태어나셨마씨?

102001 #1 몇 년도 산지 33년생이니깐.

102001 @ 33년에 태어남 여기 살당, 군대는 어디 다녀왔마씨?

102001 #1 군대는 나는 육지 안나갔어. 모슬포 있었어.

102001 @ 젊으셨을 때 무슨 일 하셨마씨?

102001 #1 일본에 내가 43에 떠났주게. 여기서. 장어리랜 한 대가 있어 부산에. 금산으로 밀항을 타가지고 그 밤중에 밀항 타니깐 일본까지 가는 데 일주일인가 걸려서. 겐디 그건 무슨 배냐면 땡구리선이라서. 그게 몰래 싣곤 배라. 일주일 걸리는디 하루에 빵 하나. 일주일엔 걸리면서 동경으로 강 내려신디 거기서 외삼촌 있고 또 작은 처부도 있고 하니깐. 거기로 가서 있으면서 노가다 일 했지. 왜그러냐면 그 당시는 노가다일 해가지고 돈 벌어서 돌아올 수 있었주게. 노가다 일 해야 돈이 많이 나와서. 그거 쪽 하다가 한 7년 살아가지고 고산에 들어왔주게.

102001 @어르신 그러면 이번엔 고산말고, 어르신에 대해서 물어볼거거든마씨? 그러니까 어르신 그냥 간단하게 태어나고 자란 얘기 간략하게만 해줄 수 있실까마씨?

102001 #2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해줄고.

102001 @ 완전 간단한 거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여기서 뭐했다. 간단하게 일부분만.

102001 #2 여기서 태어난 거는 뭐 사사년생이니까 해방 전에 여기서 태어났고, 내가 자랑이라면 탄 데를 한번도 안 갔고, 고산에만 이제까지 살았던 것 뿐이고. 그러당보난 손주도 일곱 개고.

102002 @ 어르신 부모님은 무슨일 하셨마씨?

102002 #1 우리 아버지는 나 얼굴도 몰라 돌아가셔부난. 어머니는 개가행 가불고.

102002 @ 삼촌 어렸을 때 어머니랑 들이 사셨마씨?

102002 #1 아니. 나는 본래 학교 공부도 못한 사람이야. 왜그러냐면은 이 뭐냐면 남의 집 살림하러 다니지 았으냐 저 뭐가이. 소 맥이고 애기 들고. 그 때는 부자라야 밥 보리밥도 먹었거든.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밥도 못 먹어서. 등계영 혼 거 알아지나? 등계. 등계영 혼 거 보리 저난 그 가루. 가루 그걸로 범벅 같은 것도 해 먹고 죽도 쭈어 먹고 그랬거든. 보리 해 가지고 계역도 해 가지고. 계역이라는 거 알지? 계역해가지고 그것으로 주식으로 삼았주게. 그 때는 할머니랑 있었주게.

102002 @ 그럼 할머니는 그 때 무슨 일 하셨마씨?

102002 #1 할머니 일 하는 거야 밭매고. 밭에 검질매고 또 그자 나무 일도 허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주게.

102003 @ 어머니 고향도 고산이짱?

102003 #1 어머니 고향은 신도인 한디주게. 요 옆부락.

102004 @ 어렸을 때 놀이한 거 기억나는 거 잇어마씨?

102004 #1 그 때는 살기가 구박해나니깐 어려서 놀만한게 없었어. 어려서도 밥 먹영도 바쁘고 들에 나가서 일할라면은 놀이 뭐니 그런게 없어.

102004 @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는 뭐하셨는지 기억 안나마씨?

102004 #1 어렸을 때야 노는 거야 뭐 뻘히 아는거 뭐 태역밭에 가서 어린애들 그냥 뭔가 공만들어가지고 짚으로 공만들어가지고 놀고 뭐.

102005 @ 어르신 일제 시대 공출 같은 거 기억나는거 얘기해줍써.

102005 #1 그 때 공출은 그. 공출하는 거야 뭐 보리도 공출해나고 독새기 다 공출해냈주게 왜정시대니깐. 또 제일 뭐 한건 낫쇠, 낫사발 왜놈의새끼들 그냥 있는 거.

102005 @ 누가 공출했마씨?

102005 #1 동네서. 그 면에서 면장이 나와가지고.

102005 @ 공출하고 가는거 받마씨?

102005 #1 어, 그주게. 낫쇠영 하는건 집에서 그전에 제삿때나 낫그릇에 담아나 신디 그영 하니깐 낫그릇이 나타나지 못했어. 있는 건 다 감춰버렸지.

102006 @ 사삼 사건 때 기억 좀 나는 거 잇어마씨?

102006 #1 사삼 사건은 폭도 사건. 그 때야 뭐 기억나는거야 여기서 뭐야 고산에는 별로 뭐 큰 것은 없었지마는 폭도도 들어났주게 고산도.

102006 @ 기억나는 장면이나 이야기 없언마씨?

102006 #1 기억나는 거야 뭐 살 가져가고 사람들 죽여볼고 그거 밖에.

102006 @ 몇 살 때 그일이 잇언마씨?

102006 #1 그게 우리가 한 그건 나이가 열 서너살 때 꺼라.

102006 @ 사삼 사건 때 저기 동쪽은 많이 사람들 죽었잖아예. 그 때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여기는 걱정하거나 그런 거 잇언마씨?

102006 #1 뭐가 왜 걱정사 안해여. 저쪽들엔 이 폭도들이 많았주게. 폭도엔 했 주게. 폭도 알아져? 거 산에 살면서 우린 양민이고 거기는 폭도이고 우리 심어당 죽여볼고. 또 뭐가 때리고 뭐해났주게. 경찰관이영 싸움도 하고.

102006 @ 아, 그럼 사삼사건 이야기 해줄실 수 이시까마씨?

102006 #2 어떤 거 어떤 걸 이야기 해.

102006 @ 전반적으로 어떨 때는 어떻게 살았고, 뭐가 어려웠고.

102006 #2 일종의 사삼 사건이란 것은 정치적인 싸움이라 난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 당시 그 저 서북청년 단장이란 놈이 잇었거든. 이북에서 쫓겨난 놈들이야. 이북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쫓겨난 사람을 우리 자유당 정권에서 이 사람들을 여기 반란을, 이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진압하는데 한명씩을 차출. 배치시켰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야 사형권한을 준거야. 사형권한. 게 거, 우리 지역에는 사삼사건에 많이 안 죽었어. 왜 안 죽었느냐. 여기 지역 출신이 그 당시 한림 청년 회장이었고, 단장. 그리고 또 부단장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은 안 죽었는데 그 사람들 또 판 데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게, 그 당시 사삼이 뭐고 공산당이 뭐라는 거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걸 알고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 좀 덜 억울하지. 모르고 죽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 때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 개 우리도 사람 죽인다는 어릴 때 기억하는 거야. 곱아서 숨어서 어떻게 죽이냐면, 뭐 빵빵 하면 그냥 자빠지는 거야. 그냥 피가 쏘. 튀어나오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뭐 그런 사건은 다 두 번 다신 일어나서는 안 되고.

102007 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

102007 @ 결혼 하실 때 중매 결혼하셧마씨 연애 결혼하셧마씨?

102007 #1 중매.

102007 @ 몇 년도에 결혼 하셧마씨?

102007 #1 몰라 그 나가 28살에 결혼해시난 몇 년돈지.

102007 @ 중매 누구 통하셧마씨?

102007 #1 동네사람.

102007 @ 할머니도 고산사람마씨?

102007 #1 어. 여기 이 동네 사람.

102007 @ 결혼은 중매에 하셧마씨? 연애결혼 하셧마씨?

102007 #2 중매.

102007 @ 그럼 몇 년 도에 결혼 하셧마씨?

102007 #2 나. 육십 육십 팔년 십이월 삼십일날 된거야. 십이월 삼십날.

102008 @ 결혼 하실 때 사주도 보셨습니까?

102008 #1 사주? 사주도 봤주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나이로 해가지고.

102009 @ 결혼하셨을 때 혼수품이나 예물 같은 거 하셨습니까?

102009 #1 그 때 예물 같은 거 었던. 신랑이나 신부이나 예물 같은거 사다주는 건 없었주게. 원 어렵게 살아나니깐.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102010 #1 결혼식? 집에서. 여기서. 이거 초집이라났주게.

102010 @ 사진도 찍었습니까?

102010 #1 사진 찍은 거 있기가 있지만.

102010 @ 많이 찍었습니까?

102010 #1 많이 안찍어서. 사진 찍젠 하면 돈 든다게 무슨 한 몇 판.

102011 @ 결혼행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102011 #1 여기서 했주. 이 집에서.

102011 @그러면 신혼 결혼 하심 신혼 살림은 계속 고산에서?

102011 #2 그때 신혼살림이 살림이여? 그냥 집 없으면 명식으로 칸 막아서 자기도 하고 그래도 신혼이 좋긴 좋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이. 우리가 식생활을 해결 한 것이 약 칠십 이삼년도부터 해결됐어. 그래서 밥 세끼를 먹은 거라. 게난 우리가 밥 세끼를 못 먹어나니깐 이 사람이 인식이 배고파 난 사람은 돈 별 생각도 안나. 어떤 경우는 그냥 밥이나 배부르게 먹고 지금은 밥을 먹 어떻게 하면 돈을 벌꼬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아이들 좋은 옷 입히고 공부시키고 나도 편안히 할 건가. 이게 요즘 사람들 생각이고. 우리, 우리가 그때 생각은 어떠하면 아이들 배안 굶경 사는 거주게.

102012 @ 아이들은 몇 명있었습니까?

102012 #1 네이, 손지는 일곱인가. 사남매. 아들 둘 딸 둘. 둘 부산 살고 두 개는 충청도가 있고.

102012 @ 어떻게당 부산에 있었습니까?

102012 #1 거기 부산서 학교 땡겼주게. 대학교를. 부산서. 거기서 큰 딸이 발 붙여가지고 거기 살아가니깐 동생들 다 거기로 가가지고 고등학교는 여기서 마쳐가지고 글로 가서 대학교. 서울 건국대 큰 아들 건국대 나오고 또 딸은 어느 학교선지 대학교 나오고. 또 작은 아들은 금오공대 나오고. 작은 딸은 간호대 땡기당 수술하는 거 뺑 무섭던 행 떨어져볼고.

102014 @ 첫째 딸은 어떻게 시집가셨습니까?

102014 #1 이제 사는 거야. 부산서 살주게. 알양 시집가서. 나머지 결혼도 부산에서 해서. 할 때마다 부산에 올라갔주게.

102015 @ 며느리와 사위들은 다 뭐사시겠습니까?

102015 #1 며느리 사위들 저 부산 저 며느리는 그냥 직장에 있고, 또 큰아들은

합동회사여 한디 지점장으로 있고.

102015 @ 손주랑 손녀들은 몇 살이광?

102015 #1 지금 대학교 1학년 들어가 있고 금년도 대학교 1학년 들어갈 거고. 손자만 7명이여.

102016 @ 삼촌 살면서 힘들었던 일 있었으면 말해줍서.

102016 #1 힘든 거야 게 제대로 밥 같은 거 얻어먹지 못하고. 힘든 거야 놈의 눈치 보면서 밥 얻어 먹는 게 그게 힘들었지. 일하는 거는 벨로 그 때 뭐. 힘이 딸리지 않았으니깐.

102016 @ 그럼 언제 그렇게 눈치보고 밥 먹는 거 힘들었마씨?

102016 #1 눈치는 하여튼 뭔가 여덟살 일고여덟살 되어가지고 애기 보러 댕기나 소 맥이고 댕기나 해 가면은 열여덟꺼지는 남의 눈치 봐야했주게.

102016 @ 애기 보러도 다니셨마씨?

102016 #1 애기 보러 눅형 재와주고. 업어주고 울어가면 달래주고. 그 때 여덟살 때.

3. 밭일

103001 @ 밭일에는 뭐뭐 잇어마씨?

103001 #1 여기? 옛날에 콩, 보리, 나록, 산티, 고구마 또 감저 지실보고 감저영 햄쥬 그거.

103001 @ 어르신 그거 다 하셨마씨?

103001 #1 그거 다 하주게.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 맨 처음 지을 때 뭐 필요해마씨?

103002 #1 준비할 때 필요한거야 거름 지금 지금은 비료를 줘 가지고 하지만은 그 때는 통제라는 거 알아져? 돼지 집인디. 돼지 집인디 거 보리 막 담양 췌겨가지고. 것도 여러 가지인게. 글보리라고 해여. 그걸로 내 놔가지고 씨 섞여가지고 쇠로나 뭐나 막 불려 불려 가지고 씨를 불으게끔. 해서 이젠 덤췌다가 이제 저 그 댕구루마도 없었어 등짐으로 쇠도 싣고 사람을 시끄기도 하고, 해가지고 밭디가봐서 밭 갈아놓면 그 쇠로 행 밭 갈아놓면 고냥 드레 그 걸음을 놔. 놔 가지고 밭로 불는 데도 있고 또 쇠로 가운데만 글만 트는 데도 있고.

103003 @ 거름은 어떻게 준비해마씨? 보리밭 거름.

103003 #1 통제에서 난 걸로.

103003 @ 통제에서 난 걸로 어떻 거름을 만들어마씨?

103003 #1 그게 통제에서 일단 거름을 어디서 들어가냐면은. 소 질르거든. 소

질르면은 거기서 소 먹단 술테치여 소똥이영 그 소 맥인 대서는 썩지 않거든 그게. 그거가 통제에 담아놔. 담아놔서 도새기 고기 저 구정물도 먹고 하면은 그게 썩거든. 썩으면은 이제 나무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걸름 낸다고 허여. 통제 걸름 낸다고. 걸름 내가지고 마당에 짝 갈아놔가지고 보리씨를 빼여. 걸름 위에. 게 쇠로 나 이제 발려. 그거 저 붙으라고 거름에 붙으라고. 거름에 이제 뭔가 발려서 딱 문 딱 발려지면은 붙을 거 아녀? 게면 이제 그걸 대며. 이만큼허게. 대미면은 물 빠져 버리거든 알로. 그 다음엔 멥탱이 알아져? 멥탱이에 그걸 요만한 작은 멥탱이 그것에 담아서 이제 푹푹 발라서. 그 뎨 쇠로 양쪽에 하나씩 두 개 또 사람 하나지면 세 개. 경해가지고 밧에 그걸 가져가. 밧에 가서 이제 그 쪽 하게 널어놔 그걸. 여기도 한 망탱이 저기도 한 망탱이 널면은. 그 밧에 갈 거 얼마 들어가는 거 그건 이제 허영으네 그걸 이제 손으로 잠질게 이젠 여자들이 뿌려. 뿌리면은 남자들 소로 그걸 거름을 덮어줘. 경허는 게 그게 보리밧 거름이주게. 경행 보리 비어가지고 보리 나면은 비료가 없었거든 그 때는. 그냥 난 대로 크면은 요만큼 하면은 손으로 비어서 기계로 훑타. 훑타가지고 양식을 장만허여 그걸로.

103004 @ 보리는 언제 보통 갈아마씨?

103004 #1 10월, 음력 10월달. 소가 잠대 메어가지고 남자가 가주게. 잠대라는 거 모르지? 영 밧가는거 영 손 심영 옛날 밧가는 거 있어. 쇠 맥영 그것에 해가지고 쇠 고르친 쇠로 그걸로 가주.

103005 @ 보리씨도 뿌리지예?

103005 #1 보리씨 농사 하기 전에 그건 또 따로 허주게. 산파라고.

103005 @ 산파? 그게 뭐마씨?

103005 #1 그거는 소로 그냥 갈아놔가지고 그냥 위 씨 부려. 경행 걸음도 그냥 놓고. 거름도 이 돼지 통제 거름을 그냥 밧에다가 손으로 뿌리주게.

103006 @ 보리 종류는 뭐뭐가 있어마씨?

103006 #1 살보리, 맥주보리, 걸보리 세가지.

103006 @ 어르신도 세 가지 다 하션마씨?

103006 #1 어.

103006 @ 그럼 그 세 가지 차이가 뭐짱?

103006 #1 차이가, 이 살보리랜 흐는 거는 뭔가 거 겹테기 에우면 째이고 그니깐 살보리랜 흐 거고, 걸보리랜 흐는 거는 또 붙어 있고 저 그 꼭대기가 다섯 줄이라 그게. 줄로 영 올라간 게 걸보리고, 또 맥주보리랜 흐는 거는 두 줄만 올라간 거. 두 줄만 대 나오면 양 옆으로 그게 올라가는 게.

103007 @ 보리 뿌린 다음에 밧을 밟는데 그건 어떻 하는거짱?

103007 #1 사람으로. 그 때는 사람으로 밟아서.

103007 @ 무사 밟는거마씨?

103007 #1 그거 바람 불고 눈 묻으면 굳지 말라고.

103008 @ 보리밧 김매기는 몇 번 해마씨?

103008 #1 김매기? 한 번. 옛날에는 한 번 김매면 되여. 보리가 요만큼씩 올라 올 때면 매는거니깐 밧매며는 그 다음에 보리가 싹 올라오주게.

103009 @ 보리밭에는 검질들이 뭐뭐잇어마씨?

103009 #1 검질? 보리밭에는 보통 대우리라는 게 잇어. 보리밭은 거. 뭐 진풀 이런 것도 있고, 난쟁이 같은 것들도 있고. 뭐 풀은 여러가지지. 보통 많이 나는 게 진풀이고.

103010 @ 보리 수확은 어떻게마씨?

103010 #1 수확은 손으로 비어서. 옛날엔 손으로 호미로 비어서. 말려서 이제 묶어. 묶어 가지고 집에 들여와. 집에 들어가서 또 그걸 누벼. 누벼가지고 이제 날 좋은 날 봐가지고 홀트는 기계가 잇어. 그 다리 네 개 놔가지고 홀트어 낱. 그전에는 뭐 쇠로도 불리고 들로도 불리고 해신디 지금은 다 뭐가 이 기계로 해볼주.

103011 @ 지금 말양 옛날에 어르신 할 때 방식으로 굴아줍서.

103011 #1 보리를 집에 들여와. 집에 들여와 가지고 날 일기를 봐가지고 또 그걸 또 손으로 홀타. 홀타가지고 말이 있으면은 그걸 날 좋으면은 다 헤싸가지고 그때는 농사는 얼마 안되주게. 손으로만 해 놓으니깐. 그래가지고 도깨. 도깨라는거 알아져? 그걸로 해볼주게.

103012 @ 그렇게 해서 보리쌀은 어떻게 마련해마씨?

103012 #1 쌀은 이제 그거 하면은 불리거든. 불리면 보리나오거든 보리 나오면은 들방이라는 거 알아져? 들방이라고. 들로 돌령 뱅뱅 돌령 그 이만큼하면 들 있지않어? 그걸로 하면 뱅뱅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뱃겨지주게.

103012 @ 그럼 그 보리쌀 그렇게 들방 강 바로 나와마씨?

103012 #1 아니지. 그게 또 해가지고 또 저석으녕 또 그거 문딱 걸어내서 사람 손으로 쳐야돼. 채가 잇어. 요만한 채가. 대체. 또 불려. 불리면은 쌀 나와면은 그게 또 불려와 불려왕 항에 걸어놨다가 밥을 하게되면은 걸어내가지고 시쳐서 밥을 하주게.

103013 @ 밥말고 또 뭐 해먹어마씨?

103013 #1 미숫가루는 그냥 보리로. 보리로 볶아서 집에서 그래로 하고.

103014 @ 보리말양 나머지 것들로 뭐해마씨?

103014 #1 보리때 거름으로 하주게. 거름으로 저 돼지 잇는 통제 한대서 그래 그걸 들여놓고 소 잇는 집에는 소가 풀 먹어 나면 또 이 막 뭐 이상하게 싸주게. 쇠에서 발린 것을 통제에 담아놓면은 거기서 썩으면은 그게 거름이주게.

103015 @ 몇 살때부터 보리농사 헨마씨?

103015 #1 나니깐 돌아댁길 때부터 했주게. 밧에서 여덟 살만 되가면 돌아다녔주게.

103015 @ 보리농사 하명 크게 잘된 적은 어수광?

103015 #1 잘된 적이나마나 그 때도 이 자본주의는 살기가 편했고. 없는 사람은 만날 그자 남의 집 살이로 돌아다니는 게 사람 살아가는 근본이었주게. 농사 안 된

적도 뭐 좋은 거 없고 남의 집에서 살아서 나왔으니깐.

조 농사

103016 @ 조 농사 할 때 뭘 준비해야 되마씨?

103016 #1 조 농사는 벨로 준비하는게 없어. 조 농사는 손이 덜가. 그냥 밭에 저 뭐가 잡대로 예쁘게 갈아놔가지고 그냥 씨 뿌려가지고 쇠로 푼려볼거든.

103017 @ 조밭에 있는 거름은 어떻게 준비해마씨?

103017 #1 조밭에 거름 없었어.

103018 @ 그럼 조는 언제 갈아마씨?

103018 #1 그 때 6월 달에 갈아.

103018 @ 그럼 어떻게 갈아마씨?

103018 #1 가는거야게. 저 뭐가 쇠로 갈아놔그넹 그거 이제 씨 뿌려놔 쇠로 푼리고 또 쪼고 그러주게.

103019 @ 그럼 좁씨는 어뎡 뿌려마씨?

103019 #1 손으로. 보리랑 비슷해. 소 이시믄 소로 하고 계면 사람으로 밟고. 물로도 밟고. 그냥 물이시믄 물 두개랑 어울렁 묽렁 한 사람만 돌아댕기믄 이제 아에 가는거 때리믄서 돌아댕기주게. 물 모는 소리하믄. 물 모는 소리가 그 때 나온거라.

103020 @ 조밭도 밟아마씨?

103020 #1 조밭도 밟아줘야주게.

103021 @ 조밭은 김매기 몇 번 해마씨?

103021 #1 세 번 네 번 매야해. 거긴 왜그러믄 조 초를 뽑으면 다 못 뽑거든 이 간격을 두려믄. 두 세 번 뽑아야 그게 골고루 서주게. 씨가.

103022 @ 그럼 조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잇어마씨?

103022 #1 그 땐 제완제영 한거. 보통 제완제가 많이나. 그라지엔 하는 것도 있고. 보리는 겨울에만 나고 겨울에만 검질 나고 조는 여름에 했주게. 여름에 검질 나고.

103023 @ 조 수확은 어뎡해마씨?

103023 #1 조 수확? 조 수확은 비영 호미로 따. 이렇게 잡으면서 문딱 뜯어노면 것도 도깨질해야해.

103024 @ 타작은 도깨질로 하는거마씨?

103024 #1 으. 타작은 도깨질.

103025 @ 좁쌀은 어뎡 만들어마씨?

103025 #1 좁쌀? 그 때는 방에는 많치 아니지만은 방에 가야 채우주게. 물방 아 니고 그냥 저 이 그제도 물방이라는 있지 았어? 보리도 거기서 거죽 벗기고 조도 거기서 거죽 벗기고 경해.

103026 @ 좁쌀로는 뭐해마씨?

103026 #1 좁쌀로는 가정가믄 풀이 없거든 밥이 만들면은 가닥가닥 떨어져. 좁

쌀이랑 넣으면은 같이 풀이 붙어가지고 밥이 되주게.

103027 @ 남은 조짚으로 뭐 해마씨?

103027 #1 조짚으로는 소, 말 맥이주게. 그게 소하고 들은 그게 양식이라.

103028 @ 처음에 조 농사는 언제하선마씨?

103028 #1 그것도 나와보니까 조 농사를 하고 있대. 언제 처음인지는 모르고. 조 농사도 씨 뿌려서 나면은 이제 복삭 나면은 그거 이 부인들이 들어가서 뽑아서 사꾼다고 하거든? 그냥 키워가지고 해주게.

콩 농사

103029 @ 콩 농사도 하선마씨? 콩 농사는 뭐 준비해야 되마씨?

103029 #1 콩 농사는 벨루 준비할거 없어. 콩 씨만 준비하면은.

103030 @ 콩은 언제 갈아마씨?

103030 #1 콩은 6월달에. 조하고 콩하고 같이허는거니깐.

103031 @ 콩밭에는 거름 어떻게마씨?

103031 #1 콩밭에는 거름 없어.

103031 @ 보리 농사행 남은 거 다 거름되는거 아니마씨?

103031 #1 보리 해영 남은 거 거름? 그건 보리 하기가 바빠. 콩, 조 같은 거는 그렇게 거름을 탐내지 아니주게. 그건 거름 없어도 크니깐. 보리는 거름 어시든 안 되여.

103032 @ 콩씨는 어떻 뿌려마씨?

103032 #1 콩씨? 손으로. 똑같어.

103033 @ 콩밭은 김매기 몇 번 해마씨?

103033 #1 한 번. 두 번. 콩은 검질만 매는 거고 조는 그 이렇게 복삭 난데 있거든.

103034 @ 콩밭에서는 어떤 검질들이 잇어마씨?

103034 #1 콩밭에도 마찬가지로 제완제 같은거. 제완제가 제일 많이 나. 콩밭에나 여름 농사에는. 산디도 있고.

103035 @ 콩 수확은 어떻게 하선마씨?

103035 #1 콩 수확도 그것도 베여 나가지고 뭉텅 집에 가져가서 타작해야 돼.

103035 @ 콩으로는 타작하면 콩 나와마씨?

103035 #1 타작하면 경도깨질로 때리면은 콩은 콩대로, 콩대는 대대로 탁탁 털면서 내쳤다가 그것도 뭔가 풀을 때던지. 그 때는 뭔가 장작 같은 것도 별루 없었주게. 콩낭 쇠도 맥이고.

103036 @ 콩으로는 보통 뭐 하선마씨?

103036 #1 죽 쑤어먹주게. 메주도 허고 된장이 메주에서 나오는 거주게. 간장도 거서 나오고.

103037 @ 콩짚은 뭘로 쓰선마씨?

103037 #1 콩짚은 쇠도 맥이고 불도 때고.

103038 @ 콩 농사할 때 추억이나 경험 곱아줍서.

103038 #1 그런 거 벨 다를 게 엇언.

103038 @ 그럼 콩 농사 하면서 재미있던 경험들도 엇언마씨?

103038 #1 콩 농사도 별로 재미난 거 엇언. 왜그러냐면은 그냥 그 지금 보리밭에 콩 같거든? 콩 갈양 뿌리면은 콩이 나면 잘 익으면은 손으로 그걸 꺾어서 뭐가 장만하면은 그게 콩이 나오거든. 별 다른 거 없어.

밭벼 농사

103039 @ 밭벼 농사도 하셧마씨?

103039 #1 그 때는 밭벼 농사는 없었어. 논밖에. 논도 넷고랑 창이에 물 들어간 데만. 비왕 내 내리면 물이 밭에 좀 들어가주게. 들어가는데 그디가 논이주게.

103039 @ 밭벼 농사는 고산에서 안하셧마씨?

103039 #1 그 때는 안해서.

103039 @ 그럼 밭벼 농사는 언제하셧마씨?

103039 #1 그건 나온지가 얼마 오래지 않했어. 이거는 밭벼 나온지가 한 이십년 쯤 됐어.

103039 @ 어떡하다 밭벼 농사 시작하셧마씨?

103039 #1 초답은 거 넷물 옛날은 내라고 했거든 또랑을. 그 물을 그 논 데로 담아지면은 그걸 갈아서 이제 소나 째어서 골라나가지고 논을 편편히 맨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손으로 심었거든. 나록 미어봤다가 그걸 뺏아서 하나하나 심어주면은 그거 장성하거든 커. 크면은 그게 나록이 되는 거주게.

103040 @ 밭벼 농사는 어떻게마씨?

103040 #1 그건 수월허여. 그건 그냥 씨 뿌려가지고. 지금 기계가 나오니까 기계가 싹 들르면은 안하는거라. 그럼 나면은 그냥 검질이나 메러 땡기고. 그러지 뭐. 예전에 허는 거는 고구마.

103041 @ 밭벼 키울 때도 거름 쓰잖아예?

103041 #1 밭벼에는 거름 없어.

103041 @ 아무 것도 안 써마씨?

103041 #1 밭벼에는 거름 없어. 밭벼에는 거름 없고 나면은 크면은 밭에가 쓰러지면 안되거든 멜구가 많으니깐. 멜구약을 줄라면은 좀 골치아프니깐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주게. 막 크면은 이만큼 크면은.

103042 @ 밭벼씨는 어떻 뿌려마씨?

103042 #1 그냥 사람 손으로 뿌리주 이렇게.

103042 @ 기계 같은 거는 안쓰셧마씨?

103042 #1 기계 이제 현재는 기계지. 그 때는 기계가 없었주게. 뭐 기계 뿌리는 게 몇 년 안됐거든. 불과 한 칠, 팔년 되신가?

103043 @ 그럼 검질은 몇 번 매마씨?

103043 #1 세 번 매야 뱃벼라고 해주게.

103043 @ 그럼 언제 언제 세 번 매마씨?

103043 #1 나룩 커가지고 요만큼 한 때 혼 번. 또 요만이하면 두 번. 또 요만이 하면 굽영 땡기면서 매면은 그게 마지막이니까 막폴맨다고.

103044 @ 뱃벼뱃에는 검질들 뭐 잇어마씨?

103044 #1 뱃벼에 검질이야 안 나는 검질 없지. 나는 거 다나지.

103044 @ 그럼 어떤 것들 잇어마씨?

103044 #1 뭐 제완지 같은 거 보쿨 잡폴들. 나면 그거 부인들이 전부 매어.

103045 @ 뱃벼 수확하는 거 얘기해줍서.

103045 #1 수확하는거? 이 뭔가 이 나룩이 익을 거 아녀. 익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호미로 그 벼를 나룩 비거든. 비면은 이제 묶어서 묶어서 한 군데에 땡벼놔. 계면은 옛날은 일으경 저 쌀 흘트는 기계가 있었어. 밭 이리 돌고 이리 돌고 혼 게. 초담나올 때 그거 허여. 옛날부터 나온 게 그것에서 혼 사람은 앉아서 그거 떼어서 죄아주고 이렇게 이 한 줌 얼만큼 죄아주면은 또 거기 산 사람은 그걸 홀타. 그걸 홀튼다고 허여. 나룩 홀튼다고. 홀트면은 짝은 일로 내치고 또 자꾸 그걸 받으면서 나룩 홀타볼면은. 이제 문딱 하면은 이제 그것을 불려 혼 번. 불리면은 그거 나룩에 뭐 도깨질이나 뭐 할 건 없거든. 이런 쌀로만 이렇게 홀타진거니깐. 이 알맹이만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을 널어. 널면은 돼. 마당이라 하고든 이게. 옛날도 마당 현재도 마당이라 하지만 마당에 가빠나 멍석 그때는 가빠도 없었거든. 멍석에 널어서 돌려가지고 그걸 어디다 어디가서 쌀을 만드냐면 들방이라고 하거든 내 곶아꼴지? 방에 방에서 그것을 땡땡 돌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에 이제 짝어서 쌀이 나오거든.

103046 @ 뱃벼쌀로는 주로 뭐해서 드션마씨?

103046 #1 뱃벼쌀로? 쌀로 보통 큰 일 때는 부주. 이 결혼식 때. 결혼식 때나 또 이 저 영장난 때나 그거 보태서 씨라고 저 요만한 되로 두 되 어. 또 진죽은 한 말. 네 개가 한 말이거든. 으 네 개가 한 말이거든. 그걸 이젠 큰 일 치른 집들에 그걸 쥐. 나룩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잔치도 하고 영장도 하고 그러지.

103046 @ 밥이나 떡도 해먹지예?

103046 #1 어 떡도 해 먹고. 밥도 해먹어. 그때는 옛날은 그게 하도 귀한 쌀이거든. 쌀이라는데 곤밥 곤밥 한단말이여. 옛날은 곤밥. 곤밥인디 곤밥먹젠 하면은 힘들어. 일년에 두번 밖에 멍질 때. 팔월 멍질하고 정월 멍질하고 두 번. 또 제사나 이시든 제사나 한 두번 할 때 그때나 밖에 쌀밥을 못 얻어 먹어.

103047 @ 뱃벼떡 남으면 그걸로는 뭐해마씨?

103047 #1 그거는? 그걸로는 소도 먹이고 소 이 썰어가지고 작두로 썰어가지고 이제 이 보리저난 등개ㄹ루 그런 거 있으면은 섞여가지고.

103047 @ 등개가루가 뭐짱?

103047 #1 보리 찍으면 보리 이제 방에 찍을 거 아니냐. 찍으면 그 거기서 나루 나오지 않느냐. 껍데기 벗겨지믄. 그거 섞어가지고 주는게 그게 소의 주식이라.

103048 @ 삼춘도 밧벼 농사 하셨지예?

103048 #1 밧벼도 하고 논벼도 하고. 한다는 거 놈 한다는 거 다 해봐서.

103048 @ 그럼 밧벼랑 논벼 할 때 다른거 잇어마씨?

103048 #1 밧벼야 논벼는 하기가 좀 힘들지 논벼는. 그게 사람 손으로 일일이 심으니깐. 밧벼는 씨만 뿌려가지고 기계로 한 번 째 참 그때는 뭔가 소로라도 같았다가 불리면은 마는 거지만은. 게 아니면은 논에서는 힘들었어.

고구마 농사

103049 @ 고구마 농사에는 뭐 필요해마씨?

103049 #1 고구마 농사 준비하는 게 종자. 종자가 많이 썩어볼주게 놔두면은.

103050 @ 고구마는 언제 갈아마씨?

103050 #1 저 심는 게? 것도 보리 끝나면 심으니깐.

103051 @ 고구마도 거름 없언마씨?

103051 #1 없어 것도. 이제는 저 비료 같은 거 줘도.

103052 @ 고구마는 어떻 심어마씨?

103052 #1 그냥 이렇게 갈아놔가지고. 고지라는 게 있어. 그냥 손으로 꼭 꼭 찢러서 심주게.

103052 @ 한 고지에 몇 개 심어마씨?

103052 #1 한 고지에 몇 개 심는지 그거 알아져?

103053 @ 고구마밭에서는 김매기 몇 번 해마씨?

103053 #1 고구마밭에는 김매기 벨루 없어. 왜그러냐면 추위 나가지고 더꺼져 버리니깐 풀이 경 안나주게.

103054 @ 검질들도 별로 나는거 없어?

103054 #1 검질들도 별로 없어. 남아 있는 게 제완지. 남아 있는 거 벌레라고 허주게. 고구마 심어가지고 저 갈면은 틈에 풀이 그냥 아니 묻어진게 잇어. 갈아도. 그게 벌레라고 하주게. 그거 고구마 심어놔그넝 이만큼씩 크면은 돌아다니면서 메주게.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해마씨?

103055 #1 수확할 때는 쇠로 갈아서. 쇠로 이렇게 갈면은 가운데로 이젠 그 고구마 주어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절간 만들 사람은 절간 만들고. 또 종자로 놔둘 사람은 종자로 놔두고. 그 때는 뭐냐면은 주식이 고구마거든. 이만큼 통 파가지고 그 속에 묻어 두었다가 겨울 되면은 그 것을 뽑아다가 삶아도 먹고 그러주게.

103056 @ 고구마는 수확행 보관은 어떻해마씨?

103056 #1 보관은 농협으로 들어가주게. 옛날에는 뭔가 없었어.

103056 @ 감젓눌 없어수광?

103056 #1 감젓놀이란 게 밧에서 해오면 밧에 이만큼 파. 그래 감저를 짚어 넣으면은 옆으로 짚 같은거나 조짚으로 세워서 이만큼 올라오면 흙 씨와. 뭔가 겨울에 들면 먹을라고.

103057 @ 절간고구마는 뭐마씨?

103057 #1 제주시에 주정공장 있지 않아? 술 만들주게. 그걸 저 기계 날 두 개 돌은 걸로 그걸로 손으로 돌르면서 썰명 몰려. 몰려가지고 거 키로에 얼마 해가지고 팔주게.

103058 @ 고구마 줄기는 뒤에 이용해마씨?

103058 #1 소. 쉼 맥였어. 그게 꼭 짝 말리면은 전부다 묶으며. 묶어가지고 이제 겨울 때 쉼 맥일려고 이제 뭔가 자꾸 쉼나 사람이나 한가지만 먹으면은 입맛이 떨어질 잘 안먹거든. 여러 가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니깐. 소 맥이는 것도 조찍, 새꿀, 감젓줄, 콩고질 네 가지를 서퍼놔야 쉼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허거든.

103059 @ 고구마 농사하면서 재미있던 일 잇언마씨?

103059 #1 농사 하는 거야 벨 다르게 잇어?

103059 @ 그럼 좀 특이한 거는 잇언마씨?

103059 #1 특이한 거야 저 고구마도 저기 외국서 들어왔지 종자가. 게고 모든 종자들이 여기선 없었어 종자들이 옛날은. 다 나록도 다 어디 육지 근방으로 어디 외국서 들어와가지고 하고. 그랬주게.

103059 @ 그럼 고구마 농사했었을 때 기억나는 거 어수광?

103059#1 고구마 농사 할 때야 기억나는 거야 뭐 별다른 게 있나. 고구마 그 때 옛날도 썰어가지고 그 때 기계가 손으로 이렇게 돌르는 기계가 나왔지. 썰어가지고 밧에 넣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거 주으로 돌아다녔주.

기타 농사

103060 @ 수박이나 참외 농사도 하션마씨?

103060 #1 수박은 없었고 참외는 있었어.

103061 @ 그럼 참외는 어떻게 하션마씨?

103061 #1 참외? 큰밧에 밧 갈면은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 손으로 해서. 툼툼이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쫄러. 쫄르면 그게 나면은 참외가 되주게.

103062 @ 고추 농사도 하션마씨?

103062 #1 이 동네는 고추 농사는 못해서.

103063 @ 배추 농사는 안하션마씨?

103063 #1 배추 농사도 못해여게. 그냥 배춧 농사 해봤자 이녁냥으로 먹을 거 갈양. 풀 걸로는 안되여게. 한 쪽 들에 남은 씨 뿌려서 그거 크면은 뽑아다 먹주게.

103064 @ 무 농사는 하션마씨?

103064 #1 그 때 무농사 해봤자 먹을 건 했주. 이녁 집에서 먹을 것만. 돈이 안

되니깐 그건.

103065 @ 지실 농사는 어떻게마씨?

103065 #1 지실 농사 그 전에는 비닐을 못 씌웠어. 지금은 비닐루 씌우고 있주게. 비닐 씌우면 수확도 많이 나고, 검질도 아니 나고. 경허면 일년에 두 번해서.

103066 @ 피 농사나 메밀을 하션마씨?

103066 #1 메밀도 요즘에 시작해서. 한 3년 됐구나. 메밀 농사나 조 농사도 마찬가지. 그냥 씨 뿌려가지고 그건 검질도 멜 것 없고.

103067 @ 메밀 농사도 하셨지예?

103067 #1 메밀 농사는 지금은 하지만은 옛날 메밀 농사 여기 잘 안했어.

103068 @ 담배 농사는 안하션마씨?

103068 #1 담배 안해서.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소는 어떻 기르맨마씨?

104001 #1 겨울에는 소막이라는 게 있어. 집에 하나씩은. 겨울에는 들여 매고. 들여 매가지고 조짚, 감жат줄 같은 걸로 이제 그 소 들 주식이 되는 거주게. 그리고 여름 때는 그냥 어디 빈 방에서 심어두기도 하고.

104002 @ 소 종류 아시는거 있어마씨?

104002 #1 소 종류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소 색깔이라 하는 거는 저 무신 색은 안나서. 거 나도 잊어버렸다 하나. 색깔은 흰색깔은 없었어. 까만색 노란색. 나는 노란 쇠를 많이 가져있었주게.

104003 @ 소는 뭐에 이용해마씨?

104003 #1 밭 가는데게. 그게 기계라 소가.

104004 @ 소는 어떻 길들여마씨?

104004 #1 쇠쇠거리 친다고 해가지고 목을 메와가지고 돌멩이 이만한 거 그르치는 거 있어. 돌멩이 고양이 뚫라진 거. 그 속에 메워가지고 이 밭으로 이런 대로 돌멩 돌아댱겨. 돌아 돌아댱기명 내중은 또 밭에 들어가가지고 밭고랑 내는 식으로 이젠 그 밭고지를 돌아댱기주게.

104004 @ 밭고지라고 해마씨?

104004 #1 여기서 밭고지라고 해여. 그걸 만드는 식으로 쇠를 가르치주게. 이추록 해서 너가 일해야 된다해가지고 가르치주게. 그게 우리 농촌의 기계주게.

104005 @ 소도 딱 보면 나이가 보여마씨?

104005 #1 나이는 이빨로 허여. 이빨로 혼 살 두 살짜리는 이빨 두 개밖에 없어.

104005 @ 그럼 세 살 네 살때부터는 막 많이잇어마씨?

104005 #1 그렇지. 한 해 지날수록 지나가지.

104005 @ 그럼 소는 몇년살아마씨?

104005 #1 잡아먹지 않으면은 오래살지. 잡아먹어불면 오래 못 사는거지.

104006 @ 쟁기 어떻 생견마씨?

104006 #1 쟁기 좀 일찍도 킬아신디 무클, 성에 그게 있주게 두 가지. 가운데 거는 또 잊어버렸다. 가운데 영 하나 세우는 거. 잠대를 만들어서 이제 메우면 포섭이라는 거 있어 영 된거. 벧 벧은 한 쪽 들어 넘어가야만이 밧고지가 되니까. 벧에 해영 그게 메워가지고 쇠에 메우면 그게 기계라.

104007 @ 삼춘 질메 얘기해줍써?

104007 #1 질메? 지금은 쇠로 허는디 옛날에 나무로 나무 네모나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대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두 개를 만들영 이디 그 가로 쇠를 나무로 박주게. 박으면 그 위에 쇠가 요만이 넓은 거. 일루도 하나 일루도 하나 행 그 때 오그리주게. 달구지랜 하지. 그것 썩와그냉 만들주게.

104008 @ 멩에는 알아지쿠과?

104008 #1 쉼 멩에라는 거 있어. 이디 영 해가지고 줄 이렇게 맨 거. 소에 영 맨들어가지고 소에 영 맨들어가지고 소에 영 썩와. 즈깨라는 거 있어. 즈깨라는 게 영 널어오면 노로 감양 딱 묶어. 뒤에서 잠대 메왕 그게 기계라. 그게 쉼에나 들에 나 쓰는 거라.

104009 @ 쉼막은 어떻 관리해마씨?

104009 #1 쉼막은 우리 저기 쉼막이신디. 뭇가 창고 같지만. 그디 쉼 들어가게 이만큼 하게 쉼 가서 눕고 앉고 출 먹고 하게 만드는디 어느 집을 막론하고 흐나 썩은 있어.

104009 @ 아침마다 청소해주션마씨?

104009 #1 청소 안해줘. 청소 쪽 안해줘서. 거름이 그 먹은 것이 이만큼 올라가야 소가 좀 못견디는 줄 알면 그걸 밖으로 끄집어 내영 또 그걸 드야지 지르는 통제로 담아놔. 담아놔서 거기서 거름 내놔가지고 보리씨를 거기다 뿌려가지고 쉼로 볶아.

104010 @ 소는 지금까지 몇 마리 키워마씨?

104010 #1 소 키운거야 뭇 암소도 키워보고 새끼도 나와봤지만, 여기는 새끼를 많이 못 내우주게. 왜그러냐하면 돌밭이 아니니깐. 돌이 없어가지고 나갔다면 늪의 밧을 다 볶아버린다고.

104010 @ 그럼 보통 옛날에는 몇 마리 키워마씨?

104010 #1 소는 여기는 농촌에는 저 옷드리 근방 가면은 소를 새끼내고 새끼내서 여러마리 키우지만은 우리 고산에서는 소 방목허영 가들 데가 없어. 가들 데가 없으니까 쉼 하나에 사람 하나. 그래서 맥이면서 그게 크면 이젠 쉼 가르친단 말이야. 밧 갈젠. 밧 갈젠 가르치면 멩에영 혼 거 알지? 멩에 썩어서 이제 돌 끄트머르

돌아매가지고 한참 막 그게 소 만들려고. 자꾸 운동시킨단 말이여. 운동시경 그게 끝나면은 이제 이만하면 되겠다하면 끝나면은 잠대를 메운단 말이여. 잠대이? 잠대 메면은 남자는 뒤에 양주머리 심엉 밧을 갈고 여자는 소를 그 발로 구짝 행 이끌어 줘야 되여. 이끌어주면은 췌가 막 익으면은 그때는 사람 없어도 밧을 갈아. 그때까지는 사람 있어서 췌 뭐 할 때까지는 두 사람이 데려가.

104010 @ 그럼 소는 밧 가는데 말양 판 데는 어디다 이용해마씨?

104010 #1 구루마질. 지금은 뭐 경운기니 뭐니 했주만은. 그때는 구루마질 할 때도 부젓칩이나밖에 없어. 게고 그 췌 우에 또 질메란게 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췌 우에 탁 놓는 거. 양쪽에 찍으로 파서 베가 있었거든. 양쪽에 열일곱바씩 튼단 말이여. 한 쪽에 하나씩. 그걸로 이제 이렇게 놓고서 췌이 시켜. 뭐 나룩이나 뭐나 시켜가지고 췌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 뭐 하는 거주게.

말 기르기

104011 @ 말도 키워보션마씨?

104011 #1 말은 췌랑 마찬가지로 밤낮 바깥에 줄이라는 거 있어 베. 그걸 말목 해가지고 빈밧에나 어디 띄밧에나.

104012 @ 말 종류는 알아지쿠과?

104012 #1 말 종류는 몰라.

104013 @ 말은 언제 어떻게 이용해마씨?

104013 #1 말 밧흙을 때나 이용허여. 곡식 해가지고 조 할 때 밧일 할 때. 흙으면서 돌아댕기주게.

104014 @ 소는 이빨보고 나이 알고 말은 나이 어떻 알아마씨?

104014 #1 들은 잘 안길르니깐 캄캄해여.

떡이

104016 @ 말이나 소는 떡이 뭐 잇어마씨?

104016 #1 조짚, 또 고구마 댕가리, 콩나물.

104016 @ 고구마 댕가리가 뭐팡?

104016 #1 고구마 심으면 그 줄 나지 않나. 그걸 말려와가지고 요만씩 해가지고 뉘어. 그 때는 놀이라고 하지. 하나씩 빵면서 줘.

104017 @ 풀은 어떻 마련해마씨?

104017 #1 풀은 모르켜.

104017 @ 그럼 말이나 소한테 먹이는 거 뭐라고 해마씨?

104017 #1 소출게. 풀이 아니고 출.

104017 @ 말이나 소나 그럼 똑같은 거 먹여마씨?

104017 #1 똑같주게. 똑같이 출 맥이주게.

104017 @ 그럼 출은 어떻 마련해마씨?

104017 #1 저 출밭이라는 게 있주게. 이 수월봉이헌 데 거기 가면 출밭이라는 게 있어. 그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팔월 바람 두세가 터지면은 음력 팔월 두세 터지면은 두세영 헌 게 하늬바람. 하늬바람 터지면은 하늬바람 불면은 노복 빌어가지고 뭐 너이고 다섯이고 많은 사람은 한 일고 여덟씩 빌어서 허지. 게가지고 출을 베어서 물려서 물려가지고 그걸 일단 묶어가지고 들어올리면 그거 소출. 또 다음은 이제 고구마 팔 거 아니냐? 감자 파면은 감자줄 물려서 묶으면은 그거 소출. 또 콩도 장만해놓으면 늘면 그건 빠 맥이는거니깐. 그냥 늘어서 글갱이로 빠져 소 맥이고 그러니까 그거 소출이주게. 찌도 소 맥이고. 산디라는 게 있어. 나록 닦은 거. 그거도 소출도 들어가.

104018 @ 출 베가지고 모은 다음에 가져오잖아예? 그럼 출 베기는 어떻게마씨?

104018 #1 이제 출 벨 때주게. 지금 칠 팔월에. 팔월에 출을 지금 낫이란 해주마는 그 땐 호미주게 호미. 호미로 이제 그 밭에강 앞아가지고 조근조근 비어서 이래 놓으면은 그거 모르거든. 몰르면은 그 무생이로. 무생이영 하는 거는 출 묶으는 거. 그거 새로 태와서 만들어가지고 출을 묶으주게. 묶영 모다서 쇠 있는 사람은 쇠로 가져오고 경 아니문 등짐으로 가져오주게.

104019 @ 출 많이 이시몬 그거 어떻 움직여마씨?

104019 #1 내 얘기하지 않으나. 움직이는 게. 사람 져서 움직이지만은 여기는 쉼로는 못 가져 오거든.

104019 @ 못 가져와마씨?

104019 #1 이렇게 되노니깐. 쉼로 가젠 하면은 절로 돌아야돼. 게서 질메라고 했지? 양쪽에 시꺼 소 우에. 소 우에 시꺼서 뱅 돌아가지고 일로 가져오주게.

104019 @ 가지고 온 다음에 어디다가 어떻 저장해마씨?

104019 #1 여기 저기 늘굽이라는 게 있어. 보리도 늘고 아무거나라도 늘르는 짚이 있어. 누는게 있으면은 노랑지 덮으면은 비오면 안 젖거든.

104019 @ 그럼 얼마나 저장할 수 있어마씨?

104019 #1 저장하는 거는 한도가 없지. 많으면은 많게 만들고 족으면은 족게 만들고.

104020 @ 여물은 어떻 마련해마씨?

104020 #1 소여물이야 그 뭔가 소 일나가려면 작두라는 것이 있어. 그걸로 썰어. 보리 해가지고 삶아. 큰 가마솥에다가. 삶아가지고 식혀가지고 뜨거운 건 못 먹으니깐. 그걸 맥여서 일하러 가주게.

104021 @ 출 벨 때 힘든 일이나 기억나는 일 있어마씨?

104021 #1 힘든 거 뭐 그거 벨다른 거 기억나는 거 없어.

멜감

104022 @ 멜감도 하션마씨?

104022 #1 밭에가가지고 소나무 밭에가가지고 소쩍이라는 게 있어. 소나무에 불

은 거 있어. 뽕감 종류는 소나무. 그거 하나. 여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104023 @ 소똥이나 말똥으로 안하션마씨?

104023 #1 그건 안해서. 그건 우리 세대에는 소똥으로 불 때거나 말똥으로 불 때거나 안해서. 그 때는 굴묵이라하여 집에 굴묵. 게서 거기다가 저 방 뜨시라고 소똥 말똥 돌려 봤다가 써서.

104024 @ 삼춘 솔가리 걸기 들어봐수광?

104024 #1 그건 안들어봤져.

104024 @ 그럼 옛날 뽕감으로 소나무 가지 쓰션지예? 그거 골아줍서.

104024 #1 삭다리영도 하고. 나무에서 죽은 게. 죽어가면 사람이 손으로 강 영 꺾어오면은 그게 삭다리여 삭았다고 삭다리. 뽕감이라고 그게.

104024 @ 그럼 그건 언제하션마씨?

104024 #1 그건 언제나 있지. 나무 이신데 가면은. 나무가 춘하추동 그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거는 소나무는 죽는건 밑으로 가고 있는 거니깐.

104025 @ 나무도 하션마씨?

104025 #1 나무도 해주게.

104026 @ 숯도 구원마씨?

104026 #1 여기선 그런 거 안한다.

104027 @ 뽕감은 어떻 마련햐마씨?

104027 #1 그 여러 가지지. 나무가 저 즙진디 톱 가져가서 그거 싸서 도박도박 끊어가지고 가져오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나대 나다라는 거 있어. 나대로 찍어가지고 그 가쟁이 묶어서 뽕감으로 가져오는 수도 있고.

사냥

104028 @ 사냥은 해보션마씨?

104028 #1 여기서 사냥은 안해서.

104028 @ 그럼 고산에서는 사냥 안햐마씨?

104028 # 고산에서는 사냥 별로 없어.

5. 바다일

105001 @ 바다에서 하는 건 어떻게 있어마씨 고산서?

105001 #1 고산서? 바다에 나는 건 거의 없다. 고기 종내기도 다 같고. 뭐 별로 그거는 뭐 없어.

105001 @ 주로 잡히는 생선은 뭐 있어마씨?

105001 #1 가에서 춤대로 낚으는 건 별거 없어. 우럭, 발락, 어렁이, 고쟁이 그런 것들 잡았주. 낚시로 낚았주게.

105002 @ 등복, 감태도 채취했마씨?

105002 #1 감태 같은 거 등복 같은 거 다 개인이 허여. 해녀 있는 데는 감태도 하기가 쉽고. 해녀 없는 데는 가뒤 두었다가 해경 하면 비여다가 하고. 물려왕 그거 거름도 허고.

105003 @ 고동과 계도 잡안마씨?

105003 #1 고동도 이 아래에 있어 잡주게. 계는 큰계는 없어 쟁쟁한 것 밖에는.

105003 @ 고동이랑 갱이는 그럼 어디서 잡안마씨?

105003 #1 갱이는 이 가에서 가에서 돌 일러서 그 돌 속에서 겨울에는 항상 돌 속에서 살주게. 갱이가. 또 고동이영 혼 거는 겨울에는 깊은 디 내려가고 또 물 뜨사 가면 날이 뜨사 가면 옷에 올라오고 경허주게. 손으로 잡주게.

105004 @ 고동 종류는 뭐 잇어마씨?

105004 #1 구쟁기 그거주.

105005 @ 계도 종류가 잇어마씨?

105005 #1 계도 식킹이니 모살킹이니 잇주게.

105006 @ 햇불 이용행 뭐 물고기 잡아본 적 잇수광?

105006 #1 기름을 요만한 그 뭔가 파이프 잇잖아. 고냥 이신거. 알로 막아진 거 막아달라고 하면 막아주매. 막아지면 거기에 기름을 비와. 기름을 비왕 그 형겘으로 캅아. 요만큼 캅앙. 거기에 찢러. 찢러 기름 영 생기면 그 형겘에 불을 붙여가지고. 안잡는 거 없어. 소라도 잡고 해삼도 잡고 문어도 잡고 또 저 이 뭐 낚지.

105006 @ 그걸로 어떻 잡아마씨?

105006 #1 불만 비취가지고 밤에는 그것이 다 나오게 돼 잇어. 뭐 햄직하면 작살질 허여. 소살로.

105007 @ 갯담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 잡아마씨?

105007 #1 그거는 밖에 돌담 이렇게 잇주게. 물로 이만큼 올라오주게. 그 위로 멜. 멜 들어오면은 여기서 족바지라는 게 잇어. 한 쪽에다 몰아다가 걸어가지고 바구니에 넣주게. 큰 고기는 안 들어와.

105008 @ 무너지면 보수는 어떻해마씨?

105008 #1 사람 손으로. 파도가 썩나면은 돌이 밀어지주게. 밀어지면 그걸 사람 손으로 가져다가 고기 들어오면 거기서 잡아 먹주게.

105009 @ 멜은 어떻 잡아마씨?

105009 #1 족바지로 잡주게. 물이 있는데 있고 아난데 잇거든. 게면 물이 막 깊은 쪽으로 몰아가는 거라. 또 멜 들어오는데는 좁고 나가는데도 좁고 하니깐 막주게. 그럼 들어와.

105010 @ 물고기는 어떻 낚아마씨?

105010 #1 여기서 가로? 가로는 춤대라고 허여. 춤대에 그 뭔가 알이란 것을 묶으주게. 밑에 또 뽕돌이라는 거 돌아매가지고 낚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갯지렁이 꿰가지고 낚으면 여러가지 물주게.

105011 @ 뽕돌말양 낚싯대는 뭐라고 해마씨?

105011 #1 춤대. 줄은 낚싯줄이랜 허고.

105011 @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마씨?

105011 #1 그거는 줄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뽕돌 알아져? 뽕돌 고양이 두 개거든? 하나는 줄에 묶으고 하나는 낚시 묶어가지고 가운데만이 한 번 묶어. 이제 고양이 또 묶영 허주게. 대나무로 만들주게. 뽕돌은 옛날에 왜정 시대에 뭐 해놓으니까 연철 나오거든 연철로 만들주게. 쇠망치로 때려서 납작하면 그걸 몰아. 몰면 예쁘게 나와.

105012 @ 작살은 뭐랜해마씨?

105012 #1 작살은 소살. 그냥 물에 가서 잡는 거 있고 낚아서 잡는 거 있어. 독성 있는 고기가 있어. 영 위에서 보면은. 그게 위험하면 작살로 사용하주게. 손으로 못잡을 정도되면 작살을 사용허여.

105013 @ 고깃배 종류 뭐뭐 있수광?

105013 #1 낚배, 또 테우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 이 부락에는. 딴 데도 옛날에 전부 낚배였주게 노 젓는 거. 머구리배도 있어.

105013 @ 낚배는 어떻게 조정해마씨?

105013 #1 낚배는 그 배 위에 코걸이라는 게 있어. 그 때는 짚으로 꼬아서 했거든. 거기에 배를 끼와. 낚배는 이렇게 젓고 물 썰게 땡기면은 이래 가고 앞에가 바다 쪽으로 가게 되고, 영 땡기면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허주게.

105014 @ 잠녀들이 잡는 해산물 종류가 뭐 있어마씨?

105014 #1 거기 있는 거? 다 있어. 전복, 소라, 문어, 구살, 뭐 그런 거 다 있어.

105015 @ 잠녀들 물질하러 갈 대 도구 뭐뭐 챙겨가마씨?

105015 #1 요만이 한 두렁박. 두렁박 하나하고이. 또 요렇게 나무로 오그라진 그것에 저 구물 망사를 만들어. 망사를 맨들영 그것 하고, 지금은 물웃을 입고 하지마는 옛날엔 속곳이엔 헌 거 있어. 속곳을 한 쪽에만 이 뭔가 이까지 저 달마귀 달마귀 모양 그 땡 단추도 없었어. 험벽으로 ㄴ늘게 해가지고 막 꼬메가지고 단단하게 행 그것도 만드는 식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 뭔가 단추 해가지고 메가지고 그거 입고 바다에 들어가서.

105015 @ 켈 때 쓰는 거 뭐 안 가져가마씨?

105015 #1 무사 안 가져가. 비창. 그거 하나. 그거 하나만 가져갈 때도 있고 물속에 들어가 빠가지고 그거 하나로 안 될거면 올라와서 그 호미나 굴갱이나.

105016 @ 잠녀들 예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골아줍서.

105016 #1 달라진 거? 달라진 거야 봤자 물건 잡는 것들 달라진 거 골아줘? 해녀들이란 게 옛날은 속곳이영 한 거 있어. 속곳만 입고 물적삼이란 거 허연 거 입고. 텔레비에도 나왔주만은 음식은 마찬가지로. 잡는 거는 뭐 벨다른 거 없거든 전복, 구제기 또 성게, 해삼 난다고 하는 것은 다 잡아 놓지.

105016 @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예전에는 젊은 사람도 잇언마

씨?

105016 #1 예전에는 뭔가 우리 커 올 때는 젊은 애들 많았주게. 많았는디 이제는 천하다고 안하려고 하여.

105017 @ 지금 물질할 때 옷이랑 예전 옷이랑 어떻 달라마씨?

105017 #1 옛날은 흰 물젖살이라고 있어. 아래 이 속곳이라 흰 거는 전부 검은 거 입어. 해녀들이. 검은 거 입으면 물 옷 위로 메게끔 돼있주게. 게고 현재는 그냥 이 팬티만 입고 얇은 내의 하나만 입어가지고 그냥 고무 고무 입주게. 현재는. 도구 하고 낚쟁이는 요만한 망사리 위에 그 접지르는 데가 있어. 영 해가지고 도구를 거기 놓는 디가. 테왁 위에다가 놓는 것이 돌아매는 사람은 돌아매고 또 옆 찌르는 사람은 찢르고. 거기 뭐 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그라진 쇠로 만든 거. 요만한 거 거기 하나 들어가 있고. 까꾸리 또 비창이랜 흰 거 그 두 개. 그거 가면서 물 아래 내려가 보면서 사용할 수 없는 거는 무엇을 가져가서 사용해지겠다 하면 그걸 가져가서 들어가주게.

105017 @ 지금은 검은색 옷 하나여신디 옛날엔 밑에만 검정색으로 위에는 흰색이언마씨?

105017 #1 하얀색은 지금은 고무옷인디 옛날엔 전부 미녕. 미녕 알지? 우에는 희얌게 만든 걸로 입고 밑에는 또 검은색 옷이라. 우에는 물적삼 아랫 것은 속곳. 팬티보고 이젠 팬티랜 허지? 옛날엔 그게 속곳이라 해서.

105018 @ 툷은 개인이 해마씨? 아님 단체로 강 채취해마씨?

105018 #1 그건 단체로하여. 단체로 호미가져가서 물이 올라올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거든. 서물, 너물날은 안내려가는데 여섯 일곱물날 되가면은 그 바짝 물 내려 불어. 내려불면 그 때는 전부 단체적으로 내려가 가지고 툷 베어가지고 비는 사람은 비고 지어서 올리는 사람은 지어서 올리고.

105018 @ 툷은 뭘로 캐마씨?

105018 #1 호미로.

105018 @ 어르신도 해본마씨?

105018 #1 해보주게. 해봤주게.

105018 @ 단체로 하면 몇 명이나 가마씨?

105018 #1 그 부락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작은 부락이니깐 20~30명. 고산서는 50~60명. 100명까지도 나갈 때 있어.

105019 @ 우뭇가사리도 채취한마씨?

105019 #1 우뭇가사리 옛날엔 채취해서. 우뭇가사리는 툷 나는데 안 나. 그거는 바다에 물 속에 깊은디 나. 우뭇가사리는. 개인이 채취허주. 해녀들밖에 못해 그건. 물 깊으니깐.

105020 @ 전복이나 소라도 따로따로 채취해마씨?

105020 #1 잡는거야 똑같아. 우뭇가사리 하당으네. 우뭇가사리 하당 쉬면 또 그거 잡아놓고. 또 미역이라도 허다가 뭐 그런 거 있으면. 같이 바당에 보이는 건 다

잡아놓으니깐. 잡아오면 망수리 속에 놓지. 우에 올라오면은 이제 망수리 아래 클러가지고 풀어놓은다는 말이여. 풀어놓으면 미역 우뭇가사리는 우뭇가사리대로 하고 전복 소라는 별도로 구분해 놓주게. 게면은 어촌계서 와서 옛날에도 있어서 어촌계서 와서 그걸 받아 가버려.

105021 @ 전복이랑 소라 종류 아서마씨? 암수 같은 거 구분함수광?

105021 #1 사람은 뭔가 암 여자는 슬지는데, 전복은 여자가 지쳐. 전복이런 헛거는 요만큼 행 움틀라 한 거 있고 빼작 한 게 있어. 그게 암컷이라. 그게 다를 뿐이지.

105021 @ 전복이랑 오분자기는 어떻 구분해마씨?

105021 #1 오분자기는 돌 틈에서 크는데 요만큼밖에 안 커. 전복은 물 깊숙이 살아부난. 그걸로 구분허주.

105022 @ 테 종류도 이수광?

105022 #1 테 종류는 없어.

105022 @ 어르신 테에 대해서 아는 거 좀 알아줍서.

105022 #1 테우를 뭐로 만드냐면은 숙테낭. 숙테낭으로 그걸 찢라서 빼작 므른 걸 그걸 이제 사다가 이녁낭으로 만들라면은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가 다 꺾테기가 벗겨질거 아냐. 이만큼 한 네 군데에 고양이 똥. 고양이를 똥르면은 이쪽 고양이로 요만한 나무가 거기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나무 들어가게끔 네 개를 만들어. 네 개를 만들엉 그걸 박아 이젠. 고양이 똥린데로. 영 못이라는 게 있어. 나무못. 쇠는 안들어가니깐 테에는. 이제 걸로 쳐가지고 움직거리지 못하게 막주게. 게면 때가 된다. 때가 되면은 테 만드는 물이 언제 있어. 물이 짠물이 있어. 또 거기 평상이라는 게 있어. 테 앞에 앉아서 쉽도 하고 바다서 밥도 먹고. 테는 이리이리 젓어가야되여 뒷걸음으로. 뒤에 보면서. 뒤에 보면서 테를 이리 몰았다 저리 몰았다 하주게.

105022 @ 삼춘 어디서 테 몰안마씨?

105022 #1 여기서도 해나서. 바닷가 나강.

105022 @ 테 낚시 하러 나간마씨?

105022 #1 낚시하래 나가. 테는 보통 낚시하래 나가. 인근에 저 고기 우럭 좋은 거 낚으는디 큰 거 낚으는 데는 못 나가.

105022 @ 몇 명이나 타마씨?

105022 #1 너이 타. 테에나 배에나 노 저을줄은 다 알아야 하주게. 교대적으로 들어가니깐. 이 물빨이 세게 되면 올라가지 못허여 테라는 게. 물빨에 말려가지고 게면 가로 붙여가지고 물빨 안 쟈 곳으로 올라가젠하면 있는 사공들이 전부 노 저을 줄 알아야 하주게.

105023 @ 돛배도 몰아봤지예?

105023 #1 것도 너이 있어야 해. 그 일단 바람이 맞아야 할 적에는 바다 바깥으로 나가. 바람이 낫다면은 돛을 올린단 말이여. 올리면 뒤로 이만큼은 그 치가 있

어. 차에 같으면 핸들 같은 거. 그거 해 가지고 나무를 이만큼 붙였어. 그거 이젠 요만한 나무에 고양이 뚫었어. 고양이를 뚫어가지고 그걸로 이래 했다 이래 했다 조정해서. 저 돛단배는 그래서 그리 움직거리면서 돌아댕겨서.

105024 @ 돛배도 이름이 다르잖아예?

105024 #1 이물 고물. 이물은 앞이, 고물은 뒤에. 배 야오엔 하는 거는 앞에 쪼만한 거. 야오엔 하는 거는 배가 세 개 그 돛 달지 아니하냐? 멀리 돌아댕기는 거는 세 개 돌아. 게 아니면 하나 두 개 드는데. 야오만 돌아라 하면은 하나만 들거든.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옷감 종류는 뭐 뭐 있어마씨?

106001 #1 여기 촌에서는 만드는 거는 멘네로 해서 그건 미녕이다. 우리 커 올 때는 그걸 이제 맨드는 거도 굴아줘?

106001 @ 종류만 굴아줍서.

106001 #1 종류만? 미녕, 또 멩주는 누에. 누에 뽑아내는 거 멩준디 여긴 거 두 가지 밖에 없어.

106001 @ 모시나 삼은 없어수광?

#1106001 아 모시 삼은 있어. 그것도 옛날 모시적삼이라고 있었지마는 그거는 우리 있는 적에는 아주 옛날로 나와부니깐 그거 하는 데가 따로 있어부난 여기서는 안 해서.

명주

106002 @ 명주실은 어떻 만들어마씨?

106002 #1 누에 있지 누에. 누에꼬치 있지. 누에꼬치를 뜨신물에 커서 거기 숨 났은 게 붙어 있는 것이 있어. 누에 다 하나씩 씨를 뽑으면서 손을 잡아. 손을 잡으면 그걸 딱 붙으면 몰레 라는 것이 있어. 그것에 또 가레기라는 것이 있어. 가레기 하고 몰레하고 끼와. 노를 만들엉 끼와가지고 이거 돌르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 손으로 그 실을 잡아. 잡으면 누에실 다나올 때까지 같이 붙어서 나와. 그걸로 해가지고 이젠 또 멩주해서 짜야허여 미녕 짜듯이. 옛날에는 그렇게 해나서.

106003 @ 종류에 뭐뭐 있어마씨? 생명주, 수아주 들어보션마씨?

106003 #1 멩주는 멩주 하나. 그런 거 안들어봐서.

106004 @ 그럼 멩주로는 무슨 옷 만들어마씨?

106004 #1 멩주로는 제식옷. 옛날은 그 명절 한복으로 허영으네 전부 죽을 때 입혀가지고 관 속에 놓는거주게. 그걸 제식옷을 지금도 만들어.

106005 @ 무명실 만드는 과정 좀 알아줍서.

106005 #1 그건 잘 모르켜.

106006 @ 누에치기 아시는거 이수광?

106006 #1 누에는 그거 그 어서 종자가 나오는 데가 있어. 옛날도 각각이 종자를 못 만들어. 가서 사와야 돼. 뽕나무 있지? 뽕나무 잔잔히 썰어서 줘. 누에가 요만큼 크게 되면 뽕나무 잎과리를 그냥 줘. 그냥 줘서 그거 먹으면서 크거든. 자기네가 막 크면은 집 지서서 들어가. 들어가면은 누에가 되는거주게. 음식을 먹으면서 우에 얼러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멥주실이 다 얽혀져 있어.

무명

106007 @ 무명 종류는 뭐 있어마씨?

106007 #1 미녕은 솜. 멘네 있잖아. 멘네 몰라? 옛날에 여기서도 요만큼 크면은 꽃이 피어. 꽃이 피면 드래기라는 게 있어. 열매가 막 익으면 이렇게 벌러지면서 저솜 솜씨하고 솜하고 섞어정 나와 커. 막 크면은 사람 손으로 그걸 따. 따면은 그걸 툭툭 뿌리면서 따며는 멘네라고 하거든. 그걸 기계로 불러. 솜은 솜대로 떨어지고 씨는 씨대로 떨어지거든. 앞들에. 그걸 이제 또 몰려와. 몰려가지고 멘네 태우는 데가 있어. 멘네를 담아가지고 태우면은 솜이 등채로 나와. 등채로 나오면은 실 뺑는 거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태우는 게 있어. ㄹ래기. ㄹ래기하고 뽕가 몰래 놓아가지고 실이 나와부러.

106008 @ 미녕으로 어떤 옷 만들어마씨?

106008 #1 미녕으로 못 만드는 옷은 없어. 다 만들지. 이런 저 옛날 중의라고 하거든. 중의도 만들고 적삼도 만들고 저구리영 저구리영 하는 것도 만들주게.

106009 @ 땅에 있는 흙이랑 나무인 토목으로는 뭐 만들어마씨?

106009 #1 토목이영 한 거야 뭐 흙이나 나무나 만드는 거야 뭐 마찬가지주게.

106009 @ 옛날에 집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언마씨?

106009 #1 옛날에 집 만들 때는 여기는 돌담이 뭐하니깐 바닷가에 가가지고 돌담을 깨서 동네 사람 빌어서 그걸 저어 내어서 이젠 여기까지 없으면은 등짐으로 짐으로 이꺼지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돌을 이젠 이추록 박거든. 그런면은 흙으로 불러서 돌담을 고정시킨단 말이여. 게서 나무를 위에 걸쳐서 이젠 새나 뭐나 덮으면서 집을 만들었주게.

106010 @ 광목은 뭐짱?

106010 #1 광목이영 현 거야 아주 넓지.

106010 @ 그럼 그 광모공로 뭐 만들어마씨?

106010 #1 광목도 미녕이랑 마찬가지라. 아무거나 만드니깐. 광목으로도 옷 만들고.

106010 @ 그럼 광목이랑 미녕이랑 뭐가 달라마씨?

106010 #1 광목은 조금 순하고 연하고 올빨이 가늘고 미녕이영 한 거는 올빨이

꿇고 옷이 좁 거칠어. 옷은 미녕이로 만든 옷도 광목으로 만들 수 있고 광목으로 만든 옷도 미녕이로 만들 수 있어.

106011 @ 홍세미녕 알아지쿠과?

106011 #1 그런 건 잘 모르켜. 함이영 혼 게 종이라 씌어가지고 뭐 했지.

106011 @ 그럼 옛날에 함 같은 거는 어떻 준비하고 뭐 들어간마씨?

106011 #1 옛날에 요만한 함에 가져갈 때 초담 저 그 속에 돈 넣고. 돈 한 그 때야 돈 만원이면 컷주게. 한 돈 몇 천원이나 놔가지고 이제 그것에 싸가지고 글 써가지고 신랑 나이 신부 나이 좋은 날 택해서 간다고 했주게.

106011 @ 삼춘도 함 받았지예? 받았을 때 얘기해줍서.

106011 #1 그거 마찬가지. 함 받으면 여기서 남자가 남자 집에서 함 써가지고 신부집에 갈 적에는 거기서 받아서 이젠 여자집에서가 어떻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글자를 잘 썼는가 안 썼는가 그거 조사해가지고 좋으면 좋다 들어노면 그 결로 끝나는 거주게.

106012 @ 멘네 농사는 어떻해마씨?

106012 #1 밧 갈거든. 밧 갈면은 멘네 씨를 거기다 뿌려줘. 뿌려주는디 뿌려가지고 사람 발로 덮어줘. 그게 크면 종자를 간격 두면서 빵아버리거든. 그걸 이만큼 크면은 거기서 꽃 피가지고 열매가 맺으면은 되면은 또 씨를 뽑아가지고 미녕으로 하거든.

모시

106013 @ 모시는 아서마씨?

106013 #1 모시는 여기서 안해서.

106015 @ 모시 재배헨마씨?

106015 #1 고산에선 모시 재배 안해서.

삼

106016 @ 삼실은 안만들어수광?

106016 #1 그거야 광목 사서 만드는거지. 몸에 맞춰서 이녀냥으로 손으로 만들어서.

106017 @ 베로는 어떤 옷 만들어마씨?

106017 #1 베라고 하는 거는 고양이 송송나니깐 이 여름 옷들 남자들 옷들 위에 것들 행 입고 또 사람 죽으면은 입을 옷도 만들고. 사람 일곱명이 묶어주고. 사람 죽으면 묶으는 게 일곱 명이 묶어야 바른 말 한다는 말이 그말이주게. 사람은 죽으면 일곱명이 묶어.

106018 @ 삼 제배 하션마씨?

106018 #1 여기선 삼도 제배 안해서.

도구

106019 @ 씨아 들어받마씨?

106019 #1 그건 모르켜.

106019 @ 맨네 뽑는 기계를 뭐라해마씨?

106019 #1 그거를 뭐라 하는디 기억이 안남쨌.

106019 @ 그럼 맨네 뽑는 거에 대해 골아줍서.

106019 #1 하는 방법은 맨네를 갈아서 맨네를 꽃을 피워. 또 열매 열면은 그게 뭇가 익어가면은 숨이 나올거 아니냐. 허영헌 숨이 나오면은 사람 손으로 그것을 걷어오거든. 걷어오면 걸어서 파삭 마르면은 이렇게 그 들르는 기계가 있어. 이름을 아는디 잊어버려서 하도 오래되부난. 이거 두르면은 씨는 씨 대로 떨어지고 또 이 숨은 숨대로 나거든. 게면 이제 그걸 몰려. 숨을 이제 바삭하게 몰르면은 그게 태우는 맨네 태우는 데가 있다고 해서. 이제 어디 고산이면 한 군데나 두 군데나밖에 없는 데라. 거기 가서 이제 태워와. 태워서 게서 미녕 할 사람은 거기에 정이란 게 있어. 요만쨌 한 거. 또 이불 할 사람은 크게 거기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맨네 숨이주게.

106020 @ 물레에 대해 얘기해줍서.

106020 #1 미녕 실 빼는 것이 물레주게. 거기서 미녕하는 거는 다 빼놔.

106021 @ 베틀에 대해 얘기해줍서.

106021 #1 물레 해난 다음 풀이라는 게 있어. 풀이라는 게 감는다 말이며. 가운데 고양이 있어. 고양이로 실 하나 뽑아내가지고. 뭇냐면은 놀아 길게 해가지고 풀 맥이면서. 고시락 불 밑에서 깔아놔가지고 돌리면서 이제 불 맥이면서 붙으지 않게 끔. 쨌 거 하면은 타불주게. 돌케라고 해가지고 옆에 놔가지고 돌리면서 돌리면서 뽑아. 문딱 감아지면은 그걸 베틀에 올려. 그거는 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낭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우에 베틀 놓는데가 있어. 베틀에 고양이 뚫러가지고 이렇게 된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제일 밑에는 짚실 노로 그 나무에 묶으고 받을 땡기면 이게 열린다는 말이며. 열리면 그 속으로 풀을 담양 드밀면 그렇게 하면서 미녕을 뽑는거주게.

바느질

106022 @ 바느질 도구에는 뭇 있어마씨?

106022 #1 실, 바늘 또 뭇냐면은 속돌. 속돌은 바늘 녹실면은 가는거. 골메도 있어. 골메는 바느질 하면서 손 그 옷이 두꺼우면은 바늘이 들어가기 힘들거든. 게면 골메가 쇠거든. 걸로 바느질을 쨌 밀어줘.

106023 @ 바느질 방법은 아는거 있어마씨?

106023 #1 바느질 방법이야 그게 그거주.

옷 종류

106024 @ 남자들은 옷 종류 뭐뭐 입어수광?

106024 #1 옛날에 중의, 아래거는 중의적삼. 애들은 바지. 우에 거야 적삼이야 똑같어.

106025 @ 여자들이 옛날에 어떤 거 입언마씨?

106025 #1 보통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 미녕이 나오니까 미녕옷이주게. 광목도 나지만은 여기서 광목 안하니까 광목도 옷도 입기가 힘들었고. 여기 농촌에는 미녕.

106025 @ 미녕으로 만든 옷은 뭐라고 골안마씨?

106025 #1 중의영 아까 얘기한 거 중의 적삼 뭐 이런 거.

106025 @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마씨?

106025 #1 으. 중의 적삼이라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거의 같아.

106026 @ 아이 옷은 종류는 뭐 엇언마씨?

106026 #1 딱 거 없지. 그것도 미녕. 미녕이 주재료였으니까 옛날은.

106028 @ 삼촌 보선은 알아져마씨?

106028 #1 옛날에 겨울에 발 안시리게 신주게.

106029 @ 단추 종류 몰라마씨?

106029 #1 종류? 단추야 한가지지 뭐. 단추라 하는 것은 그냥 4개 뚫라진거니깐. 옷마다 옷에 색깔에 따라 단추가 나오거든. 큰 건 큰데로 작은 거는 작은 거 데로. 흰 건 흰거 검은 건 검은 거데로 색깔에 따라 돌아 매서.

재단과 염색

106030 @ 옷감 손질해 본 적 잇어마씨?

106030 #1 미녕게 미녕. 제주도야 감는 것이 미녕 아니냐.

106030 @ 그럼 미녕 손질은 어떻게마씨?

106030 #1 미녕 손질이야게. 거 멘네로 하는거주게.

106031 염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1 @ 미녕 옷에 색깔 집어 넣는 거 알아마씨?

106031 #1 감게. 감. 감 뽀사가지고 옷을 놔가지고 감 물들영 감 같이 낱 문대 주게. 그 저 옷을 다 젖을 때 까지. 물 적정 물러가지고 빨갱게 곱주게.

신발

106032 @ 옛날에 신발 종류는 뭐 잇언마씨?

106032 #1 조리, 짚신, 또 비올 때 신는 나막신. 가죽신은 옛날에 엇언. 단지 그 거라 게다. 왜놈들 신는 거 있잖아. 우리 나막신은 파서 만들고 파서 발 들어가게끔 만들주게.

106032 @ 나막신이랑 게다랑 차이 좀 얘기해줍서.

106032 #1 게다는 앞에다가 이제 게다는 이렇게 만들면은 것도 앞뒤에다가 앞의 그냥 하나 일루 그냥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발가락에 찢렁 신는거주게. 나막신

은 그냥 신고. 그건 그냥 없어. 위에 그냥 만들어졌으니깐.

106033 @ 가죽신 만드는 과정 얘기해줘서.

106033 #1 가죽신은 여기서 안만들어서. 초신. 가죽신은 안만들어보고.

106033 @ 가죽신 만드는 과정은 몰라마씨?

106033 #1 몰르지 그건. 그건 몰 잡고 쉼 잡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니깐.

106034 @ 나막신 만드는 과정 알아줘서.

106034 #1 나막신 만드는 거는 나무가 만드는 나무가 따로 있어. 그 나무 이름은 모르켜. 그 나무를 파서 만들어서 썬는 사람이 있주게. 기계로 다 파서 손으로 만들엉 풀아서. 호미 닮은 쇠로 도구를 만들어서 파. 전부 이제 파가지고 멘쩍 다듬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주게.

106035 @ 짚신은 어떻 만들어마씨?

106035 #1 짚을 두드려. 짚을 겹데기를 빼불거든. 짚은 나뭇에서 나와 나뭇짚이라고. 그걸 요만큼 묶어. 묶어서 방뎡이로 마개로 두드려. 그게 복삭하면은 그거하고 어욱 알아지지? 어욱 뭔가 꽃 피젠하면 나오는 거 있지? 그거 몰려와서 깨어. 그게 질겨. 그걸 꼬아가지고 딱 놓아서 감아. 또 잇는 법이 있어 이렇게 두 개 붙여가지고. 이으면은 그게 똥골락하면 네 개 벌겨. 경행 만들주게. 그걸로 조리도 만들어. 조리는 이렇게 짚 두드려가지고 노 꼬아가지고 만들주게.

106036 @ 짚신은 종류가 어수광?

106036 #1 짚신? 미투리. 미투리는 아주 줌진거. 깍이라는 게 있어. 실깍. 줌진 걸로 만든 것이 미투리고. 그나머지 짚신. 멀리 나가려면은 미투리 신주게. 집에서 는 짚신 신영 땡기고.

모자 등

106037 @ 모자 종류 아는 거 있어마씨?

106037 #1 모자 이름이야 뭐 있어게. 강 쓰면 모자주게. 털모자 뭐 이 나까오리. 늑은 하르방들 영 한거 있잖아. 그 나까오리 하고.

106038 @ 여름에 보통 쓰는 모자는 뭐 있어마씨?

106038 #1 모자야 여름에 쓰는 거 지금이랑 별 다른 거 없어. 그냥 겨울에 쓰고 다니는 것도 여름에 쓰고 하는 통이니까. 그 당시에 별 일 없어.

106038 @ 밧일 할 때 쓰는 모자 있지 않아마씨?

106038 #1 패랭이. 패랭이 많이 썼주.

106038 @ 패랭이는 어떻 만들어마씨?

106038 #1 패랭이가 보리때 끄트머리 빼영. 곱게 손봐가지고 그걸로 짜 이렇게 패랭이 맨들게끔. 일곱개면 일곱개 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짜뉘거든. 게면 요 넓이로 쪽 그걸 몰았다가 이젠 패랭이로 꼭대기를 만들어. 이제 바늘로 하면서 넓은디는 넓은데로 하고. 잘 곱게 만들주게.

106039 @ 겨울에는 어떤 모자 써마씨?

106039 #1 털모자도 있고. 근데 털모자 안 쓰는 사람은 안 쓴다.

106040 @ 양태 걷기 들어보셨마씨?

106040 #1 그건 안들어봤다.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 종류는 뭐 있어마씨?

107001 #1 곤밥, 보리밥, 조팍, 알라미밥. 곤쌀밥 보리밥은 보리쌀만 하는 거. 잡곡밥은 보리쌀, 좁쌀 그거 들어가는 거고. 조팍은 좁쌀만 들어가는 거. 풀밥은 풀 놓은 거. 콩밥이런 허는 거는 콩 넣은 거.

107002 @ 밥쌀 종류에는 뭐뭐 있어마씨?

107002 #1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밥쌀의 종내기. 지금 종내기야 나 아는 거야 그 때는 보리쌀, 좁쌀, 또 나룩쌀, 산디쌀 네 가지밖에 없었주게.

107003 @ 보리밥에 대해 알아줍서.

107003 #1 보리밥이야 보통 우리가 살 적에 옛날은 쌀밥 같은 거 일년에 잔치 때나 얻어먹주게. 겐디 보리밥은 노상 먹는 게 보리밥이주게. 보리밥에는 보리쌀하고 좁쌀 넣어서 해먹어 농촌에서는. 또 고구마 고구마도 넣어서 먹을 때도 있고. 또 지실.

107004 @ 반지기밥 아셔마씨?

107004 #1 보리쌀하고 곤쌀하고 섞은 것이 반지기밥. 반반을 섞었던 보리쌀이 죽게 들어가도 상관어신거. 반지기밥은 손님이나 오면은 먹주게. 보리쌀 좀 넣고 흰쌀 좀 넣엉 먹주게.

107005 @ 곤밥에 대해 얘기해줍서.

107005 #1 곤밥은 언제 먹느냐. 곤밥은 제사 때. 제상에다가 귀신들 왕 먹영 감사 할 때. 또 결혼식 할 때 또 신부 신랑한테 올리는 게 곤밥이고.

107006 @ 조팍은 언제 먹어마씨?

107006 #1 조팍은 놀 때 먹고. 조팍이라는 거는 뭐뭐 들어가면은 고구마 들어가고 감저도 들어가고 조팍은 해 먹주게.

107007 @ 팔밥은 언제 드셨마씨?

107007 #1 팔밥은 곤밥에 풀 들어간 게 팔밥이라. 콩 들어가면 콩밥. 녹두 들어가면 녹두밥.

107008 @ 피밥도 드셔봤마씨?

107008 #1 피밥은 뭐 보리쌀에 넣어 먹주게. 피라는 게 있어. 뭔가 나락 닮은 거. 속 알맹이는 좁쌀 닮아. 것도 평소에 먹는 거.

107009 @ 감저밥은 해 먹어마씨?

107009 #1 감저하고 보리쌀하고 넣으면은 감저밥.
 107010 @ 무밥은 언제 드셨마씨?
 107010 #1 옛날엔 무밥이라는 것 잘 안해먹었어.
 107011 @ 툇밥은 알아마씨?
 107011 #1 툇밥은 들어는 봐신디 안해먹어봐서. 툇하고 보리쌀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넣은 게 툇밥이라고 하는데. 밥은 잘 안해여 먹언.
 107012 @ 패밥도 해서 드셨마씨?
 107012 #1 패밥은 바다에서 나는 거 까리까리 하는 거 있다. 아주 가는 뭇가 노모냥 된 걸로 까리까리 한걸로 잎파리가 나와.
 107013 @ 국 종류 좀 얘기해줍서.
 107013 #1 국이야 지금 먹는 거랑 마찬가지주. 옛날엔 나물국, 미역국, 또 바다에 나가면은 멸채국.
 107014 @ 나물국에 대해 얘기해줍서. 종류가 뭐 있고 만들 때 어떻 만들어마씨?
 107014 #1 나물이라고 하는 거는 배추. 나물이영 하는 거는 무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아. 배추보고 나물이라고 허여. 그게 제일 자주 먹어.
 107015 @ 콩나물국도 해먹지예?
 107015 #1 자기가 뭐 먹고 싶지 않을 때 콩나물국도 해 먹어. 시리라는 것이 있주게. 떡 치고 고양이 밑에 송송 뚫아졌주게. 그 때 그디다가 기지떡 패와가지고 콩뉘가지고 물 자꾸 저가면 콩이 이만큼 커. 게면 그걸 뿔앙 국을 해 먹어.
 107016 @ 뭇국도 드셨지예?
 107016 #1 뭇국이야 무만 넣으면 뭇국이주게. 옛날에는 무하고 된장만 넣영 먹어서. 소고기가 어디있나?
 107017 @ 콩국은 언제 만들어 드셨마씨?
 107017 #1 콩국이영 하는 거는 물이 끓어가면 콩 넣으면은 그게 끓여진단 말이여. 멍심안하면 콩국은 못 끓여 먹어. 자기가 그것에 잘 눈을 안들어놓으면은 못해 먹어. 왜그러냐면 부꺼부러. 잘못하다가 배추를 문딱 씨청 옆에 딱 놔두었다가 거부끄지 못하게 해. 부끄지 못하게 하젠하면 나물을 집어 넣어야해.
 107018 @ 호박잎국은 나물국이랑 뭐가 달라마씨?
 107018 #1 호박잎국은 절국에 들어가.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호박잎에 멜젓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자리젓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뭇가 뭐 들어가는 거 있어.
 107019 @ 모자반국 들어보셨지예?
 107019 #1 뭇국이지? 뭇국이랜 허는 거는 어떨 때 먹냐면은 큰일 때 먹주게. 돼지나 잡을 때. 뭇이랜 허는 거는 돼지 국물에다가 태운거지 저게. 맛있어 저게. 그래 가지고 어디 잔치 때나 대소상 때나 이런 데서 그걸 도야지 잡아놓으면은 삶양도새기 삶아 놓으면 그 국물에다가 뭇을 빨아서 썰어서 놓으면은 그게 뭇국이 되여.

107020 @ 생선국 아는 거 알아줍서.

107020 #1 생선국에는 미역이 들어가지. 생선이영 흐는 거는 여기서 고기 이름이 달라. 먼 바다에서는 나가 도미라고 할까? 그게 여기서는 생선이랜 해주게. 생선국이라는 거는 미역이 들어가주.

107021 @ 미역국은 그럼 뭐 들어가마씨?

107021 #1 미역국이랜 흐는 거는 미역만 넣고.

107022 @ 그럼 냉국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22 #1 냉국은 미역을 말렸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생미역으로 물 넣고 장 넣으면 그게 냉국이주게. 종류는 나물냉국, 미역냉국, 톳냉국 세 가지 있어.

107023 @ 성게국, 보말국, 뽕패국, 가시리국, 파래국, 물회도 드션마씨?

107023 #1 성게국도 미역이 들어가. 보말국도 미역이 들어가고. 뽕패국도 마찬가지로. 가시리국은 없어. 가시리랜 흐는 거는 풀인디 여기서 안 해먹어서. 파래국은 파래란 흐는 거는 여긴 없어. 옛날엔 나나신디 오염되니깐 붙이지 못하여 죽어 부러.

죽류

107024 @ 죽 쓸 때 넣는 재료가 뭐 들어가카마씨?

107024 #1 들어가는거야 별도로 콩조개 들어가는 거 있지. 배추, 무 같은 거 들어가고.

107025 @ 흰죽에 대해 말해줍서.

107025 #1 흰죽이랜 흐는 거는 곤살 넣어서 만든 게 흰죽이주게. 흰죽은 보통 때 먹는 거고.

107026 @ 조죽은 뭐짱?

107026 #1 좁쌀만 넣어가지고 한 거. 조죽은 별로 안 쑤어 먹어.

107027 @ 팔죽은?

107027 #1 팔하고 곤살 넣엉 만든거주게. 팔죽이랜 흐는 거는 영장 때 먹는 거주게. 왜그러냐면 그거는 거기 오는 사람들 먹는 중에 잡신을 방지한다고.

107028 @ 콩죽은 어떻 해 먹어마씨?

107028 #1 콩죽은 배추 넣고 고구마 감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죽이영 같이 옛날에 먹어났주게.

107029 @ 메밀죽은 언제 드션마씨?

107029 #1 메밀죽은 죽 썬 먹는 건 굵어 방울이. 그냥 떡 하는 거는 가루가 좀 지르는데 죽 할 때는 메밀이 좀 굵주게. 떡 해 먹는 거 따로 나오고 죽 해 먹는 거 따라 나오주게.

107030 @ 녹두죽도 해 드션마씨?

107030 #1 녹두죽도 쌀만 들어가. 쌀하고 녹두하고. 녹두는 웃드리에서 나오주게. 녹두죽은 그냥 마찬가지로주게.

107031 @ 닭죽도 죽에다가 닭만 넣엉 드션마씨?

107031 #1 닭죽이랜 혼 것도 그렇지. 특별한게 없어.

107032 @ 꿩죽은 어떻 만들언마씨?

107032 #1 꿩을 빵앙 그루 만들어그넹 그거하고 뭔가 쌀하고 섞엉 만들주게.

107033 @ 앞에 말한거 말앙 탄 죽도 해드션마씨?

107033 #1 그거 외에는 농촌에서는 여러 가지를 못 해 먹었주게. 그 때는 죽이랜 혼 거는 보리쌀, 호박잎, 나물 이 뭔가 배추도 넣으면 얼마 안 먹어도 배부르고 호박도 넣으면 얼마 안 먹엉 배부르고.

범벅과 수제비

107034 @ 범벅 종류 좀 얘기해줍서.

107034 #1 범벅이랜 한 게 가루. 좁쌀 가루도 있고 보리 가루도 있고 고구마 가루도 있고. 가루랜 하는 거는 다 범벅 만들 수 있어. 가루 이름이 범벅이라. 조팜벅, 쌀범벅. 또 감저범벅, 고구마범벅 이렇게 나오주게.

107035 @ 수제비 종류도 알아마씨?

107035 #1 수제비? 수제비야 만드는 것은 똥글락 똥글락 만들엉 물 끓여가지고 집어 넣는 게 수제비주게. 수제비 종류는 조, 곤살, 또 메밀, 또 뭐냐 한 몇 가지 있는데. 모밀. 메밀이랜 하는 거는 모밀이랜 했주게.

107036 @ 칼국수는 드션마씨?

107036 #1 칼국수는 밀 또 모밀 그걸로 만들주게.

김치

107037 @ 김치 종류가 뭐뭐잇어마씨?

107037 #1 옛날에는 늪배김치, 배추김치 있었주게.

107038 @ 배추김치에 대해서 글아줍서.

107038 #1 배추김치는 배추로 만드는 게 배추김치주게. 만드는 거는 그 때는 저 고치, 마늘 거 밖에 못 들어갔어. 젓. 맬것도 들어가서.

107038 @ 김치 만들 때 다같이 만들어수광?

107038 #1 지금 만들 듯이 똑같이 다같이 만들주게. 옛날이랑 이름만 다르지 현재랑 똑같이 만들주게.

107039 @ 열무김치는 안만들어마씨?

107039 #1 열무김치 옛날? 것도 김치 종내기로 들어가.

107040 @ 그럼 물김치는 어떻 만들어수광?

107040 #1 물김치는 저 무 썰어가지고 소금에 절였다가 건져내가지고 간 맞춰서 만드는 게 물김치주게.

107041 @ 동지김치 알아마씨?

107041 #1 동지는 배추 우에 꽃 피는 것이 그걸 꺾어가지고 소금에 절였다가

만드는 게 동지김치지.

107042 @ 무김치 늪빼김치는 늪빼만 들어가마씨?

107042 #1 늪빼하고 들어가는 거는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마늘 고추가루 들어가는 거 뿐이지.

107043 @ 파김치에 대해서도 말해줍서.

107043 #1 파김치도 마찬가지로. 무김치 파김치 하는 거는 재료에 주장되는 걸로 얘기해여.

107044 @ 달래김치는 들어봤수광?

107044 #1 달래김치는 여기 없어.

107045 @ 갓김치도 드션마씨?

107045 #1 갓김치도 옛날에는 안만들어나서. 갓김치는 지금 같은 그냥 무로 김치 통채로 만든 거 있어.

107046 @ 부추김치는 만들어봤마씨?

107046 #1 여기서 부추김치 없어.

107047 @ 배추김치나 늪빼김치 담그는 법 알아줍서.

107047 #1 그거야 뭐 마찬가지로주게. 처음엔 배추나 무 따왕 시쳐가지고 소금에 절일 때 이게 시간을 본단 말이야. 저녁 때나 뒷날 아침에 건져내가지고 씨친다 말이야. 옛날엔 소금에 절이지 못했어. 웃드리는 소금에 웃드리에서도 여기와서 짠물 지려가. 바닷물에 배추를 담가. 망사리에 배추를 담아놔가지고 물 들었다 났다 하는 곳에서 가져와서 시쳐서 거기서 마늘 뭐 젓 고춧가루 그거 세 가지 넣어가지고 범벅 담게 만들어. 그것이 김치 되는 거주게.

젓갈

107048 @ 젓갈 종류는 뭐 있수광?

107048 #1 옛날엔 젓갈 종류 여러 가지 없었주게. 뭐가 멸젓, 또 자리젓 그거 밖에 없었어.

107049 @ 자리젓 좀 얘기해줍서.

107049 #1 옛날엔 자리젓 만드는 거야 마찬가지로. 간 맞춰서 소금해서 간이 맞으면은 한 것에 요만한 향아리에 담아놔. 자리돔이라는 걸로 만드는 거주게. 제주에서 노상 잡히는 거주게.

107050 @ 멸젓에 대해서 알아줍서.

107050 #1 머루치라고 하는 거는 작은 거고 멸이렌 흐는 거는 큰 건디 두 가지 이름밖에 안나와. 저 옛날은. 머루치도 젓갈 담야. 머루치젓은 그거 이름 들어가는 것이 마찬가지로 머루치젓, 멸젓 그것밖에 없었어. 머루치젓은 거의 안만들어.

107051 @ 아감젓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51 #1 아감젓은 고기 생선 같은 거. 뭐가 배 불르면은 아가미에 하는 거 도 새기 같으면 대창같은 걸로 음식 먹으면 모아지는 거 그런 걸 썰서 씨쳐서 간 맞춰

서 소금 넣어서 담는게 아감젓이주게. 아감젓이라는 게 옛날에는 생선 지금은 보통적으로 생선이라고 하지. 옛날은 저 바다 먼 데서 잡아온 게 예쁘게 생긴 것이 생선이주게. 그것에 것이 들어가야 젓이 되주게.

107052 @ 게젓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52 #1 게젓은 갱이젓이주게. 갱이젓은 그냥 뭐가 그 하루 잡아와가지고 산채 잡아와서 그건 가에서 밖에 안나와. 큰 거는 논킹이라고 해서.

107053 @ 자리젓이랑 벨젓 만드는 거 얘기해줍서.

107053 #1 자리젓이나 벨젓이나 간 맞춰가지고 그냥 항아리에 담아 놓는 게. 간은 소금으로 맞추고. 일단 젓이랜 흐는 거는 소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안 넣주게. 그것에서 고기에서 물 나오니까 소금만 짜느냐 싱거우냐에 따라 맞춰서 넣으면 되주게. 자리가 일키로민 소금이 몇 프로 이게 공식적으로 머리에서 나와서. 그것에 맞춰 소금 집어너가지고 버무렁 항아리에 담양 20일 훈 달 쪼뉘면 먹으면 되주.

107054 @ 출레에 대해 말해줍서.

107054 #1 그냥 아무 고기라도 젓갈 놔가지고 하면은 그거 출레라 하주게. 출레 멸젓도 끓이면 출레고 자리도 저 볶으면 출레고. 출레라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로.

장아찌와 회

107055 @ 장아찌 종류는 뭐뭐 잇어마씨?

107055 #1 짱아찌 종류는 마늘, 무, 몸차반 바다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 몸이 나주게. 장물에 그걸 커. 그거 익으면 몸차반이주게.

107056 @ 마늘장아찌는 어떻 만들어마씨?

107056 #1 마늘장아찌도 그냥 대가 잇어신디 이파리는 안들어가 다 찢라서 장물에 그냥 담가. 그게 마늘 장아찌주게.

107057 @ 이 동네 회 종류는 뭐 잇어마씨?

107057 #1 옛날에 종류라고 하는 거는 자리밖에 엇언.

107057 @ 새끼회는 없어수광?

107057 #1 도새기 새끼회. 도야지 배속에서 난 거. 그게 새끼회라. 방어회 같은 거는 엇언.

107058 @ 계절에 따라서 반찬들 드신거 잇언마씨?

107058 #1 계절에 따라 먹는 건 엇언. 호박무침은 이제 먹을 때지. 겨울에. 고사리무침은 아무 때나 먹었고. 여름에나 겨울에 무쳐 먹는 게 누물이주게.

107058 @ 우럭은 보통 언제 많이 잡혀마씨?

107058 #1 우럭도 가을에 많이 잡혔주게. 가에서 가어로 나는 게 생선 잡히는 거야 볼락, 또 우럭하고 감팍이니 조력 맥시 또 어랭이, 실어랭이 많주게.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언제 담가마씨?

107059 #1 장? 시월달에 담주게.

107060 @ 장 종류는 뭐 있어마씨?

107060 #1 뭐 없어. 고추장, 된장. 간장은 된장에서 나와. 된장물이 간장이라.

107061 @ 장 만드는 거 알아줍서.

107061 #1 된장은 콩 삶앙. 콩 해다가 시쳐. 삶아서 익으면 올려 놓을 꺼 아니냐. 올려 놓으면은 도구리엔 하는 거에 뽀아. 뽀으면은 콩이 다 까져. 그게 꺼내가지고 하꾸나 손으로 찌서 나락짚으로 세 가닥 네 가닥 해서 돌아매어. 그게 꺼떻게 떠. 뜨면은 내려가지고 씨쳐. 씨쳐가지고 소곰이 물 딱 놓으면은 간 맞으면은 메주를 들이쳐. 그걸 일년 놔두면은 자연히 되주게. 거기서 국물 나오면 간장. 고치장은 뭔가 고춧가루 해서 간 맞춰서 간장 놔가지고 게문 그게 고추장 되는 거주게.

107062 @ 메주는 언제 보통 만들어마씨?

107062 #1 시월달에 보통 만들주게.

107063 @ 장 만들 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나 말 이수광?

107063 #1 장 담글 때 영장난 데나 어떤 데 돌아 땡긴 사람은 장 못 담가해. 그게 그르친다고 장을. 게고 여자들 몸에 거 올 적에 담지 못하고.

떡류

107064 @ 떡 종류 아시는 거 말해줍서.

107064 #1 게문 잘 많은 건 절편, 실떡(시루떡), 인절미, 곤떡, 새미떡 또 그 외에는 뭐냐.

107065 @ 시루떡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65 #1 시루떡이라는 거는 아무거나라도 만들 수 있어. 떡이엔 허는 거는 이제 그 시루떡이라는 거는 곤졸만 곤졸만 갈아가지고 물에 킷다가 뻘사. 옛날은 돌방에특에 뻘사서 방엿귀로 돌방아에 비어갓고 밀면서 가루 나오게끔 뻘사. 뻘시면 채로 쳐가지고 이제 곤졸 가루만 나올거지. 가루만 나오면은 자기 놓고 싶은 데로 감저 썬거면 감저 썬거 무 썬거면 무 썬거 넣고 싶은 걸로 넣영 섞어. 섞어그넹 팔 삶아가지고 준비해 두었다가 그걸 놓은 다음에 이제 솥에 놔가지고 불을 대어. 게면 어느 정도 되면 찢러 보면 익고 안 익은 걸 안단 말이여. 익으면은 칼로 끊은 게 제편. 송편 제편.

107066 @ 그럼 송편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66 #1 송편은 그 놔가지고 손으로 잡은 게 송편이주게. 솥에다가 콩나물이나 무 넣어서 만드는 게 송편이주게.

107067 @ 빙떡은 뭐뭐 들어가마씨?

107067 #1 빙떡은 모밀가루랑 옛날은 솔뚜경에 불 때서 그걸 가루를 반죽으로 만들왕 놓면은 숟가락으로 넓히면은 그게 익는다 말이여. 익으면 그거 때내서 늪뻘랑 콩나물이랑 놔가지고 말아버린 게 빙떡이라. 자주 못 먹어서. 잘 살아야 먹을 수 있어서 모밀가루 비싸부난. 지금도 맘대로 못해먹어.

107068 @ 상웨떡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68 #1 상웨떡이영 하는 거는 뭔가 옛날은 영장날 적에나 그럴 적에 동그랗게 만든 게 상웨떡이라 하주.

107069 @ 제사 떡 종류는 뭐 있어마씨?

107069 #1 제사 때 별다른 게 없던. 하도 곤란하게 살아부난. 아까 말한 시루떡은 꼭 들어가매. 절편도 들어가매. 빙떡도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곤떡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 외에는 별로. 빵 같은 것도 만들영 올리고.

107070 @ 상례 때 쓰는 떡에 대해 말해줍서.

107070 #1 옛날은 보통 좁쌀 해가지고 고구마, 감자. 감자를 썬 거를 섞어. 섞어가지고 이제 시루에 넣으면서 팔 넣영 만든 그거 하나하고 동그랗게 만든 떡 하나 올리주게.

107071 @ 설기떡은 뭐 말하는거마씨?

107071 #1 설기떡은 잘 모르켜.

107072 @ 인절미는 어떻 만들어마씨?

107072 #1 안들어봤 잘 모르켜.

107073 @ 절편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73 #1 절편은 시루떡 만들당 나오는 게 시루떡이주게.

107074 @ 솔변은 들어반마씨?

107074 #1 송편보고 솔변이라 하는 거 아니라?

107075 @ 웃기떡은 알아마씨?

107075 #1 웃기떡이라 한 게 옛날은 빵이라고 한 게 웃기떡이라고 해신가?

107076 @ 고사 지낼 때나 당에 가지고 갈 때 어떤 떡 가져간마씨?

107076 #1 그냥 있는 거 모여봐가지고 가져가주게.

107077 @ 굿 할때 쓰는 떡은 뭐 있어마씨?

107077 #1 따로 없어.

107078 @ 이외에 드셔봤던 떡 얘기 좀 해줍서.

107078 #1 떡이라는 게 별게 있어. 먹고 싶을 때 만드는 떡은 감자떡이주게. 옛날은 자기 먹고 싶은 거 중에 조들레떡있어. 좁쌀가루 해가지고 손으로 잡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영 솔에다 찢게 조들레떡이라하주게.

소와 고물

107079 @ 떡 안에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해마씨?

107079 #1 쉬. 떡쉬.

107079 @ 쉬는 어떻 만들어마씨?

107079 #1 팔 삶아서 그걸 그냥 하지 않고 조금 반쯤 백사. 백사가지고 떡을 요만큼 뱅동글락 해 놓으면 가운데 툇 뉘가지고 양 옆으로 잡고 들어가. 그게 쉬주게.

107079 @ 쉬에는 그럼 팔 말고 다른 건 뭐 들어가마씨?

107079 #1 뭐 쨌도 들어가긴 들어가지. 무 쨌 것도 것도 들어가고 콩나물도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거 없어. 종류라하면 무도 들어가고 콩나물도 들어가고 녹디나물도 들어가고.

107080 @ 떡고물은 뭐 잇어마씨?

107080 #1 떡고물이라는 게 별 거 잇어?

107081 @ 떡에 얹힌 얘기 아는 거 잇어마씨?

107081 #1 그건 잘 모르켜.

별식

107082 @ 순대 어떻 만들어마씨?

107082 #1 도새기 도새기 막 잡앙 나오는 걸로 시쳐서 도새기 배 속에서 나온 메역 기름 같은 거 그거하고 마늘 같은 거 썰어넣 모밀가루나 밀가루나 반죽해서 죽 담게 만들어서 그걸 짚어 넣어. 그걸 솥에다가 삶으면은 익은 걸 필로 보냐하면 이쭈시개로 콧 찌르면 피가 올라오면 안 익은 거고 피가 안 올라오면 익은 거니깐 건져내어. 큰 일 때는 고기 쟁반에 흐나 썩 놔가지고 먹주게. 옛날은 대소상 있었거든 대소상이나 영장 때 그리고 잔치 때 보통 만들주게. 옛날에는 면이 없어부난 안 들어가고 겨우 들어간다는 게 밀가루나 또 모밀가루나 팟마농 그거 썰영 같이 반죽 행 들어가주게.

107083 @ 두부는 어떻 만들고 언제 사용해마씨?

107083 #1 두부는 콩가루니깐 그거는. 콩고루 물로 나온 두부도 있고 콩 그냥 곱아서 나오는 거 이신디 물로 나오면 물두부 되는 거고 그냥 두부는 콩 곱앙 나오는거주게. 물두부는 콩 곱아가지고 물 빠. 그걸로 솥에다 썬. 썬가지고 그냥 다라에 그걸 놔. 그걸 놓면은 형겘으로 덮어. 밑에 양철이나 고냥 송송 난 걸로 밑에 물 빠지게. 그럼 뭔가 물두부 같은 게 나오고. 또 마른 두부는 하꾸에 놔서 놔 그냥 만들면 되주게. 두부는 그냥도 먹고 큰 일 때도 먹고 보통 큰 일 때 사용허여.

107084 @ 메밀묵이나 청묵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84 #1 메밀묵은 메밀 가루 곱아가지고 솥에다 썬. 솥에다 썬 건져낸 하꾸에 그걸 광묵이나 뭔가 깔아서 놔. 놓면 굵은 줄 알면 썬 게 모밀묵이고.

107085 @ 그럼 청묵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85 #1 청묵이랜 흐 거는 물로 만든 게 청묵이고.

107086 @ 미숫가루도 만들어보션마씨?

107086 #1 미숫가루 게엿? 게엿은 보리 볶아서 그래에서 갈아서 만든 게 게엿. 곱면은 옛날은 가래밖에 없거든 지금은 기계에서 곱지만은. 가루가 나오면 즘진 채로 쳐. 이제 여름 때 물강도 먹고 허주게. 미숫가루 콩도 볶앙 쓰는 데 콩만으로는 미숫가루 못허여게. 보리랑 섞어져야 콩미숫가루가 되주게. 콩은 냄새가 좋주게 코 시룩한 냄새가.

107087 @ 지짐이는 종류가 뭐 잇어마씨?

107087 #1 지짐이엔 흔 게 옛날은 적이라고 허주게. 적 종류는 제사 때 상에 올리는 게 지짐이주게.

107088 @ 오매기술은 어떻 담가마씨?

107088 #1 오매기술은 좁쌀 곱아서 반죽허영 그거 때내면서 오매기를 만들어. 만들어서 이젠 솔에 물 깨우면서 대접있잖아. 대나 새로 묶어그넝 솔에다가 깔아가 지고 오매기떡 만든 게 그걸 집어넣어서 만들주게. 그걸 다시 죽담게 만들영 향아 리에 담양 만드는 게 오매기술이주게. 오매기술은 좁쌀로 만드는거주게.

107089 @ 원다리는 뭐짱?

107089 #1 우리가 밥을 보리밥이나 쌀밥이나, 콩 든거는 안되여. 보리밥이나 조 팍이나 아무 밥이라도 밥은 되는데 쌀만든 걸로 먹다 남은 걸 큰 다라에 담아서 물 좀 놔가지고 걸 췌겨. 췌으면은 내중에는 그것에서 맛이 나와. 그냥 그걸 먹으면은 그게 원다리라.

107090 @ 누룩 만드는 것도 알아마씨?

107090 #1 누룩은 두 가지가 있주게. 보리 누룩이 있고 밀 누룩이 있주게. 그거 는 굵게 곱아가지고 그걸 물에 쪼금 놔가지고 반죽을 므르게 해어. 므르게 쥐던지 하꾸에 놔가지고 덮영 놔두면 거기서 터. 트면은 물리면은 빨간 게 나오는 것이 있 고 검은 게 나오는 것이 있주게. 그것이 누룩이주게. 누룩이라는 게 보리로 많이 만 들주게.

107091 @ 옛은 종류가 뭐 잇어마씨?

107091 #1 파는 옛은 여기서 못 만들어. 옛을 만들려면 촌에서 만들려면 보리나 면 뽕족뽕족 순이 나. 물 켕 노면은. 그걸 물려와. 물려가지고 그거하고 좁쌀하고 보리 순 나는 가루하고 노면은 반죽되면은 그 물을 채로 걸러. 걸러가지고 무르게 해가지고 물을 다 빠지게 행. 그걸 솔에다가 뿔리면은 옛이 되는거주게. 그것이 보 통 자식들이 올 적에 그와 같이 해 먹주게.

기타

107092 @ 아까 물어본 거 말고 다른 거 주로 드시는 음식 뭐 잇어마씨?

107092 #1 뭐 다른 거 없어. 먹는 거 다 나와신게.

8. 주생활

구조

108001 @ 집 지었던 경험 이수짱?

108001 #1 경험은 없주마는 대부분 알긴 알지.

108002 @ 집 종류는 뭐 잇어마씨?

108002 #1 기와집이나 초집이나 양철집이나 있주게. 양철집은 토담으로 덮은

거.

108003 @ 집채 종류는 아는 거 있어마씨?

108003 #1 이게 안거리고 저게 모커리고. 옛날엔 창고영 하는 게 없었거든. 큰 집 옆에 지서 있는거 모커리 바로 앞에 지슨 거는 박거리.

108004 @ 삼간집 짓는 과정 아서마씨?

108004 #1 초가삼간집이 무사 초가삼간집이라하면은 방이 세 칸이라. 방이 세 칸이니깐 초가삼간이라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별다른게 없어. 만드는 과정이야 좌좌 우향이나 건선이나 입명 따라그넹 만들면 되는거주게.

108005 @ 주춧돌은 뭐팡?

108005 #1 주춧돌은 이게 이 지둥이라 말이다. 이게 사 지둥이라 하거든. 옛날 도 사 지둥이 들러야 돌이 바른다는 거주게. 사 지둥은 위에 있고 밑에 놓는 게 주춧돌이라. 밑에 돌 이와같이 심는 게 주춧돌이라. 주춧돌 위에 있는 게 지둥이고. 지둥 위에 포. 대들포. 그리고 옆에 상모로.

108005 @ 도리는 뭐팡?

108005 #1 도리는 이 지둥과 이 지둥 연결한 게 도리.

108005 @ 그럼 보는 뭐팡?

108005 #1 가로로 하는 게 포고 세로로 하는 게 도리라.

108006 @ 외, 산지, 인방, 반자들에 대해 들어보션마씨?

108006 #1 그건 못 들어봐서.

108007 @ 방 종류에 대해서 알아줍서.

108007 #1 방에 종류는 별다른 게 없어. 농촌이니깐 초가삼간이니깐 방이 세 개 주게. 큰방, 마루, 작은방 그렇게.

108007 @ 그럼 옆이 있는 이걸 뭐라 해마씨?

108007 #1 옛날은 백장이라해서.

108007 @ 이불 놓는 곳은 뭐라해마씨?

108007 #1 이불 놓는 곳은 백장이라 해서.

108008 @ 마루에 대해 알아줍서.

108008 #1 초가삼간이니까 마루는 어디든지 하나. 마루에는 여름에 잠 자기 좋은 곳이주게.

108009 @ 고방에 대해 말해줍서.

108009 #1 청방이지. 청방은 죽은 구들 옆에 붙은 게 청방이야. 이 구들 옆에 붙은 게 안방이고. 안방에는 뭐가 들어가면 그릇, 향아리. 옛날에 향아리 같은 거 놔야만이 쌀 아저강 먹었거든. 그래서 그게 안방이고. 청방이런 헛는 거는 부엌에서 반찬이나 뭐나 해 먹으려면 부엌에 못 놔두니깐 청방에 두는 거고.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거든.

108010 @ 부엌에는 뭐 있어마씨?

108010 #1 솔, 물항. 물항이 향아리를 부엌 옆에다가 아래 돌멩이 깔아놔서 물

을 허벅에 지어서 거기에 비와. 그게 물항아리라.

108011 @ 문설주도 알아마씨?

108011 #1 문설주는 안들어봤져.

108012 @ 문 또는 창문에 대해 글아줍서.

108012 #1 이게 창문이고, 옆으로 여는 게 지게문이라. 창문, 지게문, 대문. 대문은 마루로 나가는 게 대문.

108013 @ 호령창 알아마씨?

108013 #1 대문 옆에 대정 들어가면 요만큼 만든 게 있어. 작은 문 같은 거 만든 것이 호령창이주게. 그 문 열어가지고 불튼단 말이여. 호령을 불려. 이제는 그 문 보고 개창이라하주게. 고산에도 옛날에는 호령창 있어신디 요즘은 없어.

108014 @ 굴물은 뭐짱?

108014 #1 이 집 가운데로 호마리가 이렇게 단 돌을 양쪽으로 이렇게 다댐어. 다지고 연기통은 일로도 빼고 절로도 빼져는디 바우로 빙 하게 홈을 둘러졌어. 그 사이는 문딱 흙 묻어 놓고 연기가 걸로만 빠져나가게 만든 것이 굴목이주게. 굴목에는 ㄴ시래기나 소똥 똥 넣어서 태우주게.

108015 @ 풍채도 알아마씨?

108015 #1 풍채는 초집에 이렇게 이 넓이로 한 10미터 쪽 해서 돌아. 비가 오면은 비 못 뿌리게 만드는 거주게. 작대기 세왕 집에 물이 안들어오게 만드는거주게. 방안 안 젖고 바깥에 물이 나가는 것이 풍채주게. 쇠 풍채는 이 넓이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쇠로 엮어서 막는게 쇠 풍채주게.

108016 @ 물팡도 알아마씨?

108016 #1 물팡은 물 부엌 옆이 요 높이로 돌을 놔. 돌을 놓면 부인들이 허벅을 거기다 부려. 물 지어다가 거기다가 부으니까 그게 물팡이라.

108017 @ 골목도 알아마씨?

108017 #1 우리 들어오는 골목이 그게 골목이주게.

108018 @ 문간채는 들어보션마씨?

108018 #1 문간채는 안 들어봤다.

108019 @ 가리 터 들어보션마씨?

108019 #1 가리 터도 모르켜.

108020 @ 도새기 우리에게 대해 글아줍서.

108020 #1 통제는 보통 큰 방 옆으로 돌아가서 통제를 판단 말이여. 통제 한 일미터 정도 파. 파가지고 한 쪽에다가 돼지 집을 지서. 옆으로는 돌담으로 백을 만들어. 거기다 도새기들 놓으면 거기가 통제.

108021 @ 변소는 어디다가 만들어마씨?

108021 #1 통제라는 것이 변소라. 사람 앉아서 만들주게.

108022 @ 헛간은 어떻 만들어마씨?

108022 #1 창고보고 헛간이라 하주게. 외양간은 쇠 들어노면 외양간이고.

108023 @ 삼촌 외양간 있잖아예? 쉼 키우는 데 여기서 뭐라해마씨?
 108023 #1 쉼막.
 108023 @ 쉼막 만드는 거나 쉼막에 대해서 아는거 얘기해줍서.
 108023 #1 쉼막 만들려면 따로 벨도로 지어. 옛날은 쉼막은. 별도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출도 주고 물도 댈여주고 그게 쉼막이고.
 108023 @ 여기는 쉼 한마리 키우니깐 쉼막도 하나잇어마씨?
 108023 #1 으 하나.
 108024 @ 장독대는 어디다 두션마씨?
 108024 #1 장 담아 놓는 데가 장독대고. 부엌에다가 놓주게 보통.
 108025 @ 춤이나 춤향에 대해 글아줍서.
 108025 #1 그건 잘 모르켜.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초가 지붕이기 알아마씨?
 108026 #1 초가 지붕 이인다고. 각단이라는 것이 잇어. 새하고 각단. 각단으로 줄을 놔. 그래가지고 새 덮어가지고 그걸로 묶으면은 초가삼간 되는 거주게.
 108026 @ 초가 지붕이기 언제 언제 해마씨?
 108026 #1 시월달에. 이 지붕잇는 거는 시월달로부터 시월달에는 새가 들어오거든. 새가 들어오면은 즉시 잇는 집도 있고 정월달에 잇는 집도 잇주게. 브람 어신 날에 지붕이기 하주게.
 108027 @ 새랑 각단이 뭐마씨?
 108027 #1 새하고 각단이 틀려. 잘개 묶은 게 각단이고, 또 이렇게 바로 놔가지고 한 게 새고. 각단은 보통 줄놔. 새는 밧에 느풀느풀 하게 나는 잎파리로만 아무 것도 없이 나는 것은 새고 요만큼 나는 것은 각단이라 하주게.
 108028 @ 집줄에는 뭐 잇어마씨?
 108028 #1 집줄은 진 줄 짝른 줄이 잇주게. 지력지력 묶으는 게 진 줄이고, 옆으로 영 ㄱ로 묶으는 게 짝른 줄이주게.
 108029 @ 묶을 때 쓰는 연장에는 뭐 잇어마씨?
 108029 #1 연장들지 았으며. 집 안에 거왱이 잇어. 호랭이나 뒤치기는 뭐라?
 108030 @ 평고대 들어보션마씨?
 108030 #1 평고대는 잘 모르켜.
 108031 @ 집줄 매기 어떻해마씨?
 108031 #1 집줄 매기는 양쪽으로 사람 하나 씩 서서 둘이 그 집줄 오는 것을 양쪽에서 당겨.
 108032 @ 쓰다 집줄 남으면 어떻 써마씨?
 108032 #1 찢라부러. 찢랑 놔두면 또 집줄 할 때 하시른 하고 옛날에는 부엌 같은데 았을 수 잇는 줄방석 같은 거 만들었주게.

연장

108033 @ 집 지을 때 쓰는 연장을 뭐 잇어마씨?

108033 #1 있주마는 거 어떻게 일일이 알아져?

108033 @ 초가집 지을 때는 뭐가 제일 많이 써마씨?

108033 #1 나무가 제일 많이 들지. 나무하고 돌. 자귀, 톱, 끌 그거 쓰주게.

108034 @ 톱은 종류가 뭐 잇어마씨?

108034 #1 톱은 대톱, 소톱 있주게. 대톱은 날이 굵은 거고 소톱은 날이 좁은 거고.

108035 @ 못빼기는 뭘로 해마씨?

108035 #1 못빼기는 쇠로 만들어져 나와. 장도리는 고양이 뿔로 하는 거지 안되어. 배척은 모르켜.

108036 @ 대패는 언제 써마씨? 대패 종류는 뭐 잇어마씨?

108036 #1 대패는 종류가 없어. 대패는 이론 문짝 들 옆에 밀 때 쓰는 거주.

108037 @ 자에 대해 알아마씨?

108037 #1 우리 치수 재는 거에 쓰는 거주게. 옛날에는 막대기로 이만큼 한 걸로 치수 잴주게. 그 때 괄살 하나가 한 치라. 그게 열 두개가 한 자라.

108038 @ 떡통이랑 떡줄에 대해 알아줍서.

108038 #1 떡통이영 혼 거는 한 쪽에는 도래기 있고 한 쪽에는 물 들어가는 데 있고. 거기 떡물이 옛날엔 먹이 귀해놓으니깐 꼬실떡을 것에 담아. 계면 그걸 실을 잡아 댕겨. 그거 허는 게 떡통이라. 떡줄이고 떡통은 같이 붙어있주게.

108039 @ 흙손이나 흙받기 알아마씨?

108039 #1 흙손은 옛날말이주게. 흙 불리는 거. 흙받기라는 건 영 받앙 쓰는 게 그거주게. 그 때는 나무로 손으로 해서.

9. 신앙

109001 @ 집마다 신이 있다는 데 가신 아는 거 얘기해줍서.

109001 #1 여기 토신제니 뭐니 제는 지내.

109001 @ 토신제를 지내마씨?

109001 #1 토신제는 뭐냐하면 거 옛날부터라도 땅 임자가 있다는 거라. 우리가 집 지성 살아도. 뭔가 일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주게. 누구나나 하는 거는 토신제 지내고. 또 뭔가 집 지어난 그 때도 토신제 하는 사람 있주게. 이게 집은 우리가 지성 살지만은 옛날부터라도 땅은 임자가 딴 거라는 거라.

109002 @ 성주에 대해서 말해줍서.

109002 #1 집을 일단 다 지어서 모치면은 이디나 저디나 집 지성 사람이 살게

되면은 성주풀이라고 목시하나 부르고 또 제사를 지내주게. 제사 지내가지고 끝날 무렵에 그걸 하는 시간이 있어. 계면 강태공 서목시가 옛날에 집 지슨 할아방이주게. 그 사람이 다니면서 도치로 이낭도 찍고 저낭도 찍고 어여 들어서다 어여 들어서다 하명 찍는 게 뭐 때문에 찍는가 하면 귀신 돌아나라고 하는거주게.

109003 @ 그럼 문전은 뭐 말하는 거마씨?

109003 #1 문전은 더 들어오는 데. 너가 들어올 거 아니냐. 너가 문전박대 하지 말라고 문전이라고 하는 거라.

109004 @ 조왕은 뭐마씨?

109004 #1 우리가 라면 끓여 먹지 않냐? 그게 조왕으로 들어가는 거고.

109005 @ 칠성에 대해 아는 거 있어마씨?

109005 #1 북두 칠성으로 올라오지 않느냐? 이 집에서는 이디가 칠성이주게.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정월 명절에는 뭐 해마씨?

110001 #1 정월 명절은 내일. 제사 지내주게. 제사 때고 명절 때고 상에 올라가는 건 똑같아.

110001 @ 정월 명절 때 특별히 한 거 었언마씨?

110001 #1 도배. 도배는 노인들 전부 이 회관 같은 데 모영 앉혀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음식 차려가지고 대접하고 거기서 밑에 애들이 절 하는 게. 옛날엔 이 집 저 집 찾앙 땡겨났주게. 지금은 경은 안하지만 모다가지고 절 허주게.

110002 @ 정월 대보름 얘기 좀 해줍서.

110002 #1 정월 대보름에야 보통 사람이 자기 수명 자기 앞 일년 살아갈 재수를 본다고 정월 대보름 씌우는 거주게.

110003 @ 방사랑 액막이는 들어보션마씨?

110003 #1 액막이? 액막이는 그 사람 어디가서 액막 탕다하면은 집에서 액막이 하는 게 굿 하는 게 액막이주게. 방사는 모르켜.

110004 @ 포제는 아시는 거 있어마씨?

110004 #1 포제영 하는 것도 었언.

110005 @ 안택은 알아마씨?

110005 #1 안택도 모르켜.

110005 @ 집안에 모시는 신에 대해서 무당 불령 하는 거 없언마씨?

110005 #1 코시영 하는 거 있지. 일년에 한번씩. 옛날은.

110005 @ 그건 언제해마씨?

110005 #1 정월달에 하주게. 코시영 하는 거야 날 받아가지고 어느날 좋다 하고

날 받으면은 저 신방 있잖아. 신방한테 가가지고 날짜를 중단 말이야. 얘기를 하면 그 신방이 와서 뭐 뭐 물자 드는 거 얘기를 해줘. 해주면은 부인은 그 말을 들었다가 와서 물자를 다 준비하면은 이제 신방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제 벌여가지고 밤새껏 이제 그 집에 우를 비는 거지. 우를 동당동당하면서 뭔가 해주게. 대부분 집허여. 그거 안하면 토신제 하고.

110006 @ 보리밭 밟기는 언제해마씨?

110006 #1 보리밭 밟기는 이월달. 사람 밭로 밟는 거주게.

110007 @ 걸궁에 대해 아시는 거 잇어마씨?

110007 #1 정월달에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북 두드리면서 뭔가 돌아댁기는 게 걸궁이주게. 그거 돈 얼젠 허는 거주게. 부잣집에 강 걸궁하면 돈 내놔야주게. 옛날엔 여기도 있었주게.

110008 @ 입춘이나 우수는 아시는거마씨?

110008 #1 입춘은 새대는 게 입춘이주게.

2월

110009 @ 영등에 대해 곱아줍서.

110009 #1 영등이영 혼 게 뭐냐면은 소 하고 물 있는 집에 뭐 막대 소리나 뭐 두드리는 소리 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영등 할망 들어오는 날은 온갖 바다에 그 미역씨나 전복 소리 씨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영등 할망 청해가지고 이월 7일에날 하면은 보름날까지 하는 거주게. 보름날 그걸 완료해가지고 영등 할망 들어옵서할 때 받아들이고 나갑서 혼 저 갑서예 해그넹 보름날 나감주게. 그 때는 밧에 흙도 파지 말고 소 이신디 두드리지 말고. 들어오는 날 며칠 동안 안하는거주게.

110010 @ 경칩이나 춘분에 말해줍서.

110010 #1 경칩이나 춘분에 뭐하는 건지는 난 몰라.

3월

110011 @ 한식 명절 알아지쿠과?

110011 #1 그건 청명이라. 청명에는 뭔가 그 산에 조상에 조상산에 풀 비는 날. 왜 풀 비면은 그날 풀 비어 불어야 팔월 달에 깨끗허주게. 풀 비는 게. 청명에는 아버지 산이나 할머니 산이나 가그넹 풀 비어불어야 허주게.

4월

110013 @ 사월 초파일에는 뭐 하셔마씨?

110013 #1 사월 초파일 석가모니 탄생날이고. 사월 초파일에는 영등이라고 불 드는 날이고.

110014 @ 입하나 소만에 대해 말해줍서.

110014 #1 뭐 특별한 거 없어.

5월

110015 @ 단오 명절 기억나시는 거 있어마씨?

110015 #1 단오 명절은 옛날은 해서. 보리 갈 때 그 정성으로 해주게.

110016 절기: 망종, 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6 @ 망종, 하지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마씨?

110016 #1 망종이랜 혼 거는 곡식을 베는 거주게. 망종에. 벼 사월 망종엔 보리를 비어 깔고 오월 망종에 썬 먹는다고 보리가 익으면은 사월 망종에는 썬 먹주게. 오월 망종에는 보리가 늦어부러.

6월

110017 @ 닭 잡아 먹는 날 있어마씨?

110017 #1 어. 유월 스무날. 그 보신 하면은 그 해에 몸이 건강해 나간다고. 삼복 더위량은 다르주게.

110018 @ 그럼 삼복에는 뭐해마씨?

110018 #1 삼복이라 하는 거는 제일 더울 때.

110019 @ 소서나 대서 알아마씨?

110019 #1 건 뒷에 쓰는 건지 모르켜.

7월

110020 @ 칠월 칠석에 대해 알아줍서.

110020 #1 칠월 칠석 날은 옛날도 하늘에서는 내가 있어 내. 칠석날은 오작교라는 거 알지? 오작교로 다리를 놓고 뭔가 칠월 칠석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인디. 오작교라는 건 가마귀야. 가마귀가 드리를 놔 머리로. 드리 노면은 머리뺨이 벗어져부러. 게가지고 노래가 있어. 칠월이라 칠석날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건만 우리와 본님은 어디가서 날 떠날 줄 모르나.

110021 @ 백중제도 알아마씨?

110021 #1 칠월 십사일날 있주게. 백중제는 그제 백 가지 검질이 없어진다고 백중제 하면은.

110022 @ 모래찜도 알아마씨?

110022 #1 모래찜이라 하는 거는 검은 모래 양물에 막 더우면은 걸 파서 사람 들어가가지고 우에 모래를 막 시켜줘. 검은 모래에서 해야 되여. 몸 수두룩이 아플 때 허는 거주게.

110023 @ 물맞이도 알아마씨?

110023 #1 백중에 물맞는 거주게. 그날 물 맞으면 그것도 몸이 건강하라고 물맞는거주게. 우리 고산에는 요기 가면은 이런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거기강 물 맞주게.

110024 @ 입추, 처서는 알아마씨?

110024 #1 입추, 처서는 뭐 하는 줄 모르켜.

8월

110025 @ 별초는 언제 해마씨?

110025 #1 7월 절기만 들어오면 허여. 원칙으로는 8월 1일날 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7월 달에 허주게. 별초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게 이때주게.

110026 @ 팔월 명절에 대해 알아줍서.

110026 #1 팔월 명절이야 다 그게 그거주게.

110027 @ 백로, 추분 아시는 거 잇어마씨?

110027 #1 백로는 아는데 추분은 모르켜. 백로야 허영훈 거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건 줄은 몰라.

9월

110028 @ 백로나 상강에 대해 아시는 거 잇어마씨?

110028 #1 것도 모르켜.

10월

110029 @ 입동이나 소설에 대해 아시는 거 잇어마씨?

110029 #1 것도 모르켜. 벨도로 준비하는 거 없어 농촌에선.

11월

110030 @ 동지 팔죽 아는 거 얘기해줍서.

110030 #1 동지 팔죽은 다 그게 그거주. 추우니까 동지 팔죽이라 허는 거주게.

110031 @ 납평날은 알아마씨?

110031 #1 득 잡아 먹는 날. 몇 월 달인지는 잘 모르켜. 옛 해 먹는 날. 득으로. 약으로 먹는 거주게.

110032 @ 대설이나 동지 때 뭐해마씨?

110032 #1 그거 말만 들었지 뭐 하는 거 없어.

12월

110033 @ 신구간에 대해 얘기해줍서.

110033 #1 신구간이 이승에서 귀신들이 다 있다가 신구간은 귀신이 올라가서 바깥 차례거든. 그 올라간 순간을 보고 신구간이라고 흥하는 거라. 아무 거나 해도 걱정이 없다고.

110034 @ 이사 갈 집은 어떻게 구해마씨?

110034 #1 어떻게 구하기는 빈집 알아봐서 구하는 거주게.

110035 @ 이사갈 때 뭐 가지고 가마씨?

110035 #1 처음에는 요강. 그게 요강이 여자들 오줌 누는 요강이 그게 방법이라.

110036 @ 새로 집 이사하면 사람들 초대하고 음식 좀 대접하고 그런 걸 뭐라고 해마씨?

110036 #1 그거는 별다른 게 말이 없어. 그 일름이 지와진 건 없어. 그냥 집 서가지고 뭔가 미안하면 새 집 지을 적에 그 사람들 수고하니까 그자 청해가지고 술도 대접하고 밥도 대접하고 그거 밖에 없어. 벨 이름이라는 거 없어.

110037 @ 새로 집 지었을 때 동네 사람들 불령 대접할 때는 어땠어마씨?

110037 #1 그 때는 우리 먹는 거나 마찬가지. 술에 밥에 돼지고기 행 그냥 썰어가지고 술안주로 내놓고. 있는 음식은 그디서 다 나눠 먹주게.

110037 @ 그럼 옆집에서 그런 거 할 때 선물 같은 거 주지 않아마씨?

110037 #1 그 집 뭐 선물 없어.

110038 @ 언제가 소한, 대한이고 그 때랑 뭐하선마씨?

110038 #1 소한, 대한이야 지금도 하는 거지만은. 소한에 나간 사람 뭐 대한에 못 돌아온다 이렇게 해주마는.

110038 @ 거 무슨 말마씨?

110038 #1 대한, 소한에 나간 사람 기다리지말라고. 추우니까 길에서 죽는데. 옛날은 걸영만 다니니깐. 옛날은 제주시도 걸영 갔다왔주게. 대한, 소한에 나가서 잘 못하다장 죽는다 이거야. 기다리지 말라고.

11. 놀이

111001 @ 예전에 어리셨을 때 무슨 놀이 하신 거 잇어마씨?

111001 #1 놀이 없어. 살기가 바빠버리니깐 우리 클 때는 한가하게 놀러 땡기는 게 엇언.

연(鵝)

111002 @ 연은 그럼 날려보션마씨?

111002 #1 날려도 보고 만들어도 보고.

111002 @ 연은 종류가 뭐 잇어마씨?

111002 #1 성연, 게오리 그거 두 가지 밖에 엇언. 게오리라는 건 이렇게 된 게 게오리고, 성연이라는 건 XXX한 거 들 딱 붙이고 대가 다섯괘가?

111003 @ 그럼 연은 어땠 만들어마씨?

111003 #1 그 대에 따라가지고 이제 창호지라는 거 알아져? 창호지 그거 만들 계끔 잘라내어. 잘라내어 대에다가 풀 붙라가지고 붙이주게. 가운데 고양이다가는 그 종이 딱 붙여놔서 그새로 딱 가운데만 잘라. 자르면 고양이 나와. 경행 만드는

거.

111005 @ 연싸움은 어떻 헨마씨?

111005 #1 연싸움은 연이 두 개 되거든. 저 쪽에서도 열고 이 쪽에서도 띄우면은. 만드는데 성질에 따라가지고 달라지주게. 싸움이라는 거는 그 연이 이 쪽 연줄 감양 나가. 감아정 나가면 서로 훑으기 시작하여. 훑으면 끊어지는 데가 지는거주.

제기차기

111007 @ 제기차기도 만들언마씨?

111007 #1 제기는 종이 영 놔가지고 말았어. 가운데만 내버려두고 찢라. 찢르면은 탁 풀어서 옆전 가운데 놔가지고 돌아. 돌아가지고 실로 딱 묶어. 그렇게 하면 제기가되는거주게.

111008 @ 그럼 제기차기 종류는 뭐 잇어마씨?

111008 #1 그거 하나. 하나밖에 없언. 양발이나 한발이나 마찬가지로주게. 한발로 하나 양발로 하나 하나 둘 서이 세니깐 마찬가지로주게.

111009 @ 제기차기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거짱?

111009 #1 많이 차는 게 이기는거주게. 것도 옆전 담아가지고 거 이제도 하는 거 아니라.

자치기

111011 @ 자치기 종류엔 뭐 잇어마씨?

111011 #1 자치기는 자치기주게.

111012 @ 자는 어떻 준비해마씨?

111012 #1 요만한 나무에 또 요만한 나무에 또 여기 이렇게 놓으면은 딱 때리면 멀리강 떨어지거든? 그럼 그걸 채는 거라. 그 때린 걸로 채서 몇 자다 하는 거라. 아무 나무나 되여. 소나무도 되고.

111013 @ 자치기는 누가 이긴 거 어떻 알아마씨?

111013 #1 자치기영 한 게 자엔 한게 뭐 때문에 나온지 아나. 요만한 게 막대기가 자거든. 이 자가 많이 판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 여기서 딱 때리면은 이게 놀아 간단 말이여. 놀아가면은 떨어진대 가서 채서 많이 판 사람이 이기는 거지.

말타기

111015 @ 말타기 종류는 뭐 잇어마씨?

111015 #1 사람에 앞이 하나 사고 그 짹짹이 하거든. 반 갈라가기서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은 너이나 다섯이나 굽어. 굽으면은 절로 올라타면서 사람 위에 몰타는 거라. 뭔가 가위바위보 허영 허는 거주게. 장칸보시기. 옛날말로 장칸보시기 허영지면은 또 굽고 이긴 사람은 또 타고 경허는 게 말타기라.

111015 @ 죽은말타기나 생말타기 대말타기는 들어보션마씨?

111015 #1 그런 건 엇언.

구슬치기

111020 @ 다마는 어떻 어디서 준비했마씨?

111020 #1 다마는 그건 푸는 거니깐.

111021 @ 구실치기 종류 이수광?

111021 #1 다마 종류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색깔 벗겨진 것도 있고.

111022 @ 구멍치는 어떻 하는거마씨?

111022 #1 푸는 거니까 서이면 서이 너이면 너이 다섯이면 다섯 다섯 고망을 요만씩 파. 구실 여기 놔가지고 테와. 테와가지고 동그랴게 판 디 거기 하나씩 하나씩 들어쳐. 들어쳐 못 들어가면 지는거라.

딱지치기

111028 @ 딱지는 어떻 준비했마씨?

111028 #1 빠징치기. 빠징은 옛날은 그랬주게. 골런 꺾테기. 골런 꺾테기를 뱅 돌아서 끊어. 지금은 네모나게 해서 치는디 옛날은 동글락 동글락하게 끊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 디 그걸로 이렇게 치면서 얹어져불면 그걸 따 먹고 또 솔 짝히 들어가도 그거 따 먹고 정허는 거주게.

111029 @ 딱지치기 종류는 몰라마씨?

111029 #1 그거 한 개뿐이라.

111030 @ 딱지치기는 어떻했마씨?

111030 #1 빠징치기. 옛날은 지금은 아무렇게나 만들었주만은 옛날은 동그랴게 만들엉 그걸로 빠징치기를 허여. 이렇게 치면 영 해영 낱 이게 치면은 푹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이 사람이 또 딱 쳐서 이거 대싸져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숨바꼭질

111032 @ 숨바꼭질은 옛날에 뭐라고 했마씨?

111032 #1 곱음잡기.

111032 @ 그럼 그건 어떻게 하션마씨?

111032 #1 여기서 이 뭔가 지경 밑에 영 서가지고 이제 영 뭐 한 사람이 사가지고 눈 깜양 하나 둘 해서 열까지 세영 그 사람이 영 건드령 하기 전에 들어오면 산 사람이고 그 사람 강 좇양 때리면 그건 죽은 사람이고 경행 죽은 사람이 또 다음에 여기 서그넝 해주게.

111033 @ 그럼 맨 처음에 찾는 사람은 어떻 정해마씨?

111033 #1 거기서 알양 정하는 거주게. 그 방법은 없어. 거기서 좀 약한 사람.

111034 @ 그럼 주로 어디 숨으션마씨?

111034 #1 초집이야 이런 눈썹 같은디 놀른 그 사이 틈틈이 그런 데 곱았당 나오주게.

111035 @ 숨바꼭질 할 때 주로 숨는 데가 어디잇언마씨?

111035 #1 그거는 이디 집 안에서는 못 찾을 데가서 숨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 말이 그말이주게.

실뜨기

111036 @ 실뜨기 하션마씨?

111036 #1 실뜨기는 모르켜.

공기놀이

111041 @ 공기는 어떻 준비헤마씨?

111041 #1 우리 할 적에는 돌로. 돌로 그걸 뭔가 모상 망치새끼로 아무 쇠로나 뭐나 돌맹이 주성 동그랴게 모사가지고 그거 공기치기 하는 거주게.

111042 @ 공기는 어떻 하는거마씨?

111042 #1 다섯 개. 영 데껴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하나 잡양 또 이렇게 잡고 또 던정 두 개 잡양 이렇게 잡고 한 게 이게 다 잡아지믄 이기는 거고 떨어지믄 지는 거라.

고누

111044 @ 고누는 알아마씨?

111044 #1 고누는 몰라.

땅뺏기

111049 @ 사기그릇 깨진 걸로 땅 그으는 거 있잖아예. 그 사금파리는 어디서 준비해마씨?

111049 #1 아이들 댕기당 봉가당 주서당 했주게.

111050 @ 땅따먹기는 어떻 하는 거마씨?

111050 #1 그것도 뭔가 여러 가지가 있주게. 이렇게 손으로 태와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상대방 이게 물이라고 하주게.

111050 @ 말은 뭘로 만들언마씨?

111050 #1 그거는 고동 꺾테기 있잖아. 동글락 혼 거. 그걸로 많이 사용허여.

111051 @ 땅따먹기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마씨?

111051 #1 땅 없으면 이기는 거지 뭐. 이게 전쟁하는 식이랑 마찬가지로.

웃놀이

111053 @ 웃가락은 어떻 만들언마씨?

111053 #1 옷가락 만드는 식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큰 장작웃은 그 때는 없었
주게. 즈른 거 밖에 엇언. 곧장 올라온 걸 요만씩 끊어. 끊어가지고 반을 쪼개어. 쪼
개서 만드는 거주게.

111054 @ 옷가락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마씨?

111054 #1 동백나무로 만드는거주게.

111055 @ 종지랑 옷판은 어떻 준비하셧마씨?

111055 #1 종지는 흰 종지 요만큼 있다. 그거 담아가지고 그걸로 던지주게.

111056 @ 옷놀이 종류는 아시는거 잇어마씨?

111056 #1 옷놀이 종류 그거 하나밖에 아니야.

111057 @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짱?

111057 #1 일루 물이 가거든. 도면 하나 놓고 개면 두 개 놓고 거행 다섯 개 일
루 전부 돌아그넹 나오는 데가 이기는 데라.

팽이치기

111059 @ 팽이는 어디서 준비했마씨?

111059 #1 팽이는 나무가 요만큼 초담 나무 끊어놔 이런 코쟁이 만들어. 코쟁이
만들엉 요만큼 되게행 우로 끊어. 끊어가지고 나무를 요만하게 만들어. 옛날은 물로
레기라고 허여. 형짚 버린거. 그거 묶엉 걸로 영영 감거든. 감양 확 잡아댕기면 그
럼 그게 돌아. 돌면은 그 이걸로 때리면 돌아. 팽이가 이런 낭이라도 이래 멘딱 모
사리 멘딱 만들어놔 맨들레게 동그랴게 만들어놔 꼬트머리에다가 못 박는 사람은
못 박고 안 박는 사람은 안 박고 행 만들주게.

111060 @ 팽이 종류 아는 거 잇어마씨?

111060 #1 종류는 그거 하나.

111061 @ 팽이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마씨?

111061 #1 그것도 동백나무나 속굽는나무. 참나무는 속이 없는디 참나무로 팽이
만들주게.

111062 @ 팽이 잘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마씨?

111062 #1 잘 돌리면 이걸로 잘 쳐야지. 그걸로 해그넹 돌이가 팽이싸움 붙이주
게.

111063 @ 팽이치기 할 때 팽이채는 어떻 준비해마씨?

111063 #1 몽둥이 요만한 거 해가지고 꼬트머리에 뭔가 험벅 딱 묶엉 팽이를
이렇게 감양 확 잡아 댕경 그걸로 때리면 이제 팽이가 제대로 돌아가. 요만한 나무
로 만들주게. 줄은 아무줄이라도 되는다.

111064 @ 팽이 싸움은 어떻게 마씨?

111064 #1 싸우는 거는 느랑 나랑 팽이를 돌리면은 마주 부데경 쓰러지는 것이
지는거라.

굴렁쇠

111066 @ 굴렁쇠도 혹시 해보셨마씨?

111066 #1 옛날에도 자전거가 있었거든 그래서 자전거 바꾸로 보통 해주게.

111067 @ 굴렁대는 어떻 준비해마씨?

111067 #1 대는 거기저 끄트머리 대 끄트머리에 이렇게 된 그 철쇠가 있어. 철쇠 이렇게 오그려. 오그려가지고 대나무에다 그걸 묶어.

(깡)통차기

111069 @ 깡통은 어떻 준비해셨마씨?

111069 #1 길거리에 있는 소리나는 거면 다 되여. 옛날은 지금같은 깡통은 없었주게.

111070 @ 깡통차기는 어떻하는거마씨?

111070 #1 사람 다섯이면 다섯 열이면 열. 깡통 여기 딱 노민 발로 이걸로 차거든 차면 멀리나가거든 나가면 돌아 멀리 들주게. 뭐 험 사람이 저거 누게다 하고 이름 부르면 그 사람 죽는거라.

‘뺨기치기’

111072 @ 뺨기치기는 어떻하는거마씨?

111072 #1 지금 새 있잖아. 새. 새 낳기 전에 새 요만씩 할 때 뺨기가 나온다. 뺨기가 나오면 이 거 먹음도 한다. 먹음도 하는데 그걸 뽑아다가 너 요만큼 주고 나 요만큼 주면은 뺨기가 네 개로 이렇게 뺨 돌리면 구녕이 난단 말이여. 구녕이 나면 거기 찢르면 그걸 세어. 세가지고 열개면 열개 다섯 개면 다섯 개면 너한테로 내가 받아온단 말이여. 그게 뺨기치기라.

111073 @ 그건 누가 이겼는지 어떻 알아마씨?

111073 #1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뺨기치기 할라면은 큰 뺨이 네 개나 다섯 개 나오거든. 뺨기치기하면은 너도 몇 개 가졌다 나도 몇 개 가졌다 하고 그걸 따오는 거라. 이제 이렇게 팽 동그리면 이렇게 집이 나와. 요 선이랑 요 선을 건드리면 지는 거라. 그 선에 맞게끔 걸치지 않게끔 뺨이영 하는 게 건드리면 못 따오는 거고 안 건들면 숫자를 세어서 이제 열개면 열개 받아오는 게 뺨기치기. 그게 따오는 거라.

줄넘기

111078 @ 줄넘기 해보셨마씨?

111078 #1 줄넘기야게. 뭐 거야 아무나 하는 거니깐. 그거는 나 열 살 열 세 살 적에 많이 해났주게.

‘한다리인다리’

111082 @ 한다리인다리가 뭐마씨?

111082 #1 한다리인다리 개천다리 뭐하면 맞은 데는 짐저. 짐저불면은 뭔가 내중 간 사람은 진 사람이지. 내중 하나라도 오그리지 못하면.

111083 @ 한다리인다리할 때 부르는 노래 잇어마씨?

111083 #1 한다리인다리 개천다리 수트린 다리 허멍 부르주게.

111084 @ 어떻게 승부를 가려마씨?

111084 #1 이 다리를 하나라도 남은 사람이 이시믄 지는거라. 한다리인다리 개천다리행 뭔가 이거 다리 하나라도 남은 사람이 지는거라.

12. 통과의례

출생

112001 @ 옛날에 태교는 어떻게마씨?

112001 #1 태교랜 흔 거 애기봇 아니냐.

112002 @ 출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어디서 출산했마씨?

112002 #1 옛날은 병원 같은데 없거든, 애기를 열두달 벤 다음에는 날 고비를 안 단 말이여. 나게 되면은 이런 방에 보리때, 보리낭 그걸 폐와서 애기 날 때는 거기서 애기를 나는 거주게.

112003 @ 애기 낳을 때 누가 도와줘마씨?

112003 #1 거기는 여자가 애기 낳주는 사람이 이셨주게. 동네애 하나씩. 시간 봐가지고 애기를 보면서 나오게 되면 그 할망이 쓸어주면서 애기를 받게끔 만들어 주주게.

112003 @ 애기 날 때 태와 탯줄은 어떻게 처리해마씨?

112003 #1 태와 탯줄은 슬아부러. 불태와부러. 그게 약으로도 들어가. 약이 폐병에 약으로 들어가주게.

112003 @ 삼촌도 자식 낳을 때 태와 탯줄을 자르지 않으셨마씨?

112003 #1 그 남자 안 잘라. 애기 나러 온 할망이 잘라가지고 실로 해가지고 묶을만이 묶어. 그걸로 해그넹 묶어서 톱 놓주게.

112004 @ 산모 음식 뭐 먹여마씨?

112004 #1 미역국.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제도 미역국이라서. 탄 국은 안해줘서. 미역국을 먹으면은 젓이 빨리 나와가지고 아기 젓 물기 좋다해서 미역국을 먹였주게.

112005 @ 아기 나오면 목욕은 언제 시켜마씨?

112005 #1 목욕시키주게. 애기 낳는 할망이 발만 들렁 때리주게. 거기서 뜨신물 해그넹 썩을 삶양 그 물에 애기를 담강 목욕시키주게.

112006 @ 깃저고리에 대해 알아줍서.

112006 #1 깃저고리라 혼 게 애기 깃 낱양 모욕허영 입히는 게 깃저고리주게. 집에서 애기 어멍이 만들어. 손 나오게 안허여. 왜 그리냐면 애기가 이렇게 하다가 손으로 긁져버릴 수 이시난 길게 옷 만들주게. 그걸 보고 옷싸미라고 하주게. 베로 만들어서. 베는 왜 베로 하냐면 나쁜 때가 모욕을 시켜서 뱃겨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만들주게.

112007 @ 할망상이 뭐 말하는거마씨?

112007 #1 애기가 놀다가 어디 박아지나 또 녀 나면은 애기 밤에 같은데 자꾸 울거든. 경허면은 이거 녀났구나 해가지고 동네 허는 사람이 있어. 게면 그 할아방 문전 앞에 들어오는데 쌀 놓고 밥 허여가지고 한 그릇 놓고 해가지고 거기서 신방 할아방이나 할망이 거기서 뭐랜 곧주게.

112007 @ 그럼 할망상은 거기서 뭐팡?

112007 #1 상으로 우리 제사하듯이 상차리는거 말하는거주게.

112009 @ 아기 낳으면 천연두나 홍역 예방은 어떻게하마씨?

112009 #1 할 수 없어. 그건 막지 못했주게. 작은구실 큰구실이 있었주게. 뭔가 큰구실 들어왔찌 하면 애 움직이지 못했주게. 그 두드레기 허벌같이 막 나주게. 그 앞에서 담배도 못 피우고 아무것도 술도 못 먹고. 그 애기 있는디는. 우리 옛날에는 할망이 애기 키우는 할망이 제신할망이라. 그 할망이 둘이거든 이신할망 제신할망. 제신할망한테 이제 이신할망이 빌어 잘키어줍세. 애기 돌아가지 못하게끔 애기 죽이지 못하게끔. 죽영 돌아가불주게 그 사자들이. 게니깐 경허지 못하게 빌어주주게.

112010 @ 출산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는 뭐 있어마씨?

112010 #1 흐지말아야 되는 거? 금기하는 거는 어신디. 애기 날 때 되면은 집에 솔있잖아. 솔뚜껑 물항이랜 허거든 뚜껑 전부 열아놔. 전부 여는데 왜그러냐면 여자 하문이 잘 열어지라고. 그래가지고 열어놔주게. 아기 날 때는 아무말도 하지말고 애기 낳는 할망이 알아서 잘 했주게.

혼례

112011 @ 옛날에는 결혼식 절차가 어떻게하마씨?

112011 #1 옛날이나 지금이나 엇비슷허여. 만약에 느가 여자고 나가 남자면 여기서 중매를 들어가. 중매 들어강 허락을 받아. 허락을 받으면은 신랑 측에서 언제 가겠다고 날짜를 보내줘. 게면 약혼식이나 마찬가지로여서 그게. 중매온 사람이 그 들어강 연세 가져와 연세. 나이를 가져왕 그걸 해서 끝났다가 날짜를 알려줘 결혼 날 짜를. 그면 그날 결혼시키는 거주게.

112011 @ 그럼 결혼식 할 때 순서는 어떻게하마씨?

112011 #1 여자는 멘사포 쓰고 남자는 족두리 쓰고. 게고 저 오면은 서로 절도 하고 상도 놓고 그렇게 해여.

112012 @ 옛날에는 보통 중매 누가 헨마씨?

112012 #1 동네에서 그 집에 친한 사람. 만약에 남자집에서 중매 들어가면은 남

자집에서 그 집에 친한 사람을 뽑고 동네 또 약간 뭐 잘 알고 조금 똑똑한 사람이 해주게.

112012 @ 삼촌 중매한 얘기 좀 해줍서.

112012 #1 중매하면 굳는 말이 있주게. 중매를 하게 되면은 마 동네서 반장이나 아는 사람 친구 집이나 그 집에서 잘 아는 사람이 이젠 내가 저 집에 장게가고 싶으니까 가서 중매를 해줍서 부탁하면은 그 사람이 가서 되면 된다. 아니되면 아니 된다 해서 거기서 확정이 지왕 나오주게.

112013 @ 막편지에 대해서 아는거 있어마씨?

112013 #1 막편지가 그거주게. 막편지영 혼 게 봉투에 날짜 적고 결혼 날짜 적고 봉투에 날짜 써고 돈 놓고 새각시네 집에 가져가. 그게 막편지야. 신부아방한테 신랑아방이 주는 거라.

112014 @ 이바지는 뭐짱?

112014 #1 이제 결혼해난 그 때 거 우리 남자 집에서 처가 집에 갈꺼 아니냐? 처가 집에 갈 적에는 음식을 새로 딱 해 놔다가 그걸 가지고 그 때는 술 한 되. 대병 큰 거 하나하고 도새기 앞다리 하나 놓고 해그냉 이바지를 가져갔주게. 옛날에 야 쓸 혼 말이나 그런거 집에 이신거 가져갔주게. 벨 게 어셨주게.

112015 @ 혼수는 보통 뭐 준비해간마씨?

112015 #1 그 집에 이 아버지 옷, 어머니 옷, 동기간 옷 그거 해가주게. 그게 해가는게 뭐주게. 이불 같은 것도.

112016 @ 삼촌 예장 알아마씨?

112016 #1 예장이영 혼 게 그 서로 초담 가져올 때 좋으냐 구지냐 그걸 적어가리고 보내는 게 예장이주게. 사주가 좋은 지 구진지 적어서 보내는 거.

112017 @ 가문잔치는 뭐 말하는거마씨?

112017 #1 가문잔치는 잔치 전날. 가문잔치에는 권당만 오주게. 친족들만 오는 거라. 뒷날 잔치니까 집있어 음식 먹을 거를 신랑집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뒷날도 먹고 가문잔치날도 먹고 하주게. 그 때는 권당들 모영 밥 먹는 게 가문잔치주게. 가문잔치 때는 부조 안해서.

112018 @ 우시에 대해 얘기해줍서.

112018 #1 우시는 신랑집에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그 갈 적에 켈 나이 많은 사람 그 집안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우시로 가. 또 들러리도 있어. 결혼 뒷날 신랑집에서도 가고 신부집에서도 가는 거주게.

112019 @ 대반이나 중방은 뭐짱?

112019 #1 대반나는게 신랑 이 신부를 데려오면은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갈 꺼 아니냐. 거기 신부집에서 대반맞아. 신랑 집에오면 신랑집에 대반 놓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옛날은 이런 옆에 앉아. 그 주인이니깐.

112019 @ 그럼 중방은 뭐짱?

112019 #1 중방은 신랑이 뭉 탕 들어올 거 아니냐. 옛날에 도구리랜 했져. 도구

리 이렇게 낡 거기 딱 신랑 내려오면은 중방이란게 동세가 혼다.

112020 @ 부조는 어떻게마씨?

112020 #1 부조 결혼식 할 때에는 부조는 부조 행 밥 먹어서. 여기는 결혼 전날도 하는디 그 때는 결혼날만 해서. 결혼날 먹고 부조주고 해서.

112021 @ 암창개는 뭐 말하는거마씨?

112021 #1 암창개영 혼 거는 각시 없는디 각시가 그 옛날은 물질들 하거든. 암창개는 식에 못들어 온 사람 근는거주게. 결혼 날짜는 다왕 그 때 못 들어오면 신랑만 행 처갓집에 왕 절해 두고 그냥 돌아가버리는 게 암창개라 하주게.

112022 @ 사혼에 대해 아시는거 이시른 곱아줍서.

112022 #1 그건 잘 모르켜.

112023 @ 혼례할 때 뭐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있어마씨?

112023 #1 그런 거 별로 없어. 이미 그런 건 결과가 끝났으니까.

상례

112024 @ 어떤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거 어떻 확인해마씨?

112024 #1 동네 사람이 있었주. 동네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일곱명이 묶는다고 해서는 뢰치가 있거든. 옷을 제식 옷을 전부 다 입고 거기서 전부 뢰가 떡 같은 거 입에다 물리고 꿇고냥에 속에 다 막아불영. 뢰치에 행 일곱명이 묶어. 묶어서 그 뢰날 입관허여. 입관하면 관 속에 들어가. 들어가면 이제 입관 끝나면 여기서 풀죽 해서 맥여서. 풀죽이렌 혼 거는 나쁜 거 방지하는 거니까 그거 먹어서.

112025 @ 복부르기는 어떻게마씨?

112025 #1 복부르기는 거 모르켜.

112026 @ 장지는 어떻 마련해마씨?

112026 #1 그게 돌아가면은 뢰가 뢰날 초상이거든. 그날 상제가 나가가지고 큰 상제가 나가 보통. 나가가지고 이녁뢰이면 이녁뢰 뢰의뢰이면 뢰의뢰에 가가지고 상뢰를 본뢰 말이며. 보뢰은 이제 뢰날 갈 꺾 아니냐. 가서 개광 파가지고 관 놓주게.

112027 @ 관이랑 횡대는 어떻 마련해마씨?

112027 #1 관은 현재 관이랑 마찬가지. 이제 관이랑. 관은 여기서 제제소가 있었주게. 게난 거기서 소냥을 사와게. 사와서 만들영. 뢰은 뢰들어가.

112028 @ 수의랑 상복은 어떻 준비해마씨?

112028 #1 남자는 그냥 상복 지금 티비에 나오는 거추룩 입주게. 여자는 여자대로 베웃으로 입히주게. 수의? 그건 제신웃이라고 한복으로 놓주게.

112029 @ 상장이나 짚뢰 알아마씨?

112029 #1 짚뢰? 일곱명이 묶는다고. 사람이 죽으면은 일곱명이 묶거든. 일곱명이 묶어야 죽은사람이라고. 겐디 그것도 짚 요만씩 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양 옆으로 꿰어.

112030 @ 두건이랑 복치마도 준비해마씨?
 112030 #1 그거는 권당한테 두건이나 복침 썬우는 거주게.
 112031 @ 팔죽에 대해 얘기해줍서.
 112031 #1 팔죽은 비림타지 말라고. 비림타지 말라고 팔죽 먹는거주게.
 112032 @ 성복제는 뭐하는거마씨?
 112032#1 성복제 관에 들어가기 전에. 관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구나 식구들 하고 울고 하지 않느냐? 그게 성복이고.
 112033 @ 일포제는 뭐마씨?
 112033 #1 일포? 전날게. 묻으러 가기 전날. 돼지 잡고 또 밥 하고 그담날 영장 묻으러 갈 거니까 떡도 만들고허주게.
 112034 @ 부조랑 조문은 어떻게해마씨?
 112034 #1 옛날은 쌀도허고 또 떡, 빵, 돌레떡이라는게 있어. 좁쌀로 동그랗게 만든거. 그것도 있고. 또 제편이영 혼 것도 허주게.
 112035 @ 토신제도 알아마씨?
 112035 #1 토신제는 집 지실 때 하는거주게.
 112036 @ 상여꾼은 어떻 정해마씨?
 112036 #1 그 부락에 젊은 사람들이 허주게. 열둘이 들어가주. 묶는 것은 일곱 명이 묶으고. 상여는 묻으러 갈 때 열두사람 들어가. 거기서 이제 마새기머리라고. 고기 먹단거 곱게 썰어가지고 그거하고 술하고 나와가지고 멜 갈 사람한테 술잔이랑 고기랑 수고한다고 준단 말이여.
 112037 @ 운상은 어떻게 해마씨?
 112037 #1 집에서 장지까지게 이렇게 몽둥이가 있어. 진 거 있으면 칸칸이 열두 개 묶어져. 경해부난 열두 사람이 필요하주게. 그 사람들이 매듭 묶은 데 지영 장지까지 들고가주게. 중간에 노래도 부르명.
 112038 @ 장지에 봉분은 어떻 만들어마씨?
 112038 #1 봉분은 현재 봉분이랑 마찬가지로. 예쁘게 때로 입혀가지고 옛날은 대리석 해가지고 그런 거 어셨주게. 그거 만드는 사람 믈에서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112039 @ 호충에 대해 아시는거있어마씨?
 112039 #1 호충은 모르켜.
 112039 @ 누구 죽었을 때 몇년생 보지 말라 하잖아예. 그거에 대해 얘기해줍서.
 112039 #1 그게 그거주게. 몇 살 무슨 띠 저 보지 말랑 하는 거주게. 그 사람이 생명이 위험하다고 보지 말라고 하는거주게. 그 하관할 때 옛날은 그 사람 보면은 데리고 가분덴 옛날은. 게 가지고 그 사람 보지말라고해. 하관할 때는 보지 말라고.
 112040 @ 장지에서 상여꾼한테 뭐 음식 줘마씨?
 112040 #1 상제꾼한테 그날 메어 갈 적에 장갑하고 수건주고. 상제꾼한테 안주하고 술하고 쪽 맥여. 맥이면 시간이 되면 이제 묻거든. 방봉분해서 먹이는 사람도

있고 봉분 다 해서 먹이는 사람도 있고.

112041 @ 장제 때 수고한 사람들에게 뭐 주는거 있어마씨?

112041 #1 뭔가 이 집에서나 거기서나 수고한 사람은 그날 먹던 음식해서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또 그거 해 놓고 쌀이면 쌀 해놔가지고 수고한 사람 앞에 집 안에서 뭔가 보내주주게.

112042 @ 상식은 어떻게마씨?

112042 # 상식은 상 놔야주게. 지금은 상 안남지만은 옛날은 삼년상이라고 그걸 혼백해가지고 밥도 놓고 했었주게.

112043 @ 삭망제는 뭐하는거마씨?

112043 #1 삭망제는 안들어봤져.

112044 @ 소상이나 대상에 대해서 옛날이랑 달라진 거 이시믄 알아줍서.

112044 #1 달라진거? 대소상 지금은 안하주게. 옛날은 소상이믄 소상 대상이믄 대상 책에서 알아주는 거 마찬가지로. 상제는 상복입고 3년 동안 계속 입었주게. 베요만하게 해서 머리창이나 이런 데 들주 상복은 우리 때도 잘 안입어서.

112045 @ 토룡은 뭐 말하는거마씨?

112045 #1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관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제 관에 들어가신디 날짜가 안나오면 삼일장 하자고 했는데 삼일장 못 행 오일장 육일장 할 적에는 그 죽은 사람 강 토룡허여. 가서 가까운 밭에 가서 뭐 파지 않고 그냥 놔서 흙 씌어가지고 그 위에 비가 오면 물들어가지 못하게 노람지나 새로 덮어붙주게. 그게 토룡이주.

112046 @ 이묘는 어떻게마씨?

112046 #1 이 산이 여기 묻었다가 여기 갈 때 그게 이묘라. 그거는 뭐 묻는 거랑 마찬가지로.

112047 @ 상복은 언제 벗어마씨?

112047 #1 상복은 삼년상 넘으면 벗주게.

112048 @ 상례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있어마씨?

112048 #1 그 옛날 식으로 부부간도 자지 말고 산에 가 지켜라 해신디 그거 해지크냐 요새.

제례

112049 @ 제사 준비는 어떻게마씨?

112049 #1 제사 하는 집에서 먹을 거 다 찰리고, 한 여덟시 쯤 되면은 상에 벌여가지고 전부 음식 올려서 해가지고 편당들 죽 앗앙 놀면서 술 한잔씩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열한시 열두시 정도에 파제하주게. 파제라는 건 이제 귀신이 왕 가부렀다 한 거거든. 이제 파제행 그 음식이랑 밥도 먹고 또 술도 먹고 해가지고 친족들이 해산되는 거주게.

112050 @ 제물로는 뭐 준비해마씨?

- 112050 #1 제물은 제사에 올리는 거. 지금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올리주게.
- 112050 @ 자세히 좀 얘기해줍서.
- 112050 #1 거야 그 집안에 따라서 허주게. 옛날에야 허여 먹는 음식이라는 게 그걸로 떡도 만들고 보리쌀로도 떡 만들고 좁쌀로도 떡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다. 지금이야 뭐 사도 되고. 곤쌀도 백상 떡도 만들고. 옛날사 뭐 잊어게.
- 112051 @ 콩나물은 어떻 준비해마씨?
- 112051 #1 콩나물은 사와야주게.
- 112051 @ 시루에서는 어떻 키워마씨?
- 112051 #1 시루에서 키우기도 허는디 보통 사오주게.
- 112052 @ 제육은 어떻 준비해마씨?
- 112052 #1 그거는 고기 상에 올릴 적에 고기는 동쪽, 빵 같은 거는 서쪽에 올리면 되주게. 채소는 가운데. 고기 바다에 강 잡으면 좋지만은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주게. 옛날에 소고기는 못 맞추고 돼지고기도 큰 거는 못잡아서.
- 112053 @ 적은 몇 종류 준비해마씨?
- 112053 #1 포적이라고 하는 게 제사 때 쓰는 거주게. 포적이영 혼 것이 밀ㄱ루나 메밀ㄱ루나 솔뚜껍에 놓면 이만큼 반죽 한 거 노면 떡 만들어정 나온단 말이여. 이만큼 쫄라가지고 꼬지에 꿰면 그게 포적이주게. 그건 제사하는 사람이 준비하주게.
- 112054 @ 떡은 몇 종류 준비해마씨?
- 112054 #1 떡은 상에 안 올라가는 게 있고 상에 올라가는 게 있주게. 떡은 뭔가 상에 별로 안 올라가는 건 허지렁흔 거 빼고 보통 다 올라가주게.
- 112055 @ 과일은 몇 종류 준비해마씨?
- 112055 #1 과일은 복숭안 안 올라가. 복숭아 왜 안올라가면 복숭아 여자라부난.
- 112056 @ 채소는 어떻 거 준비해마씨?
- 112056 #1 채소는 마찬가지로 있는 거 쓰주게.
- 112057 @ 진설은 누가 해마씨?
- 112057 #1 진설은 뭐꼬?
- 112058 @ 메랑 쟁은 누가 떠마씨?
- 112058 #1 메는 거 집에서 이녀 어머니가 돌아가면 자식이 하는 거고, 쟁은 국인디 미역국이라. 메영 혼 거는 밥이고. 보통 시어머니가 뜨주.
- 112059 @ 헌관에 대해 아는거 글아줍서.
- 112059 #1 헌관이영 혼 게 뭐하는 건지 잘 모르켜.
- 112060 @ 파제는 보통 몇시에 해마씨?
- 112060 #1 열한시 열두시에 하주게.
- 112061 @ 문전제는 어떻 지내마씨?
- 112061 #1 문전제도 제사영 마찬가지로. 문전제영 혼 거는 제사를 벌이면은 여기다가 조그만한 상으로 제를 지내는 거주게. 문전제라는 건 이 집이 우리 제사 지

냄수다 인사하는거주게. 제사를 하게 되면 그거 마루에 들어온디 거기에서 이 집 주인 되는 사람이 절 하는 게 문전제주게.

112061 @ 제반 걷기 같은 거 들어난마씨?

112061 #1 제반 걷기는 밥 같은 거 우에 걷는 다는 건데 잘 모르켜.

112062 @ 그럼 제반은 어떻게마씨?

112062 #1 제반이영 혼 게 제사 때 제반 아니냐. 제사 때 귀신 먹영 꼬트머리주게.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걸어 놓거든. 그게 구신이 가져간거라.

112063 @ 지제는 언제 해마씨?

112063 #1 지제는 집안에 따라서 다르게 허주게. 삼대 지제 하고. 또 오대 까지도 하는 대도 있고.

112064 @ 묘제는 어떻게마씨?

112064 #1 묘제는 차리는 집이 있어. 거기서 묘제를 다 차려가지고 산으로 가. 산에서 묘제를 지내가지고 근접더레 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갈려지는 게 묘제주게.

112065 @ 제사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알아줍서.

112065 #1 벨 다른 거 있어? 제사 때는 이녁 아버지 제사가 돌아오면은 동네 영장이 나도 안가. 못가게 한단 말이야 비린다고. 아버지가 안 온다고.

13 민간요법

113001 @ 이발할 때 머리에 뭐 나는 거 이신디 그게 기계충마씨. 그거 들어본 적 있어마씨?

113001 #1 지금은 사라들이 깨끗하게 살아나부난 어실건디 옛날엔 틈틈이 있는 거주게. 약 같은 거는 모르켜. 그 니영 혼거 모르지? 그거 해영 잡지 아니하면 기계충에 걸리는거주게. 사람 머리에.

113003 @ 머리에 하얀 거 비듬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사라진다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없어마씨?

113003 #1 그건 못 들어봐서.

113004 @ 버짐날 때 치료하는 거 잇언마씨?

113004 #1 지금 먹 있잖아. 춤먹 있고 숯먹 잇어. 춤먹으로 그걸 곱아서 그 물로 바르면은 떨어진다고 해서.

113006 @ 여드름은 어떻 치료해마씨?

113006 #1 여드름은 별 게 없어. 그건 짜줘야지.

113006 @ 그럼 여드름을 여기선 뭐라고 헨마씨?

113006 #1 느끼비라 여드름이여.

113010 @ 눈에 다래끼 날 대는 어떻게마씨?

113010 #1 그거 없애젠 하면은 오른쪽이면 오른발 왼쪽이면 왼발 발바닥에 천

평구평 썼주게. 그것이 방법이라. 한글로나 아무거나 천평구평 썼주게.

113012 @ 이빨 아플 때는 어떻게하마씨?

113012 #1 옛날에는 아프면 빠불지. 지금도 실로 잘라매가지고 빼잖아. 그전에 서 실로 빠불어서.

113015 @ 홍역 걸리면 어떻게하마씨?

113015 #1 구실이라고 하주게. 홍역 걸리면 홍역 걸리면은. 동네 한다는 건 다 알아. 돼지 잡았든 누게영 싸웠든 다 알면은 홍역 걸린 것도 다 알주게. 제신할망이라고 하주게 큰 할망. 그 할망을 불렀주게.

113019 @ 여름에 땀띠 날 때 치료하는 방법잇언마씨?

113019 #1 그거는 짠물에. 여기 바닷물이니깐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낫주게. 많이 들어가부러. 바닷물 짜주게.

113028 @ 화상 입었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마씨?

113028 #1 여기서는 화상 농촌에서는 화상 입을 때는 불러주는 건 없고. 감자 지실 갈아서 발라주면은 낫는다고 하여.

113032 @ 딸국질할 때는 어떻게 멈추게 하마씨?

113032 #1 딸국질하면은 너 어디강 도둑질 해 왔나 행 성질 내게끔 했주게. 거 모르는 사람은 성질나주게.

113039 @ 체했을 때는 어떻게 내려하마씨?

113039 #1 체했을 때는 이 손가락이나 이 손가락을 이 주사바늘로 터줘. 피나면 은 얹힌 거 내려간다고 하여.

113047 @ 허리 빠었을 때는 어떻게하마씨?

113047 #1 옛날에는 개똥물 먹여서. 개 똥산 거 물 해서 먹였주게. 것도 약이라.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죽을 뻔 했던 일 잇어마씨?

114001 #1 그런 일은 없어.

114001 @ 다리는 언제 다치셨마씨?

114001 #1 다리는 이게 너무 부러버리기 때문에. 너무 이 부러먹어불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거주게. 너무 못 살아나니깐. 노동이영 혼 거는 내 다리로 했주게.

114002 @ 도깨비 만났던 일 이시믄 얘기해줍서.

114002 #1 도깨비는 그것도 옛날인디 내가 열두살에 소 맥이레 밤에 그 때는 장난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했주게. 게 모다들어가지고 이젠 소 맥이레 나가. 소 밤에 맥여놔야 뒷날 놀거라 말이여. 그 때 안개비가 올 때 저쪽으로 저디서 불이 놀면 우리 저 동산이라고 한 대 이시디 거기 불이 갔다 왔다 한 거 봤주게. 색깔만 다를 뿐이지 이래갔다 저래갔다 벗들이영 같이 봐서.

114003 @ 참외나 수박 서리했던 일 있어마씨?

114003 #1 참외는 해보고 수박은 그 때 안해봐서. 어릴 때 과일이라는 게 농촌에는 별로 없어부난 경 많이 안해서.

114004 @ 어렸을 때 들었던 재미난 얘기 좀 해줍서.

114004 #1 별로 재밌는 얘기도 들은 거 없고. 한결히 놀고 그런 거 어셨주게.

114005 @ 속담이나 금기어 아시는 거 이시믄 얘기해줍서.

114005 #1 그런 거야 별로 없주게.

114005 @ 옛날에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없어수광?

114005 #1 말 들으민 들인디 버리라. 그 말을 읊기지 말라고.

114006 @ 옛날 사는 거랑 지금 사는 거랑 어떻게 달라전마씨?

114006 #1 옛날이야 학교 다닐라 해도 일고 여덟살에 맨발에도 땡기고. 초신이나 신고 땡기고. 비오면 맨발에 들양 다니고 눈 올 때는 초신에 그냥 조리 그런 거 신고 돌아다니고. 나막신도 다니고 비오면 계다도 신영 다니고 했주게. 벨다른 거 별로 없어.

114006 @ 옛날에 육지 갈 때 어땡 간마씨?

114006 #1 여기 제주도에서는 부산으로 주로 갔주게. 배타서. 그 때 왜 그러냐면 옛날도 삼돛배라고 큰 배로 경허니깐 도시 구경을 못해서.

114006 @ 목 안에 갈 때는 옛날에 어땡 간마씨?

114006 #1 시에 갈 때 걸영 가서. 제주시까지 걸영가신디 그 때는 할망들 시 구경하기 힘들어서. 아침에 나가믄 열두시 넘영 들어가. 이제 삶은 삶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사람 땡기는 것도 그렇고.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201002	대가리	데맹이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굴
201005	제비초리	제비출리
201006	머리털	머리털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럭
201008	길다[長]	길다, 질다
201009	짧다[短]	쫓르다
201010	빗[梳]	빗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참빗
201013	땡다	땡다
201014	비녀	빈네
201015	고수머리	ㄱ수락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마
201017	쌍가마	쌍가마
201018	가르마	가름
201019	이마	이마
201020	넓다[廣]	넓다
201021	이마빠기	이마빡
201022	솜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얼굴
201024	낯[面]	낯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생맹기
201028	씻다[洗]	시치다
201029	거울	강아미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뺨
201032	뺨따귀	뺨따귀

201033	때리다[打]	때리다
201034	불	불
201035	불따구니	불따구니
201036	불거리	*
201037	광대뼈	불뼈
201038	보조개	보조개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알
201042	검은자위	검은알
201043	눈꺼풀	눈두꺼
201044	거적눈	덤게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눈두세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거말
201051	폐롭다	폐랍다
201052	눈곱	눈곱
201053	눈초리	눈깍
201054	사팔눈	강개기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만지다
201058	콧마루	콧마루
201059	세다[強]	세다
201060	콧구멍	콧구녕
201061	코딱지	코딱지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닦다
201064	콧수염	콧수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춤말
201069	거짓말	그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뒤달하다	뒤달하다
201072	입술	입바우
201073	헐다[毀]	헤싸지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글다, 곧다
201076	입방아	입방아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
201079	침[唾]	춤
201080	삼키다[吞]	삼키다
201081	가래침	게침
201082	뱉다[吐]	뱉다
201083	느침	*
201084	턱받이	덕받이
201085	혀	혀
201086	활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송곳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벌은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옥니
201096	옥다[曲]	옥다
201097	돋다[出]	돋다
201098	옥물다	즈그물다
201099	턱	턱
201100	턱살	턱사리
201101	뺨다[稍峽]	뺨다
201102	수염	수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
201105	귓볼	귓볼
201106	귓구멍	귓고냥

201107	귀청(고막)	*
201108	귀지	귀밥
201109	귀이개	귀오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귀똥
201112	구레나룻	녹대수염
201113	목	목
201114	굽다[顛]	굽다
201115	모가지	모가지
201116	먹살	맥살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
201119	꼭뒤	*
201120	뒷덜미	뒷덜미

상체

201121	어깨	어깨
201122	어깨뼈	어깨뼈
201123	어깨죽지	웃죽지
201124	겨드랑이	겨드랑이
201125	팔	팔
201126	팔뚝	팔뚝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팔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살
201131	팔꿈치	팔꿈치
201132	팔목(=손목)	팔목
201133	뼈	팡, 뼈, 뼈
201134	뼈다귀	뼈다귀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왼손
201137	오른손	오른손
201138	왼손잡이	왼손잡이
201139	손등	손등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톱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거슴, 거심
201145	할퀴다	극주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손고락
201147	엄지손가락	어금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가락트명, 손거림
201153	가슴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뛰다
201155	젓가슴	*
201156	멍치	멍치
201157	멍자리	봣븣르디, 븣븣르디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울	젓명울
201161	짜다[攥]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똥
201167	옆구리	옆갈리
201168	갈비뼈	갈비뼈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어리
201173	가렵다[癢]	ㄱ렵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
201177	찬물	실려운물
201178	등마루	등기로

201179 등뼈 *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ㄱ는허리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덩이
201184	살집	살집
201185	볼기	잠지
201186	엉덩이뼈	볼뼈
201187	궁둥이	궁뎅이
201188	궁둥이뼈	*
201189	살	살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똥고냥
201191	더럽다[汚]	더럽다
201192	가볍다[輕]	한걸ㅎ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강알
201195	가래뿔	늦인돌
201196	다리[脚]	가달, 다리
201197	서다[立]	서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잠짓가달
201199	넓적다리	넙적다리
201200	무릎	독머리
201201	무릎뼈	독짱
201202	뼈다[櫛]	뼈다
201203	정강이	정강이
201204	정강뼈	성문짱
201205	종아리	종에
201206	장판지	생중이
201207	오금	오곰
201208	복사뼈	*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더
201211	긏다[凶]	긏다
201212	헛발질	게발
201213	발목	발목

201214	겹질리다	겹질리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바닥
201217	발부리	발부리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근지럽다
201220	간지럼	즈곰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
201221-3	가운데발가락	상발가락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

201222	발살	발거림
201223	까치눈	가메기눈
201224	티눈	티눈, 퀘눈이, 퀴눈이
201225	고린내	고린내
201226	발톱	발굽
201227	발뒤축	발뒤축
201228	쓸개[膽]	쓸개
201229	허파	허파
201230	마음	므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창지
201232-1	큰창자	큰창지
201232-2	작은창자	족은창지
201233	목숨	목숨
201234	빼앗다[脫]	빼앗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서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기쁘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낳다
202006	태(胎)	붓
202007	젓줄	베또롱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터울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얼애기
202014	사내아이	소나이
202015	계집아이	기집아의
202016	아깝다	아깝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게
202018	엿저지	엿게
201019	품다	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오줌정갱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싸기
202024	누다[便]	누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라다
202026	지렁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꾸지럼
202029	배냇저고리	베냇저고리
202030	기저귀	기저귀
202031	배두렁이	배부루기
202032	포대기	포대기
202033	보자기	보제기
202034	보따리	보따리
202035	풀다[解]	풀다

202036	끄르다	끌르다
202037	쳐네	지성치메
202038	띠	띠
202039	개구멍바지	*

재통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죤매죤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던데던데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짜짜꿍	짜짜꿍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걸음마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곤주왁
202049	곤두서다	곤주왁사다
202050	가동가동	가동가동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지다
202053	목말	정에고개
202054	흉내	슁
202055	흉내질하다	슁틀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쌈
202058	자라다[成長]	즈레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참다
202061	심술	심술
202062	밋다[憎]	밋다
202063	옛말	예살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구실치기
202066	딱지치기	딱지치기, 뺏지치기
202067	통차기	통차기
202068	숨바꼭질	굽을내기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놀이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까락
202073	풍계물이	*
202074	줄넘기	줄넘기
202075	줄다리기	둘다리기
202076	수수께끼	수수께끼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던지다, 데끼다
202080	고누	곤질
202081	땅뺏기	땅따먹기
202082	사금파리	*
202083	말놀음질	*
202083-1	생말타기	*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달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겨루다
202087	제기차기	제기차기
202088	혜엄치다	혜엄치다
202089	웃놀이	웃놀이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2	막동	*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
202097	싸우다[鬪]	싸우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다치기
202100	편벽하다	*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도레기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람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
202107	가오리연	개오리연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
202108-2	꽂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들고망
202110	꼭지	꼭지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숫줄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얼레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
202117	개미[연놀이]	*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밑신개	*
202121	굴렁쇠	굴렁쇠
202122	구르다[轉]	구르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키
202126	키다리	키다리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움
202128	선하품	*
202129	기지개	기지개
202130	기지개하다	기지개하다
202131	경기하다	경기하다
202132	놀라다[驚]	놀라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졸리다
202136	잠	잠
202137	귀잠	*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잠
202140	잠귀	잠귀
202141	잠꾸러기	*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하다
202144	트림	게트라기
202145	딸꾹질	틀고지
202146	재채기	헛쟁이

202147	개치네췌	*
202148	방귀	방구
202149	방귀뀌다	방구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푸기
202151	구린내	구린내
202152	노린내	노린내
202153	사레들다	살해들다
202154	감기	감기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
202157	학질	*
202158	천연두	*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
202161	기계총	*
202162	독창	*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옷	*
202165	버짐	*
202166	마른버짐	*
202167	진버짐	*
202168	주근깨	주근깨
202169	기미	기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마귀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펴렁다	펴렁흐다
202174	굳은살	굳은술
202175	부스럼	부레미
202176	종기	종기
202177	습종	*
202178	나다[生]	*
202179	붉은발	*
202180	다대	*
202181	고름[膿]	*
202182	고장물	*
202183	낫다[癩]	*

202184	아물다	*
202185	표적	*
202186	생인손	*
202187	앓다[痛]	*
202188	두드러기	두드러기
202189	땀띠	땀띠
202190	소경	*
202191	청맹과니	*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
202194	사팔뜨기	*
202195	다래끼	*
202195-1		
202195-2		
202196	언청이	*
202197	외언청이	*
202198	쌍언청이	*
202199	귀떡다	*
202200	귀머거리	*
202201	병어리	*
202202	말더듬이	*
202203	혀짤배기	*
202204	입비뜰이	*
202205	구안괘사	*
202206	가납사니	*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굽사등이	*
202209	절뚝발이	*
202210	얇은뱅이	*
202211	문둥이	*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애비

203004	어미	애미
203005	할아버지	할아방
203006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남편
203008	아내	아내
203009	부부	부부
203010	싫다[厭]	실프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둘째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막내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
203012-6	둘째아들	*
203012-7	셋째아들	*
203012-8	넷째아들	*
203012-9	막내아들	*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심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심딸
203018	자식	자식
203019	없다[無]	없다
203020	자손	자손
203021	어비딸	*
203022	어비아들	*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

203025	어이아들	*
203026	만이	만이
203027	막내	막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외아덜
203034	외딸	외딸
203035	쌍둥이	글애기
203036	다르다[異]	다르다
203037	같다[如]	ㄹ트다
203038	양자	양자
203038-1		*
203038-2		*
203039	처녀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사주보다
203044	중신	*
203045	권당	권당
203045-1		*
203045-2		*
203046	얹은잔치	*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방
203050	시어머니	시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외할망
203054	외할머니	외할멍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
203057	아주머니	*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
203060	꾸정꾸정하다	*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롱팔십
203063	병추기	*
203064	거동하다	*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녀
203067	친손자	친손지
203068	외손자	외손지
203069	친탁	*
203070	외탁	*
203071	내척	*
203072	외척	*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시누이
203075	올케	*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카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외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
203087	넋할머니	*
203088	넋손자	*
203090	홀어미	*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심어멍
203095	옴딸	*
203096	누구	누구
203097	남[他]	남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감
204002	꿌다	그치다
204003	명주	맹주
204004	명주실	맹주실
204005	명주옷	맹주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녕	미녕
204008	무녕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녕	닷세미녕
204010	옛새무녕	영새미녕
204011	생목	생목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마
204016	솜	소게
204017	풀솜	설멩지
204018	솜틀	솜틀
204019	솜틀집	소게테우는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넛드래기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누에하꾸
204024	번데기	번데기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잎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드룻뽕낭

204029	오디	오동
204030	다듬잇돌	돌안반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담이마깨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게꿈
204035	물거품	물부글레기
204036	빨랫돌	물팡
204037	빨랫방망이	서답마깨
204038	빨랫바구니	빨랫구덕
204039	헹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므르다
204042	마지랑대	서답바드랭이, 서답작데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건다[收]	들인다
204045	바래다[褪]	바레다
204046	헹겘	헹벅
204047	찢다[裂]	찢다
204048	나부랭이	몰르레기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달
204051	저고리	저구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메끝
204054	풀치마	깍치메
204055	옷고름	옷곰
204056	옷깃	옷깃
204057	옷셔	옷셔, 옷압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동달귀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스메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감된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폭
204066	두루마기	두루막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팔토시
204070	누더기	누데기
204071	거지	거리지, 동녕받이
204072	구두쇠	구두췌
204073	잠방이	잠벙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204075	주머니	주머니
204076	호주머니	계와츄
204077	널다[入]	널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보선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보선등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보선코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보선발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발쓰개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즙옷
204085	솜옷	소게옷
204086	얹다	얹루다, 얹롭다, 얹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거죽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즙이불

204093	사이	스이
204094	누비이불	낄레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푸숨
204097	홀청	홀청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옷거죽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요팡석
204104	앉다[座]	안지다
204105	베개	베게
204106	베갯잇	베갯거죽
204107	베갯머리	베갯머리
204108	베갯모	베갯모마기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밀짚모자	밀낭퍼랭이
204115	미사리	망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채총박이	불깍신
204118	땀총박이	비빔깍신
204119	미투리	미투리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족신	창신
204123	부르뜨다	복문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
204127	부채	부채
204128	미선	*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진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ㄱ새
204132	마르다[裁]	막르다
204133	골무	골메
204134	실	썰
204135	실꾸리	썰꼬리
204136	실패	썰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농겨레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깎다	줍다
204143	실밥	썰밥
204144	접다	접다
204145	곱치다	곱이치다
204146	휘잡치다	바위돌르다
204147	재봉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리워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누르다
204153	씨아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췌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가시세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물렛귀
204153-5	씨아손	손잡이	물렛조록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가레기

204154 물레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퀘머리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퀘머리기둥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물렛지둥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물레바퀴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즈록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물렛줄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가레기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물렛줄

204155 자세 *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빼다[湯水]	*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팍밥	팍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생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녕이
205016	눌은밥	누녕이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과래밥	과래밥
205020	밥보	밥체시
205021	밥술	밥순가락
205022	밥알	밥방울
205023	끼니	때식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흔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농	승농
205029	화독내	끄시럭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느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헛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프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빼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반찬
205048	테우다	테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느물짐치

205051	무김치	늪뺨김치
205052	열무김치	열무김치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김치
205055	갓김치	갓늪물김치
205056	파김치	뽕이마농김치
205057	각두기	각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뜸다
205060	간장	물장, 장물
205061	장물	물장
205062	된장	개미장
205063	소금	소곰
205064	소금버캐	소곰병땡이
205065	소금장수	소곰장시
205066	간	근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소곰헛다눅디주름
205069	콩나물	콩늪물, 콩주름
205070	숙주나물	눅디주름
205071	무나물	늪뺨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채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손
205075	꺾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
205077	고비	*
205078	미나리	미내기
205079	부추	쉐우리
205080	상추	상추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
205083	오이	웨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츄웨
205086	수세미외	스가웨
205087	말물	*

205088	끝물	*
205089	개똥참외	간잘귀
205090	원두막	웻막
205091	갯잎	팻입
205092	고추	고추
205093	풋고추	선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ㄱ르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늑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입
205100	시들다	소들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알가미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백시리
205110	부스러기	부시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고물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뒤
205117	가루	ㄱ로
205118	국수	국수, 국쉬
205119	칼국수	칼국쉬
205120	삶다[烹]	슴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묽다[淡]	무르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봉지	봉다리
205127	과줄	*
205128	엿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탁베기
205133	붓다[注]	부으다
205134	기울다[傾]	즈올린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마시다
205137	준(罇)	추니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데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찾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싸다
205146	갑시다	ㄱ끼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누르미
205149	산적	적갈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제
205151	부엌문	정젓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불망굴
205154	불뚱	불게여미
205155	부엌비	정제비차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늑잡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시랭이
205160	검댕	그실떡
205161	아궁이	아궁이
205162	채	불청, 불채
205163	모으다[集]	모도다
205164	부뚜막	화덕
205165	붓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옹조리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끓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숫천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밧
205175	솔검정	숫검덩이
205176	부삽	불삽
205177	군손	터럭손, 헛손
205178	군일	군일
205179	살강	살래
205180	부지깻이	부지뺨이
205181	짚방석	집방석, 즐방석
205182	성냥	곽
205183	성냥개비	곽살
205184	성냥갑	성냥곽
205185	부시	부쇄
205186	부싧돌	부들
205187	부싧깃	부쩍, 불쩍
205188	부시쌈지	주맹지
205189	부시통	불쩍통
205190	등잔	각지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롱	등피각지
205193	남포등	등피
205194	접싧불	접싧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굽
205199	뜯숯	*
205200	숯검정	숯검덩이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칸내
205203	불태우다	불케우다
205204	불티	불깨미
205205	끄다[消火]	끼우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청동화리
205209	붕당	붕덕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화상
205213	부손	불순가락
205214	부젓가락	*
205215	다리쇠	적췌
205216	석쇠	석췌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205217-2		
205218	담배	담베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아지다
205223	물부리	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베통
205225	담배설대	통대
205226	담배쌈지	담베쌈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비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놋그릇
205233	사발	사발
205234	뚜껑	뚜껑
205235	접시	접시
205236	굽달이	*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물종지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205243	수저통	수제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긋인물
205246	도시락	동고량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박세기
205250	박	죽박
205251	뒤옹박	두렁박
205252	조롱박	조롱박
205253	쪽박	죽박
205254	양푼	냥푼이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뚜껑배기	뚜껑배기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룻마개
205260	시룻번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떡징
205262	함지박	도고리
205263	바구니	바구리
205264	소쿠리	소코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죽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ㄱ대
205270	굳은대	메운대
205271	무른대	물른대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물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돔베칼
205278	빼다[拔]	빠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갈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느실다
205283	행주	상베
205284	번철	빙철
205285	국자	남자
205286	밥주걱	우굽
205287	죽젓광이	베수기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밀판	밀판
205291	밀개	미레기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코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두벙들이

205293	빚다	듭다
205294	풍로	*
205295	삼발이	식발췌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골목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넓다[古]	늙다
206007	기와집	기왓집
206008	흙집	*
206009	돌집	돌질
206010	오막살이	마가리
206011	외채	외딴집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박거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문간채
206016	결채	모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광굽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일르다
206024	마구간	몰마귀
206025	변소	통제
206026	부춘돌	디덜팡
206026-1	부출	남드리
206027	기척	기적
206028	맞서다[拮]	마주사다
206029	냄새	냄세
206030	맡다[臭]	마트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우갓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놀다
206039	사닥다리	사닥다리
206040	이영	느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여끄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체
206043-1		*
206043-2		*
206044	디딤돌	잇돌, 엇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마루
206047	마루문	마릿문
206047-1	‘호령창’	개문, 계문
206048	마룻널	마릿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다
206053	구들직장	고망우럭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아반, 천장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족은구들
206062	방문	방문(구들문=창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비차락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버리다
206067	바람벽	백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헛대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비알
206075	풀비	풀비
206076	찾방	족은삼방
206077	광	안방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안방문
206080	간수하다	가냥ㅎ다
206081	안뒤결	안뒤
206082	지붕	지부
206083	함석	양철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인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가제
206088	처맛기슭	집지실
206089	낙숫물	지숫물
206090	덧돌	엿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진흑
206093	찰흙	촌흑
206094	흙덩이	흑덩어리
206095	새벽	새백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沓]	꾸제기다
206098	산자(撒子)	고데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등	*
206101	뿔기등	개뿔짓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로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椽)	퇴기
206111	인방	개위
206112	문설주	입쟁이
206113	문곶도리	문곶도리
206114	문얼굴	문부출
206115	문틀	문곶
206116	문머리	웃지방
206117	문흙	밀창흙백이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겅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3	창호지	창오지
206124	뛰창문	창곰
206125	구멍	고냥, 구녕
206126	미단이	밀문
206127	여단이	열문
206128	살문	*
206129	널문	대문
206130	덧문	*
206131	문틈	문틈
206132	돌쩌귀	도철귀
206133	암톨쩌귀	암토절귀
206134	수톨쩌귀	숫돌철귀
206135	문고리	문고리
206136	배목	배목
206137	궤	궤

206138	열다[開]	열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열췌
206142	부수다[碎]	부식다
206143	서랍	설합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날베기
206146	거도	거도
206147	틀툽	대툽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옥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거린장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마깨
206158	대괘	데괘
206159	개탕대괘	흙미레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루다
206162	굽자	굽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췌손
206168	나무흙손	낭손
206169	흙받기	흑바대
206170	돌물레	돌물레
206171-1		줄ㅎ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드로쟁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쟁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주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뺀어 나간 나무	무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깃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뺀 나무	성에
207008-5	좀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호령못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
207008-9	‘뜸’	좀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뜸

207009	육보다	속다
207010	겨리	저릿잠데
207011	벧밥	밭병에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멍에질
207014	밭두둑	밭두둑
207015	밭고랑	밭고랑
207016	밭이랑	밭이렁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굴쟁기
 207019 씨레 서울레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손잡이
207019-2	찍개밭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밭을 박을 수 있는 굽은 막대	몽둥이
207019-4	씨레밭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씨레밭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밀레
 207021 팽이 팽이
 207022 곡팽이 곡팽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췌시랑
 207025 삽 삽가래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거름
 207028 걸다[肥] 글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알씨
 207031 백씨 빼다
 207032 뿌리다[撒] 망탱이
 207033 망태기 ㄱ슬귀
 207034 꿈계 *
 207035 남태 *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메다
 207039 애벌매기 초벌검질
 207040 두벌매기 두벌검질
 207041 세벌매기 식불검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207043 호미 굴쟁이
 207044 홍아기 홍애기, 사대
 207045 낚 노복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폼삿	폼삿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폼앗이	구내기
207051	삼태기	글체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자루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이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낫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호미낫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뺨기	아욱
207055	새끼	스끼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끈
207060	참바(바[索])	배
207061	짐바	짐괘
207062	질빵	질빵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멧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등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경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207066-7	경거리끈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경거리막대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
207066-9	배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

207067 명에 명에

207067-1	목대	명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적괘
207067-2	봇줄	명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숨비줄
207067-3	한테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퀴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벌렛냥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발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지겟가락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지게셋냥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등태
207068-5	지게꼬리 (밀뼈)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겟밀침

207069 바지게 바지게
207070 밭채 바작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이석, 고고리
207072-1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거상
207076 벼훑이 나록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등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태작한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젓먹은힘
207083 겨를 *
207084 도리깨 도께

207084-1	도리갯채	도리개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어시
207084-2	도리갯열	도리개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개꼭지	도리갯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갯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녀	도깨틀레

207085	여물	유물
207086	쭈정이	죽쟁이
207087	꼴	출
207088	꼴밭	출밭
207089	꼴꾼	출놈
207090	꼴단	출뭇, 혼뭇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마차
207093	복두	셋배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ㄴ는체
207099	굵은체	굵은체
207100	말총체	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
207104	키[箕]	푼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
207107	드리다	*
207108	‘술박’	좁팍
207109	풍구	풍기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사리
207112	되	뿔박
207113	관되	관뿔
207114	사샷되	스뿔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대말
207115-2	모말	귀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굵다[不充滿]	굵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
207120	떡등구미	돛통애
207121	가마니	가망이
207122	긋다[引]	긋다
207123	곡식	곡식
207124	흩다[散]	허끄다
207125	차루[袋]	잘리
207126	부대(負袋)	푸데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계으름	계으름
207129	노라리	노내기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밭
207132	누리다[黃]	노랑치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ㄱ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쌀
207136	보릿겨	보리뜯개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술보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낭
207141	매끼	무생이
207142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원조
207148	슌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

207151	비비다	보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짚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볍씨
207158	못자리	멧자리
207159	맞벼[山稻]	맞벼
207160	맞벼 이삭	맞벼 이삭
207161	맞벼밭	맞벼밭
207162	맞벼쌀	맞벼쌀
207163	맞벼짚	맞벼짚
207164	멧돌	ㄴ레

207164-1	멧돌짜	멧돌의 위아래 돌	*
207164-2	윗돌	멧돌의 위짜	웃돌
207164-3	아랫돌	멧돌의 아래짜	알돌
207164-4	매암쇠	멧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중수리고망
207164-5	멧수쇠	멧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ㄴ레죇
207164-6	멧손	멧돌의 손잡이	ㄴ레츄록

207165	멧방석	ㄴ렛독석
207166	매함지	ㄴ렛도고리
207167	풀멧돌	정ㄴ레
207168	풀매	풀ㄴ레
207169	쌈기	세역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남방에
207171-1		
207171-2		
207171-3		
207172	방아확	방엿혹
207173	방앗간	방앗간
207174	븀비다	부피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물방아
207178	방앗돌	방앗돌
207179	연자맷간	물방
207180	절구	방에
207181	절굿공이	절긋대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늬
207184	고르다[擇]	골르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입
207189	기름콩	주름콩
207190	콩깍지	콩깍지
207191	콩짚	콩꼬질
207192	꼬투리	각물
207193	두부	둬비
207194	두붓물	둬빗물
207195	뜨겁다	뜨겁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주생이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강낭콩
207200	동부	둬비
207201	팥	팥
207202	팥알	팥방울
207203	팥밥	팥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꽤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꽤지름
207208	깻묵	꽤주생이
207209	고소하다	코시롱ㅎ다
207210	메밀	모멸
207211	메밀밭	모멸팻
207212	나깨	느쟁이

207213	메밀껍질	모멸체
207214	메밀국수	모멸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모멸초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멸칼국수
207217	메밀떡	모멸떡
207218	메밀묵	모멸묵
207219	무르다[軟]	무르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절간감저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지실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데가리
207225-3	마늘중	마늘중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시
207227	파	패마농
207227-1	파밑동	마농뎡가리
207228	무	늬뻬
207229	무청	늬뻬썸
207230	시래기	씨레기
207231	장다리무	씨늬뻬
207232	열무	츠마기
207233	배추	늬물
207234	고깡이(배추)	늬물동지
207235	나물	나물
207236	채소	채소
207237	겉대	유으레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낭재죽
207240-1	옥수수	강낭대죽여물
207241	수수	대죽
207242	쌀수수	찰대죽
207243	비목수수	비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낭

어업

207246 잠녀(潛女) 즈녀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옷 물옷

207249 물안경[水鏡] 물눈

207249-1

207249-2

207250 테와 테와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빗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소살제기

207255 뜰채 족바지

207256 그물 구물

207257 돛단배 삼돛대

207258 이물 이물

207258-1 이물칸 이물칸

207258-2 이물사공 이물사공

207259 고물 고물

207259-1 고물칸 고물칸

207259-2 고물사공 고물사공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총줄) 돛줄

207263 활대 활대

207264 외대박이 게오, 가오

207264-1 두 대박이 이대선

207264-2 세대박이 삼대선

207265 노(櫓) 노

207266 결노 젓거리

207267 상책(노착) 상착

207268 노잎(노깃) 노썸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놋구멍	*
207273	놋줄	*
207274	닷	닷
207275	닷가지	닷가지, 돛가지
207276	닷줄	닷줄
207277	닷돌	닷돌
207278	닷걸이	닷수
207279	키[舵]	치
207280	킷구멍	치통문
207281	키잡이	치잡이
207282	강다리	강드레
207283	상앗대	사올대
207284	떼[浮筏]	떼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더불다
207287	마을	막을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드리
207291	옮다[移]	헝기다
207292	아랫마을	아랫마을
207293	마을가다	막슬틀다
207294	밤마을	밤막실
207295	가게	가게
207296	구멍가게	고망가게
207297	다녀오다	댕겨오다
207298	심부름	신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주리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남지기
207307	흥정	흥정
207308	빋	빋
207309	빋지다[負]	빋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왕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손불미
207315	모루	모릿돌
207316	모루채	췌마개
207317	갓양태(양태)	양태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맹긴골
207320	탕건	*
207321	결다[編]	*
207322	사냥	*
207323	사냥개	*
207324	사냥꾼	*
207325	쏘다[射]	*
207326	핑잡이	*
207327	고	*
207328	올가미	*
207329	덧	*
207330	나누다	*
207331	갖다[持]	갖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서이
208001-4	(4)	너이
2080015-	(5)	다섯
208001-6	(6)	여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여덟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수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여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	*
208005-2	(2/두)	*	*
208005-3	(3/서, 석)	*	*
208005-4	(4/너, 녀)	*	*
208005-5	(5/닷)	*	*
208005-6	(6/엿)	*	*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	*	*
208006-2	(2-3/두세)	*	*	*
208006-3	(2-3-4/두서너)	*	*	*
208006-4	(3-4/서너)	*	*	*
208006-5	(4-5/네댓)	*	*	*
208006-6	(5-6/대여섯)	*	*	*
208006-7	(6-7/예닐곱)	*	*	*
208006-8	(7-8/일고여덟)	*	*	*
208006-9	(8-9/여덟아홉)	*	*	*

208007 여남은 *

208008 서른남은 *

단위

208009 뺨 뺨

208010 집게뺨 조리

208011 발[單位] 발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 빌, 필

208014-1

208014-1	무명	미녕
208014-2	명주	멩주
208014-3	광목	*
208014-4	베	베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208016 못 무생이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나르다

208019 동 단

208019-1

208020 조짐 *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보리
208021-2	조(이삭 있음)	조
208021-3	콩	콩
208021-4	밭벼	산디
208021-5	꿀	출
208021-6	띠	걸레
208021-7	각단	*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물레
208023	섬	열닷일
208023-1		
208024	덩이	덩이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그르
208027	돌이(양태)	돌이
208028	마리	마리
208028-1	두[頭]	*
208028-2		
208029	축	*
208030	궤미	궤미
208031	쌍(돼지)	자리
208032	채(집)	채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컬레(신)	커리
208035	바퀴(운동장)	바쿠
208036	뭇	무생이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아이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신할망

209004	깃저고리	붓창옷
209005	배넛머리	베안엣머리
209006	돌	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가마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딸풀다
209012	장가가다	장게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아들풀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춤세미, 춤사미
209016	대반(對盤)	데반
209017	신부상	신부상
209018	휘다[槩]	휘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밖사돈
209022	곁사돈	부찌사돈
209023	상갓집	영장집
209024	수의	초상옷, 호상옷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주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209031-2		
209032	짚동	집동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고예간다
209035	뒗자리	산자리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계
209042	상두꾼	상뒤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밭
209045	광증	개광
209046	횡대	개판
209047	호충	소피
209048	무덤	산
209049	산담	산жат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산역시
209053	마치다[終]	마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문종밭
209056	고충	골충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갯집
209059	편틀	*
209060	퇴물	*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게영국
209063	제육	제육
209064	제편	지편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편
209067	웃기떡	도레기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테우다
209070	몫	나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설날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검출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설장구
209080	팽과리	팡메기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살침
209085	추석	팔월맹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례양풀이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밭
210008	명두	맹두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사르다
210012	살(煞)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헛것
210017	어둑서니	그슨새
210018	무섭다	무섭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코시
210021	고수레	케우진다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들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불다[點火]	부트다
211005	내[川]	내
211006	넷가	넷가
211007	물가	물가
211008	따르다[從]	뜨르다
211009	건너다[渡]	건너다
211010	낭떠러지	낭떠러지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기참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불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불
211015	돌무더기	머돌
211016	갈림길	가림질
211017	묻다[問]	묻다
211018	비탈길	거병깃질
211019	벼랑길	거정질
211020	내리막길	내리막길
211021	오르막길	오르막길
211022	길가	길가
211023	큰길	큰길
211024	분화구	굽부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오르다
211027	기슭	기슭

211028	산바람	산부세
211029	산꼬대	*
211030	상고대	*
211031	구렁	*
211032	고랑창	고랑창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푸더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
211037	숲	*
211038	성(城)	*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바닷가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바당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트다
211045	물먹다	복쟁이먹다
211046	모래	모살, 몰레
211047	모래밭	몰레밭
211048	자갈	자갈
211049	갯가	갯가
211050	펼	빨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dot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너울
211056	굼뉘	문둥절
211057	물결	물결
211058	잔물결	사스레기
211059	무수기	물끼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10일
211059-2	두무날	*	*
211059-3	서무날	*	*
211059-4	너무날	*	*
211059-5	다섯무날	*	*
211059-6	여섯무날	*	*
211059-7	일곱무날	*	*
211059-8	여덟무날	*	*
211059-9	아홉무날	*	*
211059-10	열무날	*	*
211059-11	열한무날	*	*
211059-12	열두무날	*	*
211059-13	(열서무날)	*	*
211059-14	아끈췌기	*	*
211059-15	췌기	*	*
211059-16	한조금	*	*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든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쌀물	쌀물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뒃날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저녁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저끼
211074	그끄저께	그끄저끼
211075	새벽[曉]	*
211076	꼭두새벽	동새벽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빛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 ㄹ심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르다
211090	별	별
211091	은하수	은하수
211092	달	달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달머리
211095	초승달	초싱달
211096	보름달	보름달
211097	그믐달	구믐달
211098	햇무리	햇모리
211099	무지개	상고지
211100	쌍무지개	*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스을
211104	겨울	겨울
211105	입춘	셋절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믐

211110-1	하루	흐르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단세
211110-6	엿새	엿세
211110-7	이레	일워
211110-8	여드레	여드레
211110-9	아흐레	아으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세
211113	대엿새	대엿세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
211119	선달	선들
211120	올해	올히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내후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뜨뜻흐다
211128	땡별	즈작벧
211129	가을별	ㄱ을벧
211130	양지받이	벧남석
211131	아지랑이	벧ㄱ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케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
211137-2	바람아래	*
211138	맞바람	*
211139	바람받이	*
211140	바람살	*
211141	회오리바람	돛쟁이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파람
211144	서풍	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풀돋잇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장마
211150	곰팡이	곰뻥이
211151	소나기	쏘나기
211152	여우비	지나가는비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ㅎ다
211156	도롱이	츄쟁이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송년
211160	비바람	비바람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번개
211163	천둥	처동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함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라기눈
211170	도둑눈	아이모른눈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희다
211173	춡다	춡다
211174	떨다[慄]	떨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굽다	굽다
211180	진눈깨비	눈비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저껏
211185	옆	옆
211186	위	우회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211190	왼쪽	왼쪽
211191	오른쪽	오른쪽
211192	밑	밑
211193	흐르다[流]	흘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밖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서리
211198	가[邊]	가
211199	가장자리	가쟁이
211200	가운데	가운데
211201	곧다[直]	곧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숫췌
212005	휩소	*
212006	불까다	불까다
212007	불알	붕알
212008	황소	황췌
212009	얼룩소	얼룩췌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췌늑대
212012	끌다	끌다
212013	송아지	송아지
212014	배넛소	벵작췌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	*
212015-2	이듭/두슴(2)	*	*
212105-3	사룻(3)	*	*
212015-4	나룻(4)	*	*
212015-5	다슴(5)	*	*
212015-6	여슴(6)	*	*
212015-7	이룻(7)	*	*
212015-8	여듭(8)	*	*
212015-9	아슴/구룻(9)	*	*
212015-10	열룻/담불(10)	*	*

212016	작두	작도
212017	쇠죽	췌죽
212018	구유	구시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암말

212023	수말	숫말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레말
212026	청총마/총이말	청총이
212027	절따말/적다마	*
212028	얼룩말	얼룩말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흰말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
212033	조랑말	조랑말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말ㅁ쉬
212036	글경이	글쟁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말무젼미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비리
212048	비루먹다	비리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쟁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수득
212057	털떠구니	*
212058	산떡	*
212059	닭의어리	들꼬달

212060	닭장	독망
212061	달걀	독세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빙아리	빙아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ㅎ다
212069	가르다[分]	가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일성머리
212072	생둥이	서툰바치
212073	새끼 돼지	죇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통제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고기
212076	적	적갈
212077	적꼬치	적고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관(푸줏간)	*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시랭이
212081-1	둘암소	지시랭이췌
212081-2	둘암말	지스랭믈
212081-3	둘암돼지	지시랭암툷
212081-4	둘암개	지스랭이개
212082	거위	계위
212083	오리	올랭이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취슬다	취싸다
212088	가시	가시

212089	구더기	똥버랭이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ㄱ다귀
212096	장구벌레	장글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쉬챙빃
212101	지렁이	지렁이
212102	회충	게우리
212103	거머리	거말
212104	바구미	돛보리
212105	콩바구미	*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생이
212108	그리마	검수에기
212109	쥐며느리	*
212110	노래기	구레기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지다
212114	하루살이	사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
212116	달팽이	들벙이
212117	민달팽이	*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미
212120	왕개미	왕게미
212121	불개미	노린게염지
212122	메뚜기	만축
212123	방아깨비	산뒤말축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각췌기

212126	귀뚜라미	공쟁이
212127	풍덩이	풍덩이
212128	장수풍덩이	하늘쇠
212129	무당벌레	*
212130	쇠똥구리	*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집제기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심방나비
212137	날다[飛]	늘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산태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물자리
212141	장수잠자리	장수물자리
212141-1		
212142	매미	매미
212143	매미허물	매미뿔
212144	말매미(왕매미)	*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212146	소금쟁이	소금바치
212147	방개	방개
212148	반딧불이	불란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청벌
212151	꿀	청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사상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
212155-2		*
212156	송충이	송충이
212157	개구리	가개비
212158	올챙이	강벼룩

212159	맹꽁이	맹꽁이
212160	두꺼비	두체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띠
212161-2	뱀허물	베염옷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띠
212163	도마뱀	독다귀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들짐승

212166	여우	여시
212167	노루	노루
212168	염소	염소
212169	토끼	튀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쥐
212172	갸다	굽다
212173	쥐구멍	쥐구녕
212174	박쥐	박쥐
212175	다람쥐	드라미
212176	오소리	오소리
212176-1		
212177	지달(이)	*
212178	지달피	*
212179	멧돼지	산토세기
212180	원숭이	원생이
212181	원숭이띠	원생이띠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호랭이띠
212184	꼬리	꼬리

날짐승

212185	새[鳥]	세
212186	꿩지	꿩지
212187	깃[羽]	깃

212188	새총	늘애기
212189	새가슴	득가심
212190	참새	참새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
212195	솔개	*
212196	까치	간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남도래기새
212199	뼈꾸기	버꼭새
212200	종달새	종조리
212201	올빼미	올빼미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까도리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득세기
212206	꺼병이	꿩비애기
212207	두루미	하기새
212208	기러기	기레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땡갱이
212213	눈알고등	돌보말
212214	밤고등	먹보말
212215	팽이고등	수두리
212216	각시고등	심방ㄹ메기
212217	두드럭고등	*
212218	대수리	마타살
212219	타래고등	가마귀보말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대오살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
212225-1		
212226	진주담치	가마귀부리
212227	소라	구제기
212227-1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212228-2		
212229	전복갑	전복껍데기
212230	오분자기	오분제기
212231	게	강이
212232	마위게	지름강이
212233	부채게	돌쟁이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춤강이
212236	꽃게	꼭쟁이
212237	소라게	게틀레기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아강발
212240	갯강구	밥게
212241	말미잘	말미잘
212242	성게	구살
212243	말뚱성게	슴
212244	군소	굴멍이
212245	새우	새워
212246	불가사리	고냉이방석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물췌기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서대
212252	해삼	해삼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닷고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베카다
212261	생선(生鮮)	생선
212262	미끼	느껍
212263	갯지렁이	게수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숫대	낙숫대
212266	만들다[造]	맹글다
212267	낙숫줄	낙숫줄
212268	붕돌	뿡돌
212269	참대	츄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구생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보리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베들레기
212280	말뚝망둑어	붓벨레기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옥돔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돌돔
212290	감성돔	검은돔
212291	벙에돔	*
212292	황돔	보리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212294	고등어	고등어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개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어
212299-1		
212300	붉바리	*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괘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
212307	독가시치	*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가다리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갈레죽상의
212312	개상어	쫄진다리
212313	팽이상어	도랭이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곰세기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무낭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가라지
213002	갈대	갈대
213003	억새	어욱
213004	새풀	어욱꽃
213005	화승(火繩)	*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
213008	길차다	질차다
213009	빨기	뽕이
213010	사초	상고지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쉐터럭
213013	쇠무릎	*
213014	바랭이	절완지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북제완지
213017	방동사니	산뒤삼촌
213018	마디풀	막작쿨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메마
213025	갯메꽃	개꽃낭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개비눔
213029	참비름	참비눔
213030	땅빈대	*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평밥
213033	여우구슬	독풀
213034	질경이	베채기
213035	쭈	숙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쑥떡	숙떡
213038	토끼풀	튀끼풀
213039	개자리	개자리풀
213040	냉이	난지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
213043	여뀌	*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소왕이
213046	췌기풀	췌기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풀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푸깨기
213054	땅파리	밀푸깨
213055	피막이풀	빈네
213056	도깨비바늘	개바농
213057	도꼬마리	조부레기
213058	모시풀	*
213059	왕모시풀	*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맥문동
213062	밀나물	멘순
213063	살갈퀴	*
213064	차풀	*
213065	결명자	*
213066	까마중	*
213067	하늘타리	두레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
213069	부처손	푼채손
213070	방가지뚱	*
213071	닭의장풀	고낭귀
213072	배풍등	*
213073	췌	칙

213074	취덩굴	칙줄
213075	취뿌리	칙빨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
213081	함바기	정동낭
213082	담쟁이	눈벨레기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
213085	멸꿀	멍꿀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등디쿨
213090	수영(승아)	*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
213093	땀싸리	비싸리
213094	명아주	제낭
213095	갓	갓
213096	달래	뽕마농
213097	씀바귀	*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
213104	구릿대	구리대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
213107	피마자	*
213108	뉴질랜드삼	*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칠비
213113	개구리밥	물웃
213114	줄	*
213115	마름	물망쉬
213116	싱경이	*

꽃

213117	꽃	꽃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땅꽃
213120	민들레	고름풀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고냉이풀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도체비꽃
213127	맨드라미	독고달
213128	해바라기	해바래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
213133	수국	사발꽃
213134	산수국	도체비낭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물마농꽃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불히
213142	잔뿌리	잔불히
213143	줄기	줄기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썸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썸
213151	솔가리	솔썸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멜감	멜감
213154	마디다	마디다
213155	갈퀴	글갱이
213156	도끼	도끼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동박낭
213160	붉다[赤]	붉다
213161	멀구슬나무	*
213162	버드나무	버디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웨가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옴나무	*
213167	삼나무	숙데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벗낭
213170	왕벗나무	*
213171	사옥	*
213172	느티나무	굴묵낭
213173	주목	*
213174	종려나무	*
213175	윤노리나무	윤노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낭
213179	생달나무	사닥낭
213180	쿨나무	쿨낭

213181	따다[摘]	따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자낭
213184	비자나무	비자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레기낭
213189	배롱나무	*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개웃낭
213192	팥팥나무	팥낭
213193	노린재나무	제낭
213194	때죽나무	*
213195	마가목	마깨낭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곱낭
213199	향나무	상낭
213200	옷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리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개똥낭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귀똥나무	개팥낭
213208	섬귀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호랭이가시낭
213214	돌가시나무	돌가시낭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
213217	덜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좁때	*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
213227	천선과나무	*
213228	실거리나무	실거리낭
213229	굴피나무	구낭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검복낭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츠낭
213235	상수리나무	가시낭
213236	참나무	츄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살이
213242	모람	*
213243	누리장나무	*
213244	아왜나무	아왜낭
213245	순비기나무	*
213246	붉나무	북낭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일
213250	껍질	껍질
213251	깎다	가끄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딸기
213254	뱀딸기	베염탈
213255	멍석딸기	보리탈낭
213256	복분자딸기	검은탈낭
213257	줄딸기	줄탈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탈
213260	검은딸기	감은탈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개즈밤
213263	머루	멸뢰
213264	개머루	고냉이멸뢰
213265	까마귀머루	가마귀멸뢰
213266	산머루	산멸뢰
213267	상동나무	상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
213270	다래	*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
213273	보리수	*
213274	보리장나무	*
213275	앵두나무	앵두낭
213276	앵두	앵두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개탕쥐
213282	탱자나무	개탕쥐낭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초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시
213287	풋감	풀감
213288	청미래덩굴	멜레기낭
213289	맹감	멜레기

213290	찹레나무	도꼬리낭
213291	영실	새보리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뜯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붓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게낭
213303	복숭아	복숭게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
213310	미역쇠	메역세
213311	김	짐
213312	파래	프래
213313	톳	틀
213314	패	*
213315	넓패	*
213316	지충이	지충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청각	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